

강원학학술총서 13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책을 내며

개항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에 들어온 이방인 선교사들은 한국의 근대 및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의 곳곳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진행하였고 선교지의 모습이나 선교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의 신분은 선교사였지만 이들의 관심은 선교에만 있지 않았다. 이들의 관심은 자연환경, 교육, 기후, 역사,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있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의 기록 속에 한국 그리고 한국인은 선교사 파견 없이 스스로 종교를 받아들인 나라, 여러 번의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끈질지게 신앙을 지킨 가난하고 순박하지만 믿음은 강한 이들로 묘사되었다.

반면에 나무나 돌 등 미신을 섬기거나 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게으른 사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정확하지 않으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없고, 아이들을 매매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도 비춰지기도 했다.

한국을 향한 이들의 시선에는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서구우월주의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내에서 그들의 입지와 한국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조소하는 선교사도 있었다.

이들의 기록은 서구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고, 서양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길잡이 역할도 했다. 이들의 기록을 읽고 있노라면, 19세기 한국 사회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듯 몰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서양인 선교사의 눈에 비춰진 모습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현재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인 북강원까지 포함하여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이들의 기록들을 읽어가며 강원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발췌한 내용은 A4 200장이 넘는 분량이었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선교지의 모습 및 선교 활동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한국의 역사 전개 과정 속에서 강원지역의 모습 및 자연환경,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 다양함 속에서 우선 1차로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있지만, 후속 연구를 기약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강원학연구센터장인 강릉원주대학교의 장정룡 교수님과 우리 연구의 실무를 맡아 여러 번에

결친 교정과 요청사항을 묵묵히 들어준 정지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의 타자들에 대해서 편견 없는 시선이 아닌 예전 우리를 바라본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 그들의 시선과 우리 안의 타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자를 대표하여 이원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010
	2. 연구사 검토	014
	3. 연구 내용	022
	4. 선교사 현황	028
II 강원지역의 자연 환경과 기후	1. 강원지역의 개관과 자연	038
	2. 기후와 재해, 동·식물	046
III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선교사의 시선	1. 동학농민운동	061
	2. 의병	067
	3. 조선을 매개로 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077
	4.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선	080
	5. 신자들의 간도 이주에 대한 시선	096
IV 선교사의 사목활동	1. 워털 주교의 눈에 비친 선교지	108
	2. 선교사들의 보고	134
	3. 성당 건축	144
	4. 학교 설립과 성영회	148
	5. 선교사들이 소개하는 신자들에 대한 미담(美談)	159

V		
분쟁의 발생 - 교안(敎案)	1. 1886년 조불조약부터 1904년 러일전쟁 시기 교안	170
	2. 개신교의 교세 확장	190
VI		
강원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인식과 오해, 그리고 한계	강원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인식과 오해, 그리고 한계	196
VII		
결론		220
<부록>		
	1. 참고문헌	232
	2. 용어설명	238
	3. 영문초록	250

—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조선 사회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 기호 남인 계열의 유학자들이 새로운 사상적 조류로써 서학(西學)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서학에 대해서 연구하던 이벽, 권철신 등은 서학에 대한 단순한 학문적 관심에서 벗어나 신앙적인 이념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洗禮)를 받고 돌아오면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이들은 북경 교구(教區, Diocese)¹⁾와 로마 교황청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로마 교황청은 조선의 선교지를 북경 주교로 하여금 보호하고 지도하도록 하였고, 북경 주교는 1795년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파견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입국하여 교회조직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입국한 지 5년 만에 박해

1) 가톨릭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본단위(單位). 즉 교회의 행정상의 한 구역을 말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 교구 항목 참조)

로 순교하였다. 주문모 신부의 순교 이후, 선교사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1811년이 되자, 북경교구의 주교와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주문모 신부 이후 조선 천주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다시금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1831년 로마 교황청은 조선을 북경 교구에서 분리하여 조선 대목구(代牧區)²⁾로 설정하고, 파리의방전교회로 하여금 조선대목구를 관할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선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대 교구장으로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신부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브뤼기에르 신부는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끝내 입국하지 못하고 만주에서 사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1836년 모방(Maubant, 羅伯多祿) 신부가 입국하여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다. 이때부터 1942년 노기남(盧基南, 1901~1984) 신부가 조선인 최초의 주교로 경성대목구장(京城代牧區長)에 임명될 때까지 조선 천주교회는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대목구 설정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파리의방전교회가 어떠한 선교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서구 문명 사회를 벗어나 조선에 들어왔고, 조선에 천주교 신앙과 더불어 서구 근대 문명을 비유럽 사회인 조선에 전파하는 사명도 띠고 있었다. 즉 선교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입

2)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구로서 교황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구. 정식 명칭은 교황대리감독구(敎皇代理監牧區)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목구라고 하며, 이 교구의 장(長)을 대목(代牧) 또는 대목구장(代牧區長, 정식 명칭은 敎皇代理監牧區長)이라고 한다. 대목은 교황청에서 임명하며 교황을 대리하여 정식 교구의 주교와 같은 권한을 대목구에 행사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 대목구 항목 참조〕

장에서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조선에, 소위 말하는 문명적인 가치 및 문명화된 생활방식을 통해 조선인들을 계몽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던 것이다.³⁾

선교사들은 각자의 선교지에서 활동하면서 선교에 대한 상황과 선교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기록을 주교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주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한을 통해 주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은 당시 조선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사들의 기록은 교회 내부에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공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혹 공개한다 할지라도 판독 및 번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자에 들어 그들이 남긴 기록에 대한 판독 및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록 속에는 선교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반도의 전반적인 모습이 잘 담겨있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강원지역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타자(他者)인 외국인 선교사의 기록은 그들이 비록 선교사이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는 하나 교회의 상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기록에는 당시 한국의 여러 상황에 대한 견해와 그 시대를 함께한 강원지역의 경제, 사회, 기후, 교육, 문화상 등 다양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직접 경험하며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이들로, 이들의 기록은 1차 사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종래에는 교회측의 자료에 국한된다는 인식이 강하여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3) 양시용, 『구한말 선교사들의 교육, 의료활동』,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또한 그들의 기록은 남과 북, 분단 이전의 역사를 담고 있으므로 이 기록에는 현재 강원도만이 아닌 북강원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의 분단 도(道)인 강원도의 반쪽의 역사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천주교의 측면에서도 강원도는 북강원도를 포함하여 관할하고 있었으나 현재 북강원도는 침묵의 교회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기록과 강원지역을 순방한 뮌텔 주교 등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강원지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발췌하고, 그 기록 속에 보이는 교회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의 사회, 경제, 교육, 기후, 정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 지역의 근대사를 직접 경험한 이들로, 이들이 남긴 기록은 1차 사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기록은 교회사적인 기록만이 아니라 당시 강원지역에 대한 기록과 지역민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교회사 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 영역 확장 및 생활사를 접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까지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북강원도를 포함한 강원지역의 당대 천주교의 상황 및 생활상을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강원도에 대한 문화적 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미래지향적 접근이기도 하다.

2. 연구사 검토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는 실학이라고 하는 근대 사상 체계의 이해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사회변동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는 주로 종교적인 입장과 순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행해졌다.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통사적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유홍렬이었다.⁴⁾ 유홍렬은 천주교가 동양에 어떻게 전래되었고 이것이 조선에 들어오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천주교 탄압, 일제강점기하에서의 천주교의 상황 및 해방과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큰 흐름 속에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⁵⁾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를 개척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통사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원순은 한문서학서가 조선 후기 사회에 끼친 사상적 영향이나 실학자들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 초기 천주교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천진암·주어사 강학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천주교의 수용 및 정착, 천주교 탄압의 역사적 배경 및 의미와 교안(敎案)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사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하였다.⁶⁾

1970년대 이후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4) 유홍렬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앞서 샤를로 달레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가 간행되었다. 샤를로 달레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는 선교사들이 보낸 서한과 다블뤼 신부가 수집하여 보낸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샤를로 달레 신부가 입국한 적이 없고 종교적이며 순교적 사실에 치우쳤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6) 李元淳, 『韓國天主教會史研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하면서, 사상사(思想史)의 측면에서 서학을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유교와 서학이라는 동서문화(東西文化)의 만남을 통해 서학과 유교의 교류와 갈등을 살피고, 이익·신후담·안정복 같은 실학자들이 서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통해서 천주교 전래가 조선 후기 사상계에 미친 영향과 반응을 살피기도 하였다.⁷⁾

또한 조광과 노길명은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사회사상사 또는 사회사 연구 방법론의 입장으로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조광은 천주교 신앙이 수용된 1784년부터 1801년까지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초기 지도층의 실태를 분석하고, 초기 교인들의 행동 양식 및 천주교 인식, 당시 조선 정부 관료들의 천주교 인식을 통해 초기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⁸⁾ 노길명은 종교는 사회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사회제도 중의 하나로 사회구조나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사회구조나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천주교 수용이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초기 천주교 신앙 운동을 주도한 계층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초기 천주교 신앙 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천주교와 유교가 충돌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행된 이유 및 천주교 신앙 운동의 성격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천주교와 조선후기 사회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⁹⁾

7) 李元淳, 『朝鮮西學史研究』, 一志社, 1986; 도널드 베이커 저, 金世潤 譯, 『朝鮮後期 儒敎와 天主教의 대립』, 일조각, 1997; 차기진, 『조선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금장태, 『조선후기 儒敎와 西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등이 있다.

8) 趙珖,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9) 盧吉明, 『가톨릭과 朝鮮後期 社會變動』,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국 천주교의 수용 시기에 관한 논쟁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¹⁰⁾ 천주교 탄압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¹¹⁾ 또한 1886년 조불수호조약의 체결 이후 천주교가 정착,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인과 비교인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교안(敎案)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¹²⁾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각 지역별 천주교회사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¹³⁾ 강원지역 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로는 각 교구나

10) 메디나 신부 지음, 박철 옮김,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1566-1784)』,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윤민규,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국학자료원, 2002.

11) 崔奭祐 編著, 『丙寅迫害資料研究』, 韓國教會史研究所, 1968; 박동욱, 『박해기 한국천주교회의 경제관』, 『한국교회사논문집』 1, 1984; 김옥희, 『박해시대의 교우촌』, 작은 예수, 1986; 趙珧, 『辛酉迫害의 分析的 考察』, 『教會史研究』 1, 1997.

12) 李元淳, 『朝鮮後期社會의 ‘敎案’ 研究』, 『韓國天主教會史研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朴贊植, 『韓末 天主教會와 鄉村社會』,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장동하, 『개항기 한국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1901년의 제주교안은 한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교안이었고 그 여파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제주교안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敎迫害-1901년의 敎難-』,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朴廣成, 『1901年 濟州島民亂의 原因에 대하여 -辛丑 天主教 迫害事件-』, 『인천교대 논문집』 2, 1967; 金玉姬, 『濟州島辛丑敎難史』, 太和出版社, 1980; 朴贊植, 『濟州敎案에 관한 一檢討 - 소위 ‘三義士’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8, 1991; 朴贊植,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濟州敎案』,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朴贊植, 『韓末 天主教會의 濟州敎案 인식 - 뒤뮐문서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朴贊植,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 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朴贊植, 『韓末 敎案과 敎民條約』, 『教會史研究』 27, 2006; 방상근, 『한말 천주교와 제주교안』, 『教會史研究』 17, 2001. 해서교안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윤경로, 『初期 韓國 新舊敎 關係史 研究 - 海西敎案과 文書論 爭을 中心으로』,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3, 1985; 신광철, 『개항기 한국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 - 海西敎案을 中心으로』, 『宗教研究』 11, 1995 등이 있다.

13) 安奇英, 『朝鮮後期 內浦地方의 天主教 傳來와 受容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金周燮, 『天主教 信仰 地域 形成過程에 關한 研究 - 安城地方을 中心으로』,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손숙경, 『朝鮮後期 慶南地域의 初期 天主教 受容者들과 受容形態』, 『釜山史學』 34, 1998; 俞炳基·朱明俊, 『忠淸道 天主教 傳來-이존창의 활동을 中心으로-』, 『全州大學論文集』 11, 1982; 朱明俊, 『天主教의 全羅道 傳來』, 探究堂, 1998; 차기진, 『초기 교회시대 경기 북부지역의 천주교- 경기도 마제의 나주 정씨 집안을 중심으로』, 『教會史研究』 31, 2008; 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지역의 천주교』, 『教會史研究』 31, 2008; 양인성, 『개항기-일제시대 경기 북부지역의 천주교-본당 및 공소와 신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教會史研究』 31, 2008; 최영준, 『19세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확산』, 『대한지리학회지』 34권 제4호, 1999; 김경숙, 『쌍호공소를 통해 본 천주교 교우촌의 성립과 변천』, 『인문연구』 5, 2009.

성당에서 발간한 개설적인 교구사, 성당사가 있고¹⁴⁾ 이외에 천주교의 전래나 교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⁵⁾

강원지역의 천주교 전래에 관한 연구는 김정호, 여진천, 금경숙, 이원희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정호는 영동지역 천주교 수용에 관해서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들이 의해 강릉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진천은 원주지역의 천주교 정착과 발전을 조불조약 체결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금경숙은 춘천과 홍천의 천주교 수용에 대해서 최양업 신부 일가의 이력서와 황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원희는 원주, 횡성 지역의 천주교 전래가 육로와 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육로와 수로를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 교우촌이 형성되었음을 밝혔으며, 교세통계표를 사료로 해서 북강원도 이천(伊川)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교우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강원지역 교안(敎案)에 대한 연구는 여진천과 이원희에 의해서 이루어졌

14) 강원도내 교구와 성당에서 발간한 책은 다음과 같다.

원주교구 : 『원주교구 30년사』; 『성내동 오십년사』; 『원동성당 백년사』; 『의림동성당 25년사』; 『정선본당 50년사』; 『학성동성당 오십년사』; 『태장 10년사』; 『용소막성당 100년사』.

춘천교구 : 『춘천교구 50년사』; 『사진으로 돌아본 간성본당』; 『교동 삼십년사』; 『김화성당 50년사』; 『노암동본당 13년사』; 『동명동본당 50년사』; 『무호봉당 50년사』; 『성산본당 25년사』; 『양구성당 40년사』; 『양양성당 80년사』; 『임당동성당 97년사 자료집』; 『죽림동성당 70년사』; 『홍천성당 88년사』.

15) 金正浩, 『嶺東地域 天主教 受容에 關한 研究』, 『嶺東文化』 5, 1994; 여진천, 『천주교의 원주지역 정착과 발전 연구(1888년~1909년을 중심으로)』, 『원주학연구』 2,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2001; 이원희, 『原州·橫城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정착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금경숙, 『강원도 영서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 -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 『博物館誌』 9, 2002; 여진천, 『19세기 화석학과와 홍재구의 서양인식과 천주교회의의 반응 -정축신권을 통하여』, 『敎會史研究』 21, 2003; 이원희, 『한말 횡성지역의 교안』, 『江原文化史研究』 8, 2003; 이원희, 『1898년 고성지역의 천주교도 홍경모의 토지능탈사건과 불라두 신부』, 『釜山敎會史報』 43, 2004; 이원희, 『강원지역 교안의 발생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2010; 이원희, 『1920년대 춘천성당 관할 교우촌의 통혼 분석』, 『교회사학』 8, 2011; 이원희, 『천주교 집회장소의 변화양상 - 강원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9, 2012; 이원희, 『강원지역 교우촌 현황 연구』, 『교회사연구』 48, 2016, 이원희, 『병인박해와 강원지역 사람들에 관한 고찰』, 『교회사학』 13, 수원교회사연구소, 2016; 이원희·김대기,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의 의료활동-강원도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14,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다. 여진천은 홍재구가 작성했다고 전해지는 『정속신편(正俗新編)』의 서지사항 및 홍재구에 관해 소개하고, 『정속신편』의 내용 중 서양에 관한 인식이 횡성에서 발생한 교안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이원희는 『법안(法案)』과 『각사등록(各司騰錄)』 등 관측 자료를 통해서 횡성에서 발생한 교안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1898년 고성에서 발생한 교안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 교안에 연루되었던 블라두 신부의 자질이 교안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밝히고 이후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을 찾아내고 그러한 교안의 발생 배경과 각각의 교안에 대한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생활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원희는 천주교의 집회 장소가 개인 집에서 한옥형 성당 그리고 서구식의 성당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강원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천주교인들간의 통혼(通婚) 사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골롬반 문서』와 『The Far East』의 기사를 중심으로,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의 의료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전쟁 직후 춘천의 성 골롬반의원과 삼척의 성 요셉 의원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이전 지역 의료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교사 및 그들이 남긴 기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¹⁶⁾는 주로 호교(好敎)론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천주교측에서 이루어진 선교사에 대한 연

16) 홍이섭, 『다브뤼 신부의 조선연구에 대하여』, 『향토서술』 제2집, 1958; 배세영, 『한국 파리외방전교회와 전교망침』, 『한국교회사논문집』 1, 1984; 최석우, 『재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근대종교사연구』, 원광대 출판국, 1984; 김용구, 『서양 선교사들이 본 한국 인상』, 『국제문제연구』 제9호, 1985; 송민, 『프랑스선교사의 한국어 연구과정』, 『교회사연구』 제5집, 1987; 이병호,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성과 한국 교회』, 『교회사연구』 제5집, 1987; 이창복·이문호,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 식물 연구』, 『교회사연구』 제5집, 1987; 김정숙, 『갈레 신부 활동을 통해서 본 1860년대 조선 가톨릭 문화』, 『방곡 황종동교수 정년기념사학논총』, 1994; 조현범,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문명관』, 『교회사연구』 제15집, 2000.

구는 그들을 박해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조선에 들어와 조선에 신앙의 씨앗을 뿌린 은인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업적과 순교의 역사를 부각하는데 치중하는 인상을 보인다. 이는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열성을 고양(高揚)시킨다는 의미는 있으나 객관적인 종교사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1차 사료를 사용함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며, 엄밀한 태도로 1차 사료를 인용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되는 자료가 발견될 경우, 조선정부로 대변되는 관측의 기록은 박해자의 기록이라 하여 배격하고, 시기적으로 약간 후기에 작성된 것일지라도 교회 측의 기록을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채택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¹⁷⁾

이에 조현범은 파리의방전교회 고문서고에 보관되어있는 조선대목구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 중 1831년부터 1866년까지 조선에서 활동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보낸 서한을 기초로 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인식과 문명관을 살펴보았다. 조현범은 조선에 진출한 선교사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선교지인 조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현범의 글에서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프랑스의 생활을 동경하였고 그 결과 조선식 생활과 유럽식 생활이 혼재된 이중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생활 방식은 그들이 조선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쳐, 조선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조선인들의 성격과 관습, 종교에 대해서도 미개하다는 인식

17)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21쪽 참조.

을 보였다.¹⁸⁾

1983년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대목구 제8대 교구장 뮈텔(Gustave Mutel, 1854-1933) 일기의 복사본 일부가 한국에 입수되었고, 이에 대한 판독과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뮈텔 일기를 이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뮈텔 일기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첫째는 뮈텔 일기를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 둘째는 뮈텔에 관한 인물 연구, 셋째는 일기를 통해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방향이다. 뮈텔 일기에 대한 개관은 뮈텔 일기의 안내서 역할을 하는 연구로, 8권의 번역본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동안에 작성된 해제이다. 뮈텔에 대한 연구는 그의 생애와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¹⁹⁾들이며, 일기를 통해 한국 근대사를 연구한 것은 일기 속에서 특정 주제들을 선별하여 작성한 연구²⁰⁾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기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인 접근이었고, 뮈텔 일기를 연구 자료로써만 활용한 주제별 접근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²¹⁾

이에 김정환은 파리외방전교회에 보관되어있는 뮈텔 일기 원본, 그것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 필름을 인화한 사본, 판독본과 번역본 이렇게 5가지 판본을 통해서 뮈텔 일기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와 일기에 대한 주요 내용

18)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331-335쪽 참조.

19) 차기진, 『근대 한국 사회와 프랑스 선교사의 역할-조선 8대 교구장 Mutel 주교를 중심으로』, 『교회와 역사』 160호, 1988; 김정환, 『귀스타브 뮈텔의 사목활동』,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기영, 『뮈텔 주교의 한국 인식과 한국 천주교회: 뮈텔 주교 일기』를 읽다, 『교회사연구』 37집, 2011; 김태웅, 『조선말 대한제국기 뮈텔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연구』 37집, 2011.

20) 심인옥, 『개화기 한옥 성당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뮈텔주교의 일기에 나타나는 건축적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승호, 『뮈텔 대주교 재임 시기 교회와 사회』,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정환, 『한말 일제강점기 한국 천주교회의 재편-뮈텔주교의 재임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2010; 김정환, 『뮈텔주교 재임기의 교세 변화』, 『교회사연구』 37집, 2011.

21) 김정환, 『뮈텔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20쪽 참조.

을 살피는 작업을 전개하였다.²²⁾

또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을 방문한 이들의 기록²³⁾이나 개신교 선교사들의 기록²⁴⁾ 및 천주교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²⁵⁾ 등이 번역되고는 있으나 이들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역 천주교사 및 지역사를 바라보는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22) 김정환, 『뒤편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331~335쪽 참조.

23) 장 드 팡주, 콘스탄스 테일러 지음, 심재중 옮김, 『프랑스 역사학자의 한반도 여행기 코리아에서/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이 책은 대한제국 시기 한반도를 직접 겪은 두 외국인의 시선을 보여주는 두 편의 글이다. 장 드 팡주의 기록은 일본을 거쳐 제물포를 통해 서울에 들어왔다가 금강산과 원산을 여행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자신의 여정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기행문 형식이고, 콘스탄스 테일러의 기록은 여성 화가가 여성과 하인들의 생활, 결혼 및 장례 문화, 인사 예절, 명절 모습, 복식과 가마, 신발과 갓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 담고있는 글이다.

24) 세실 허저스 지음, 안교성 옮김, 『한국인의 신앙과 풍속(영국성공회 선교사의 눈에 비친)』, 살림, 2011. 이 책은 영국성공회가 한국 땅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1890년부터 1917년까지의 선교 활동을 선교사들이 직접 서술한 것으로서, 당대의 선교부와 교회 사정은 물론이고 선교사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요긴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5) 안드레 에카르트 지음, 이기숙 옮김,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 독일인 옥난안이 본 근대 조선인의 삶』, 살림, 2010. 이 책은 독일 베네딕트회 소속의 신부 안드레아스 에카르트가 1909년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독특한 여행기이자 소개서로, 정치적 격동기를 겪었으면서도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선교사이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목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쓰고 있지 않은 여행기이다.

파리 외방전교회 지음, 김승욱 옮김, 『조선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 살림, 2015. 이 책은 조선에 첫 선교사를 파견한 파리 외방전교회가 조선 천주교회사의 시작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1784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조선 천주교회사를 서술하고 있다.

아트튀르 피아센티니 신부 지음, 강옥경 옮김, 『리델 주교 - 필리포폴리스 주교. 조선교구장』, 살림, 2018. 이 책은 리델의 서한과 동료 신부들의 연행을 바탕으로 한 저술로, 박해시기 한반도의 정세 및 조선의 생활풍습·기후·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조불수호조약이 체결되는 1886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에 있어 외국인 선교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였다는 특징을 가지며, 연구범위는 현재의 북강원도를 포함한 당대 강원지역 전역에 이른다. 이는 현재 강원 지역 만이 아니라 분단으로 나누어진 북강원지역의 당대 천주교 상황까지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현재는 북강원에 속하는 원산, 안변, 문천의 경우 1946년에 북강원에 편입되었으므로 본 연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뫼텔 주교 일기』,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서울교구 연보』, 골롬반의 선교잡지인 『The Far East』, 『골롬반 문서』, 그리고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프와요 신부, 시잘레 신부, 기요 신부, 드브레 신부, 르메르 신부의 서한이다. 또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인이기는 하나 동 시기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정규하 신부의 서한을 비교 대상으로 참고하였다.

『뫼텔 주교 일기』는 뫼텔 주교가 조선 8대 교구장에 임명된 날인 1890년 8월 4일부터 1933년 1월 14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재임 기간의 사목활동과 교회 안팎의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뫼텔 주교는 조선에서 43년간 교구장직을 수행하며, 조선의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였다. 그는 교회 내에서는 선교사와 신자들, 교회 밖에서는 주한 외교사절과 조선 정부의 외국인 고문들, 조선의 관료, 고종 등과 만나며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일기에 담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다.

뫼텔 주교는 한국어에 능숙하여,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명 등을 한자로 직접 기록하기도 했으며, 일기에는 개인 신변에 관한 내용 외에 교회와 관련된 보고서·공문서, 그리고 그가 직접 받은 초청장, 명함, 전보 그리고 신문 기사, 각국 영사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을 일기에 남겼다.

교회의 성장과 변모에 대해서는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의 교육내용과 운영, 명동성당과 중림동 약현성당의 건축과 주요 행사, 본당 증설, 계성학교·남대문 상업학교(현 동성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양로원·보육원 등의 사회사업, 《경향신문》·《경향잡지》 등의 언론·출판사업,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조사와 시복식, 대구·원산·평양·연길 교구의 증설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에서 머물면서 만난 프랑스 공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조선의 내정과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 등도 기록하고 있어 뫼텔이 바라봤던 당시 외교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뫼텔 주교는 한국의 정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듣고 경험한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을미사변, 3·1 운동 등 한국 근대사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교회에서 간행된 기록이기는 하나, 그 시기를 직접 경험하며 보고 들은 것을 작성한 것으로 한국 근대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1차 사료이다. 특히 1895년 이래 고종과 세 번 만나면서 그와 나눈 대화를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이나 앞뒤 사정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1차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은 1892년부터 1928년까지 강원도 이천

(伊川)과 평강(平康) 지역에서 활동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뮌헨 주교와 주고받은 서한을 번역한 것이다. 이 서한집에 나오는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는 3명으로 뒤테르트르 신부, 루케트 신부, 부이수 신부이다. 뒤테르트르 신부의 서한은 그가 이천 본당에 부임한 1892년부터 1904년 사망할 때까지 64통이며, 루케트 신부의 서한은 1904년부터 1914년까지 71통, 부이수 신부의 서한은 그가 이천의 포내 본당에 부임한 1896년부터 본당이 폐지되는 1928년까지 135통이다.

뒤테르트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교안과 관련된 것이 많이 보인다. 그가 활동한 시기인 1892년부터 1904년까지는 천주교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안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그가 활동한 이천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그의 서한에서는 천주교와 지방 관아 또는 지방민 사이의 충돌에 대한 것이 많이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의 뮌헨주교는 주한 프랑스 공사에게 도움을 받아 외교적인 협상에 나서고 지방에 주재하는 선교사들은 조불조약의 조약문과 호조(護照)를 내보이며 지방관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교회 및 천주교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보인다.

루케트 신부가 활동하던 시기는 1904년부터 1914년으로, 이 시기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천주교회의 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해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당시 선교사들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 즉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눈을 돌렸다. 이에 루케트 신부 서한에서는 사제관 공사, 학교 설립, 혼배와 같은 사목상의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

뒤테르뜨르 신부와 루케트 신부의 활동 시기 전체를 관통하여 북강원 이천과 평강에서 활동했던 부이수 신부의 서한에서는 근대 개항 무렵의 사회적 혼란에서 시작하여 일본에 의해 식민 통치에 이르는 과정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조선 천주교회의 태도, 점차 증가하는 교회 내부의 사무에 몰두하는 자세 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은 1892년부터 1928년까지 북강원도의 선교 상황 및 북강원도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은 1887년부터 1921년까지 함경도의 원산 본당과 안변(내평) 본당에서 활동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사목활동을 하면서 뒤편 주교에게 보낸 서한이다. 원산 본당과 안변 본당은 개항기에 함경도에 설치되었던 본당들이었고,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본당이 따로 창설되었으나, 1890년경 강원도 이천 본당의 신부였던 쿠데르 신부가 임시로 원산, 안변 본당까지 사목하면서 두 본당은 동반, 협조 관계로 발전되었다.

원산본당과 안변본당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함경도에 속해있으나, 당시 이 본당에서 사목한 선교사들은 강원 영동지역에 대한 사목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안변 본당은 1896년 내평 본당으로 개칭되는데, 이 당시 관할 구역은 평강, 간성, 양양, 강릉, 회양, 고성 등 강원도 영동지역에 해당되며 12개의 공소(公所)가 영동지역에 있었다.

이 서한 중 강원도 영동지역에 관해서는 이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면서 지나치게 신자들의 편을 들었던 블라두 신부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교안과 의병으로 인해 영동지역의 신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영동지역 공소에 대한 교세 현황 및 각 공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 당시

강원 영동지역 천주교회의 교회사적 모습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영동지역에서의 활동과 인식까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서울교구 연보』의 원명은 『Compte Rendu』이다. 이것은 본래 파리외방전교회가 발행하는 잡지 중의 하나이다. 잡지라고는 하나 일종의 연보(年報) 성격을 가진 것으로, 매년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서 각 포교지로부터 받은 교세 보고를 묶어 연간(年刊)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교세 보고는 교구장이 직접 작성하며 신자 수, 국내 정세에 대한 변화, 각 본당이나 각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통신을 요약하며 보고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보인다.

이러한 『Compte Rendu』 중 한국 교회에 관한 것만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 『서울교구 연보』이다. 서울교구 연보는 1878년부터 1938년까지의 기록으로, 외국인 교구장의 보고 속에서 강원지역의 교세와 성당 및 공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이다.

『골롬반 문서』는 1938년부터 1980년까지 강원지역 특히 춘천교구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담당했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기록이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1918년에 창설한 천주교 선교단체로, 1933년 교황청으로부터 한국 진출을 허락받아 맥폴린 신부 등 10명의 선교사가 입국해 전라남도 와 제주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강원지역에 대한 사목은 1939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기록 속에는 일제강점기 가택 연금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사목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 및 전쟁 이후 의료시설이 열악한 강원지역에 병원을 세워 의료선교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 및 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65년 원주교구가 설정되면서 강원지역에 대한 사목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시기는 1886년부터 1945년까지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골롬반 선교회의 의료선교 및 학교 설립 등에 대한 기록들

은 포함하지 않았다.

『골롬반문서』는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번역서 등으로 간행되지 않은 미공개 문서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강원지역의 사목을 알아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The Far East』는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에서 간행한 선교 잡지이다. 『The Far East』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출생지에 따라서 아일랜드에서 간행한 것과 미국에서 간행한 것, 호주에서 간행한 것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것은 아일랜드에서 간행한 것이다.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그들의 월간 기관지인 『The Far East』에 글을 기고하였고, 이 글에는 필자가 없는 것도 있다. 이들의 기록 속에는 천주교 신앙이 어떻게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서양 선교사들이 맞닥뜨린 조선에서의 첫 생활과 그 소감은 어떠했는지 등이 필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에는 아일랜드, 호주, 미국에서 간행된 『The Far East』가 1918년 간행본부터 2002년 간행분까지 소장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4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록에는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상을 유지해가는 선교사와 신자들의 모습이 담겨있어, 당대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프랑스 선교사 서한은 용소막 본당사에 수록된 서한과 풍수원과 원동에서 활동한 몇몇 선교사들의 서한으로 미간행 자료이나,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서한이다. 이들의 서한에는 선교사 본인의 활동인 선교 이외에 한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의병이나 동학운동, 일제강점기 사립 학교령 및 천주교인들의 간도 이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당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들로,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4. 선교사 현황

본 연구 대상 시기인 1886년부터 1945년까지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소속 선교회는 파리의방전교회,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베네딕도회가 있다. 이 시기 중 파리의방전교회는 1886년부터 1938년까지 강원지역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였고,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사목을 담당하였으며, 베네딕도회는 1920년 8월 5일, 함경남북도 지역이 서울교구에서 분리되어 “원산 대목구(元山代牧區)” 즉, “원산교구”로 설정됨과 동시에 함경도 지역에 대한 선교를 담당하였으며, 내평 본당이 1931년 강원도 고산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1931년부터 강원지역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베네딕도회의 강원지역 사목은 내평 본당이 1930년 초에 현재의 북강원도 고산지역으로 이전하고 “고산(高山) 본당”으로 불리게 되었을 시기로 이에 대한 자료나 기록은 많지 않다. 이에 베네딕도회에 대해서는 고산 본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²⁶⁾ 고산 본당은 다베르나스 신부의 이임으로 일시 공석이 되었고, 이에 당시 원산교구장 사우어 주교는 원산 본당 보좌로 있던 빌리발도 쿠젤만 신부를 임시로 고산 본당에

26) 고산본당에 대해서는 『함경도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349~350쪽을 참조하였다.

임명하였다. 이어 수도원 당가(경리신부를 말함)로 있던 플리치도 노이그르그(P. Neuggigg, 兪順和) 신부를 주임으로 임명하였는데, 노이그르그 신부는 당시 이곳에서 쉬면서 북쪽의 새 본당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베르나 신부가 본당을 떠남에 따라 고산 본당 주임으로 임명된 것이다. 1935년에는 새로 입국한 비트마르 파렌코프 신부가 임시 보좌로 임명되어 약 6주간 머물다가 10월에 고산을 떠나 북청 본당으로 이임하였다. 노이그르그 신부는 회장 김경신(金京信, 요한)의 도움을 얻어 1936년 4월부터 성당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이 해 8월에는 기공식을 가졌고, 1937년 6월 20일에는 이를 완공, 축성하였다. 새 성당은 대지 2,500평에 건평 122평이었다. 이때 사제관이 신축되었으며, 옛 사제관은 헐어서 해성 학교를 확장하는데 이용되었다.²⁷⁾

연구 대상 시기 중 강원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선교회는 파리외방전교회이다. 파리외방전교회²⁸⁾는 1658년 7월 29일 창설되고, 1831년 9월 조선에 처음 진출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초창기 발전은 물론 교회를 통하여 한국 민족과 고락(苦樂)을 같이한 선교단체이다. 파리외방전교회의 강원지역에서의 사목 활동은 1884년부터 확인되며, 1939년 서울대목구에서 강원지역이 분리되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로 위임될 때까지 50년 이상 사목 활동을 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는 파견된 포교지역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현지인(現地人) 성직자를 양성하여 그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1836년 모방(Maubant)신부가 입국한 이래 1837년에 제

27) 《경향잡지》 제31권 857호, 1937. 7. 12.

28) 파리외방전교회에 대한 설명은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참조하였다.

2대 조선대목구장인 앵베르(Imbert, 范) 주교와 샤프탕(Chastan, 鄭) 신부가 입국하였다. 이들은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래 목적에 따라 3명의 소년을 선발하여 마카오에 보내 교육을 받고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1845년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3명이 새남터에서 참수되었고 이후 박해시기를 거쳐 1877년이 되어서야 다시 조선에 입국할 수가 있었다. 1886년 조불조약 체결 이후, 포교 활동에 있어서도 그 전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게 되면서, 신학교를 설치하여 한국인 성직자를 배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한불자전(韓佛字典)』의 간행 및 한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간행사업을 펼쳤고, 각지에서 포교 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시약소(施藥所) 운영 등의 의료활동 등도 전개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포함한 한국 전체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선교사들의 서한 및 교세 통계표 등의 자료를 통해서 1886년부터 1938년까지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명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886년-1938년 강원지역 활동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명단²⁹⁾

번호	이름	한국명	입국연도
1	드게트(Deguette)	崔鎭勝	1876
2	푸와넬(Poisnel)	朴道行	1883
3	코스트(Coste)	高宜善	1885
4	쿠데르(Couderc)	具瑪瑟	1885

29) 이 명단은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것에 이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미처 못 찾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히며 추가되는 이름이 있다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

5	르메르(Le Merre)	李類斯	1887
6	로(Rault)	盧若望	1887
7	샤르즈비프(Chargeboeuf)	宋德望	1891
8	뒤테르트르(Dutertre)	姜良	1891
9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1891
10	블라두(Bouladoux)	羅亨默	1892
11	부이옹(Bouillon)	任加彌	1893
12	부이수(Bouyssou)	孫以燮	1895
13	그리사르(Grisard)	池安德	1898
14	리굴로(Rigoulot)	睦	1898
15	드브레(Devred)	俞世俊	1900
16	투르니에(Tournier)	杜啓昌	1902
17	포와요(Poyaud)	表光東	1903
18	루게트(Rouquette)	盧	1903
19	시잘레(Chizallet)	池士元	1905
20	조제(Jaugey)	楊秀春	1907
21	뤼카(Lucas)	陸加恩	1909
22	기요(Guillot)	吉	1910
23	피송(Pichon)	宋世興	1922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³⁰⁾는 성 골롬바노(Columbanus)가 죽은 지 약 1300년이 지난 1918년, 선교사로서 일생을 바친 골롬바노 성인을 주보로, 아일랜드 출신의 에드워드 갈빈(Edward Galvin) 신부가 설립하였다. 갈빈 신부는 중국 선교를 자원하여 1912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중국에서 4년 동안 빈센트회 선교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중국 선교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에, 아일랜드로 돌아와 1916년 아일랜드 주교회의에서 선교를 위한 신학교와 선교회 설립 허가를 받고, 1918

30)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에 대해서는 골롬반회 홈페이지(www.columban.or.kr)를 참조하였다.

년 교황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골롬반회를 창설하였다.

골롬반회는 필요한 곳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신념으로 삼았다. 한국에는 1933년 맥폴린 신부 등 10명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목포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고, 1939년부터는 서울교구에서 춘천교구를 분리 설정하여 강원지역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였다. 당시 강원지역에는 한국인 신부 11명이 9,000여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39년 6명의 골롬반 신부가 합류하여 북강원도를 포함한 강원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합세하면서 신부들을 모두 체포하여 골롬반 선교사들 가운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7명의 신부는 본국으로 송환시켰고,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들은 가택 연금되었으며, 이후 1945년까지 사실상 선교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전쟁 직후 기아와 질병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골롬반 선교회는 의료 선교와 구호를 담당하며 전후 극복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골롬반 선교회 선교사들의 명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939년-1945년 강원지역 활동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 명단³¹⁾

번호	이름	한국명	입국연도
1	매 제랄드(Gerard Marinan)		1933
2	지 벨라도(Brian Geraghty)		1933
3	간 토마스(Thomas Neligan)		1933

31) 이 명단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것이나, 미처 못 찾은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히며 추가되는 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함을 밝힌다.

4	손 바드리시오(Patrick Dawson)		1933
5	구 토마스(Thomas F. Quinlan)	具仁蘭	1934
6	도 야고보(James Doyle)		1934
7	진 야고보(James Maginn)		1935
8	한 프란치스코(Francis McGann)		1935
9	안 바드리시오(Patrick Brennan)		1937
10	고 안토니오(Anthony Collier)		1939
11	이 바드리시오(Patrick Deery)		1939
12	원 바드리시오(Patrick McGowan)		1939
13	탁 프란치스코(Francis Gallagher)		1939
14	오 후벨또(Hubert Hayward)	오남성	1939
15	허 프란치스코(Francis Herlihy)		1939
16	조 필립보(Philip Crosbie)	조선희	1940



▲ 그림1 1933년 한국에 도착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

출처 : PHOTO ALBUM OF THE COLUMBAN MISSION TO KOREA

—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Ⅱ 강원지역의 자연 환경과 기후

강원지역은 한반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품은 공간이다. 오늘날 수많은 인파가 강원지역을 여행하고 산과 바다, 강과 들이 함께 어우러진 풍광에 감탄하며 인터넷 공간에 그 추억을 남기고 있다. 과거 강원지역을 방문한 선조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에 담긴 인상적인 순간을 시와 그림 등의 풍부한 자료로 남겼다.³²⁾

조선이 개항되면서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던 강원지역의 풍광은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도 개방되었다. 한반도와 전혀 다른 자연 환경과 기후를 지닌 국가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들에게 강원지역은 분명한 차이점을 지닌 특별한 공간으로 각인되었다. 강원지역을 여행하거나 장기

32)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유기(山水遊記)에 대한 구체적인 수와 서지사항은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문화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4, 328-376쪽 참조.

간 거주한 이방인들은 자신이 체험한 강원지역의 일상을 자신의 일기와 보고서 등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기록은 오늘날 규명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익숙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타자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의 자연과 기후, 재해, 동식물 등에 대한 기록이기에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기술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본 강원지역과 강원지역민에 대한 이해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오늘날 강원지역의 전체적인 형태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운 모양으로 동서 간의 길이가 150km, 남북의 길이는 243km이다. 바다와 접한 동쪽은 212.3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강원지역의 남북을 가르면서 주변에 여러 크고 작은 산들이 위치한 지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³³⁾ 거대한 태백산맥으로 인해 강원지역의 문화권은 크게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며, 두 지역의 기후적 특색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³⁴⁾

강원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은 외국인 선교사의 자료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강원도는 가난한 산골 지역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성실하며 용감한 자들로 ‘착하고 소박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과거 조선 조정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포기하고 강원지역의 험준한 산지로 숨어 신앙을 지켜온 점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강원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대한

33) 오늘날 북한 지역의 강원도를 포함한 남북의 길이는 320km, 해안선은 313km, 전체 면적은 27,996km 이다.

34)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1(자연·인문환경), 37쪽.

묘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그들이 강원지역에 머무르며 선교를 펼친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은 강원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함경도의 선교사들이 담당할 구역이었으며, 이천과 평강 등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강원지역의 경계를 넘어 곡산과 수안 등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선교를 위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멀리 한반도로 건너와 험준한 산이 가득한 강원지역의 깊은 산골에서 머무른 외국인 선교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동시에 아름다운 강원지역의 자연과 대조적인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맞이한 자세 및 낯선 이국의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자.



▲ 그림2 일제강점기 강원도관내지도(江原道管内地圖)³⁵⁾

1. 강원지역의 개관과 자연

1886년 조불수호조약 체결 이후 강원지역은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선교

3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 관리번호 : J105-009-007]

사에 의해 선교활동이 이루어졌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아시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로, 1831년 9월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대목구를 설정하고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한국 천주교회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³⁶⁾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에 의해 사목이 이루어지던 강원지역은 교구의 분할 필요성을 느낀 라리보(Larribeau) 주교가 교황청에 청원, 교황청에서 경성대목구에서 춘천지목구를 분리 설정하였다. 그리고 1939년 성골롬반 외방선교회로 하여금 춘천지목구를 위임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성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춘천지목구에 속한 강원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초대 지목구장은 광주(光州) 지목구장이었던 오웬 맥폴린(Owen McPolin) 신부가 겸임하였고, 그의 대리로 임명된 퀸란 토마스(Thomas F. Quinlan) 신부가 1940년 12월 9일 2대 지목구장이 되었다. 당시 춘천 지목구는 11개의 본당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춘천·홍천·횡성·원주·신림·대화·강릉·양양·풍수원·평강·이천으로 신자는 약 9,000명 정도였다.³⁷⁾

강원지역의 각 성당에서 외국인 선교사는 여러 방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이 담당한 성당에 부임해 앞으로 삶의 터전이 될 지역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먼저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강원지역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 언급한 기록을 살펴보자.

[자료 1]

강원도는 소박한 관습을 가진 주민들이 사는 고장으로, 견고하고도 전파가 잘되는

36)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19(교육·종교), 506쪽.

37)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19(교육·종교), 506-507쪽.

신앙심을 지닌 신자들이 사는 지방입니다.³⁸⁾

[자료 2]

강원도 내에서는 아직도 1866년 박해의 잔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험한 산들이 신자들의 피신처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대로 이곳에 남아 버렸습니다.³⁹⁾

[자료 3]

서울의 동부에 위치한 이 도는 인구 1,181,994명에 신자는 10,111명입니다. 이들은 8개 본당과 118개 공소에 분산되어 있는데, 선교사 3명과 한국인 신부 5명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악지방이라 교통이 어렵기는 하지만 교우들이 옛날의 열심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들의 목자들에게 어느 곳보다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⁴⁰⁾

[자료 4]

함경도 경계선을 넘으면, 거의 600리가 되는 긴 띠 모양으로 된 영동에 이르게 됩니다. 바다와 평행으로 내려오는 산이 바다와 이 지방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거대한 산맥 때문에 내륙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아주 특수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은 산에서는 나무를 하고,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으며, 땅에서는 온갖 종류의 과일과 수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쉽습니다.⁴¹⁾

[자료 5]

우리 강원도가 첩첩산중에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공동체 몇 개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신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⁴²⁾

38) 뮌헨 주교의 1903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 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319~320쪽.

39) 뮌헨 주교의 1905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 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2쪽.

40) 드브레 주교의 1922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 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72쪽.

41) 마라발 신부의 1891년 연말보고,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I,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91쪽.

42) "A Big Day in Do Sa Oul",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I*, p.32(1940.2).

위의 자료는 다소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모두 강원지역의 사목을 담당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강원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들은 강원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가장 먼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내세운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강원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의 존재로 인해 영동과 영서 지역의 생활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강원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형이 강원지역민의 소박한 성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비록 지리적인 제한으로 교통이 어려운 산골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에는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타락하지 않은 훌륭한 자들로 여겨져 위안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특히 문자 그대로 ‘첩첩산중’의 산골에 거주하는 신자들은 과거 조선 조정으로부터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던 시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후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역의 신자들과 달리 몇 대에 걸쳐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아울러 동해를 접하고 있는 영동 지역의 특성을 바라보며 내륙 지역의 사람들과는 서로의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음도 파악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영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땅에서는 온갖 종류의 과일과 수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이 쉽다’라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영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의 처지에서는 마치 귀양살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교통은 꾸준히 지적되었다. 그러면서 만약 기차가 개통된다면 북으로는 원산, 남으로는 부산을 통해 영동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신부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영동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북강원지역인 이천과 평강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육로 교통수단인 기차뿐만이 아닌 강릉과 원산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자료 6]

이천의 망담 공소는 지금까지 아주 멀리 떨어져있어 매우 낙후됐으나 최근 몇 년간 오랜 무기력에서 벗어나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조선의 다른 지역들과 보조를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올 겨울에야 비로소 마무리된 북개함천 쪽에 뚫린 새 길이 서울과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도시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 공소는 왕래가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말을 타고 가면 사흘이 걸렸고, 지난해까지 철도나 차량으로도 2~3일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다니는 교통편을 이용하면 서울과 이천은 9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만큼 훨씬 가까워졌습니다.⁴³⁾

[자료 7]

원산과 강릉간에 배도 운항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배들이 해외에서 그곳으로 상인들을 실어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선박회사에서는 시험삼아 보름마다 한번 운항하기로 정했는데 벌써 운항 횟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직물, 석유, 곡물 등등 영동으로 가는 모든 상품들이 이 배로 떠나고 또한 배삿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원산으로 보낼 쌀, 연안의 석탄, 목재 등을 싣고 옵니다.⁴⁴⁾

[자료 6]은 황해도와 함경도로 통하는 길목인 이천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이천은 서울에서 말을 타고 가면 사흘이 걸리고, 철도나 차량을 통해서도 2~3일은 걸리는 외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 개통되면서 9

43) 루이수 신부의 1923-24년 사목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66쪽.

44) 투르니에 신부의 1908년 12월 29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협회, 1995, 273쪽.

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한 곳으로 변화하였다. 자연히 이천에는 변화의 물결이 들이치고 있었다. 이천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의 시선에도 철도 부설로 인한 지역의 변화는 주목되는 현상이었다.

[자료 7]의 경우는 바다를 접한 두 도시인 강릉과 원산을 이어주는 선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용된 사료의 앞부분은 동학교도의 완전한 토벌을 위한 전화의 가설을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상인들이 선박에 물건을 싣고 오는 지역으로 강릉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영동 지역을 오가는 모든 상품이 선박을 이용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다만 두 지역을 오가는 선박의 존재로 인해 뱃사공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일도 없어 쉬고 있음도 같이 전한다.

그러나 철도 등의 교통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강원지역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목포를 떠나 서울을 거쳐 춘천을 방문한 한 선교사의 기록에는 그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동시에 그가 경험한 강원지역의 자연에 대한 평가 및 다른 지역과의 비교도 담겨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자료 8]

저는 요즘 새 선교지로 임명받은 강원도 춘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한국의 남쪽 목포에서 출발해서 이 나라의 수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의 첫 역 서울은 전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나의 지식은 한국의 산악지방이다,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내 여행의 설계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착해서 여행자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무엇을 갈거나 알면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 종략 -

완행을 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차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갑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 기차가 쉬는 역이 없이 줄곧 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너무 단순하고 작았으며 수리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역간 거리도 3~4마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거리가 나에게 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 중간에 또 서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내 임지 춘천에까지는 70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의 해당공사 시간표에 의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여행은 4시간이 할당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섯 시간 걸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후로 운행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내 손에 든 이 5시간에 좋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경치, 아름다움이 예술가의 붓을 휘두를만합니다. 평야는 전통적으로 논입니다. 쌀은 한국인들의 주식입니다. 전라도에는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 비해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야 뒤에는 산들이 탐처럼 우뚝 서있고요. 남쪽의 산들은 놀이동산 장난감 같은데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준엄하고 나무가 우거진 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나무가 뒤덮은 산봉우리는 나의 미적 감각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나를 평화롭게 합니다. 위안입니다. 저 산들은 나에게 겨울에 방을 덥힐 값싼 땀감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기로 이름날 강원도에 살려면 우리가 필요한 땀 땀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천혜 속에 우리의 바람 -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던 땀 땀감은 말총처럼 품질되었고 손에 잡힐 뻔만 했습니다.⁴⁵⁾

[자료 8]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기차의 모습과 교통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기록을 남긴 골롬반외방선교회 소속의 선교사가 보유했던 강원도에 대한 지식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한국의 산악지방’이자 ‘외진 지역’이라는 생각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 제랄드(Gerard Marinan) 신부가 서울역에서 출발해 춘천역에 도착하기까지는 5시간이 소요되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과 70마일(약 112 km) 정도의 거리인 춘천까지 수많은 역을 중간에 들러야 했으며, 심지어 원래 시간표에서 제시된 4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이 소비되었다. 그 5시간의

45) "In the Mountains of Korea",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1*, p.137(1941.).

여정 도중에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띈 것은 그가 원래 머무르던 남쪽 지역의 광활한 평야와 대조적인 산들이었다. 강원지역의 평야에는 항상 산들이 탐처럼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산은 장난감 수준으로 보인다면 강원지역의 산이 준엄하다는 인상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산봉우리에 나무가 뒤덮인 모습은 ‘추위’로 이름난 강원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떨감이 충분하겠다는 현실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다만 그의 바람은 생각에 그칠 뿐이었고 부족한 떨감 속에 말로만 듣던 혹독한 강원지역의 추위를 맞이해야만 했다. 이런 고난에도 강원지역으로 향한 외국인 선교사는 과거 조선으로 향하던 초기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온 그들처럼 자신도 한겨울에 눈보라를 헤치며 강원지역에 들어왔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강원지역의 추위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외국인 선교사에게 매우 혹독했다. 하지만 금강산과 같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름난 명소는 그들에게도 매혹적인 공간이었다. 이미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수없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처럼 외국인 선교사들도 풍문으로만 듣던 금강산의 매력에 감탄을 자아냈고 그 감상을 자신의 기록에 빠짐없이 남겼다.⁴⁶⁾

[자료 9]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 가면 산악지역인 강원도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일본사람들이 유명한 금강산(金剛山) 관광을 선전한 이래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으며, 한결같이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게 됩니다.⁴⁷⁾

46)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금강산에 대한 동경과 유람의 확산 배경에 대해서는 이상균, 「조선시대 關東遊覽의 유형 배경」, 『인문과학연구』 31, 2011 참조.

47) 라리보 주교의 1932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 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67쪽.

[자료 10]

강원도는 10평방마일이나 되는 한국에선 가장 큰 도입니다. 강원도는 30여마일이 바다에 접해있고 그 유명한 금강산이 도내에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형은 고르지 않고 언덕과 산이 많고 지질은 토박한 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양쪽에 산줄기가 평행을 이루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큰 대접 안에 작은 대접을 올려놓은 것처럼 생겼으며 그 가운데가 가장 비옥한 평야입니다.⁴⁸⁾

위의 [자료 9]와 [자료 10]은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산 중 하나인 금강산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언급이다. 그들은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가치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자료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제강점기 금강산은 철도로 경성과 연결된 관광지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런 모습은 1916년 측량해서 1917년 작성된 <금강산> 지도에서 경성과 연결된 철로를 별도로 표시한 것과⁴⁹⁾ 1934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관내지도> 역시 금강산과 연결된 지역의 철로를 별도로 표시한 것을 통해 당시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기후와 재해, 동·식물

지형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강원지역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기후의

48) "In the Mountains Mission of Kogendo",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1*, p.101(1939.3).

4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 관리번호 : J105-031-007]

동·서 차이가 나타난다. 영서 내륙에서는 여름에 고온, 겨울에 저온이 나타나 연교차가 심하다. 고도가 높은 산지는 연중 기온이 낮아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는 혹한이 계속된다. 산지의 좁은 지역은 때에 따라 호우·폭설·우박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교통과 통신에 많은 지장을 준다. 반면 영동 해안지역은 해양성기후의 특성으로 인해 연중 기온의 변화가 적고 따뜻한 편이다.⁵⁰⁾

오늘날 강원지역은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눈이 내린다. 특히 산간이나 영동 지역에서는 대설이 자주 내려 교통과 통신두절이 일어나기도 한다.⁵¹⁾ 약 100년 전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원지역에 들어선 이후로 그들은 이런 자연환경과 조우했다. 자연히 그들의 기록에는 강원지역의 자연환경과 추위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며, 선교지에서 발생한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자료 1]

이곳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입니다.⁵²⁾

[자료 2]

겨울이 끝나가 다행입니다. 이곳은 서울이나 다른 곳들처럼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보름 동안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⁵³⁾

50)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1(인문·자연환경), 189쪽.

51) 강원도의 첫서리 발생 시기는 대관령을 비롯한 산간지역이 10월초, 춘천·홍천·인제·원주 등은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동해안 지역은 11월 중순경이다. 마지막 서리는 동해안 지역이 3월 중순에서 하순, 영서지방이 4월 하순, 대관령은 4월 하순 이후에도 서리가 내린다.(『강원도사』 1(인문·자연환경), 강원도사편찬위원회, 194쪽)

52) 뒤테르트르 신부의 1895년 6월 2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59쪽.

53) 기요 신부의 1912년 1월 28일 서한, 『용소막분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6쪽.

[자료 3]

큰 홍수들로 강원도에서, 특히 영월에서 제방이 무너져 이재민이 생겼는데 영월에서는 200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원주는 시내에서도 500명의 이재민들이 성당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한다.⁵⁴⁾

위의 인용문은 모두 강원지역에서 사목을 펼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경험한 내용이다. [자료 1]과 [자료 2]는 그들이 맞이한 추위와 폭설에 대해 말한다. 선교사들은 강원지역의 겨울철에 내린 눈에 대해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혹독하다고 평가했으며, 자신도 지독한 감기로 보름이나 고생했음을 언급한다.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언급도 주목해야 한다. 뮌텔 주교는 그의 일기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언급하고, 특별히 영월군의 피해자 수와 원주의 이재민 수를 기록으로 남겼다. 당시 강원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매일신보(每日新報)>의 기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7월 19일 <매일신보>의 2면 기사는 동월 15일 폭우로 인해 야밤에 사망자 199명, 부상자 13명이 발생했다고 강원도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⁵⁵⁾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망자가 판명된 시체는 오십여 구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유실되었다고 전해 당시의 참사를 전해주고 있다. 같은 면에 실린 다른 기사에서도 강원 남부지역인 영월, 원주, 평창, 횡성군의 피해를 전하며 ‘전멸(全滅)’이라는 단어로 그 심각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⁵⁶⁾ 뮌텔 주교의

54) 뮌텔 주교의 1930년 7월 18일 일기, 『뮌텔주교일기』 8, 2008, 한국교회사연구소, 300쪽.

55) 『寧越郡水周面の沙汰로 百九十生命同時俱沒』, 『每日新報』(1930.07.19).

56) 『江原道南部 一帯는 全滅』, 『每日新報』(1930.07.19).

기록인 [자료 3]은 수해를 당한 지역 중 영월과 원주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낯선 환경에서 사목을 담당하던 선교사들은 열병·콜레라·말라리아·장티푸스·이질 등의 질병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심한 경우 몇 달에 걸쳐 같은 질병에 시달려야 했으며 주어진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위생이 열악한 강원지역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선교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자료 4]

평양과 르장드르 신부의 관할 지역에 창궐하던 콜레라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이곳 비신자 마을에 콜레라가 돌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저희 신자들이 사는 마을에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신자 가족이 피해를 입었고 예비신자 서너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입은 피해의 전부입니다.⁵⁷⁾

[자료 5]

뒤테르트르 신부는 열병에 걸렸는데 간헐적으로 열이 심하게 나고 가끔은 격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부는 키니네에 포도주와 물과 설탕을 섞어 약재로 복용하고 있습니다.⁵⁸⁾

[자료 6]

피정기간 내내 열병을 앓게 되어 키니네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병은 저를 두 번이나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무일도도 dot자리에 누워서 바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해 그 어떤 신심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편지를 보낼 기

57) 뒤테르트르 신부의 1895년 9월 1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62쪽.

58) 부이수 신부의 1897년 8월 1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50쪽.

회가 여러 번 생겨 주교님께 제가 약속했던 연말 보고서를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열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편지를 쓸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양으로 가는 인편으로 사목보고서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⁵⁹⁾

[자료 7]

지난 해에는 열병이 저를 괴롭히더니, 올해는 치통과 신경통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하게 아픈 치아 두 개를 불에 달군 쇠도구로 뽑아버렸더니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걸쳐 저를 아프게 하는 신경통은 한국식 부항을 쓰며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낫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나 심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눕지도 못하고 서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⁶⁰⁾

[자료 8]

부이수 신부는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는지요? 저는 그의 병이 거의 다 나아졌을 무렵에 그를 만나게 되어 그 병이 장티푸스였는지 유행성 열병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완쾌가 되어 기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맛을 되찾아 식사를 하고 있으니 좋아질 것입니다. 그의 사제관에서 며칠을 같이 보내고 종부 성사를 주기 위해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저의 공소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공소에도 아픈 환자가 많습니다. 아프다가 일주일 만에 죽는 신자들도 있고, 한 달 이상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아파서 농사일을 못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교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⁶¹⁾

[자료 9]

주교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의미이지만 조선인들이 장티푸스라 부르는 병에 걸려 4주 동안 방안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어 주교님께 편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뒤테르트르 신부까지 제가 110~120리 떨어진 곳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등

59) 뒤테르트르 신부의 1897년 9월 2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83쪽.

60) 뒤테르트르 신부의 1899년 1월 1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96쪽.

61) 뒤테르트르 신부의 1901년 6월 19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24쪽.

안 열병을 매우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가고 현재 저는 기운이 조금 없을 뿐 건강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제가 친애하는 뒤테르트르 신부를 만난 것은 수일 전인데 신자들 말에 의하면 신부가 두통을 매우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중북부 지방의 소식입니다.⁶²⁾

위의 자료는 모두 강원지역에 파견된 외국인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고생한 경험을 읊긴 것이다. 그들은 유행성 열병과 장티푸스 등의 질병으로 인해 짧게는 4주, 길게는 약 3개월에 걸쳐 고통받았다. 선교사들은 주로 가난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학을 학습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일은 기대할 수 없었다. 간혹 조선인 의원의 힘을 빌려 전통적인 치료법인 부항을 뜨기도 했지만 원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키니네’를 복용하거나 포도와 물, 또는 설탕을 섞어 마시며 질병을 이겨내려 노력할 뿐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민의 아픔도 비쳤다. [자료 4]와 [자료 8]에 보이듯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병은 외국인 선교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어떤 사람은 1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1달 이상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다. 강원지역의 신부들은 생명과 직결된 질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종교적인 힘에 기대어 신의 가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반도를 방문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관심은 그 수만큼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신앙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지역에 퍼진 선교사들의 개별적인 호기심은

62) 부이수 신부의 1901년 6월 24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03쪽.

모두 달랐다. 대다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선교의 필요성에 의한 조선의 언어나 역사, 관습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한반도에서 자라는 동·식물에 주목해 꾸준한 관찰을 이어나갔다.⁶³⁾

외국인 선교사가 한반도에서 시도한 동·식물에 대한 관찰과 수집은 푸르티에(Jean Antonie Purthie) 부주교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의 관찰은 문헌 자료로 남은 것이 없어서 고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활동은 프랑스 출신의 포리(Jean Urbain Faurie) 신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01년 서울의 남산을 시작으로 금강산, 원산, 인천, 부산, 목포, 제주 등 한반도 각지에서 식물 채집활동을 벌였다. 현재 그가 수집해 보낸 많은 식물은 세계의 유명 표본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직접 소장했던 자료는 일본의 동경대학 표본관이 소장하고 있다. 포리 신부가 제주에서 머무를 때 서귀포에 있던 에밀 타케(Emile Taquet) 신부와 접촉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채집활동을 지속하였다. 이후 포리 신부가 사망한 이후에도 타케 신부는 제주를 거점으로 식물 채집을 지속하였으나 1913년 이후에는 일절 식물을 채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타케 신부가 7040여종의 식물을 채집해 유럽에 보낸 표본 중 250여 종이 신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기념해 학명에 ‘타케’가 들어가는 식물만 20종에 달한다. 또한, 서양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되는 구상나무를 한라산에서 발견한 것도 그였다.⁶⁴⁾

포리 신부와 타케 신부가 수집한 식물 표본에는 채집 지역에 강원지역의

63) 강원지역의 식물수집과 관련된 이하의 내용은 이창복·이문호,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 연구」, 『교회사연구』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64) 황은순, 「제주 밀감과 왕벚나무의 아버지 에밀 타케 신부 다시 오다」, 『주간조선』 2442호, 2017.

명칭이 표기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그들이 강원 지역에서 수집한 식물 목록을 재구성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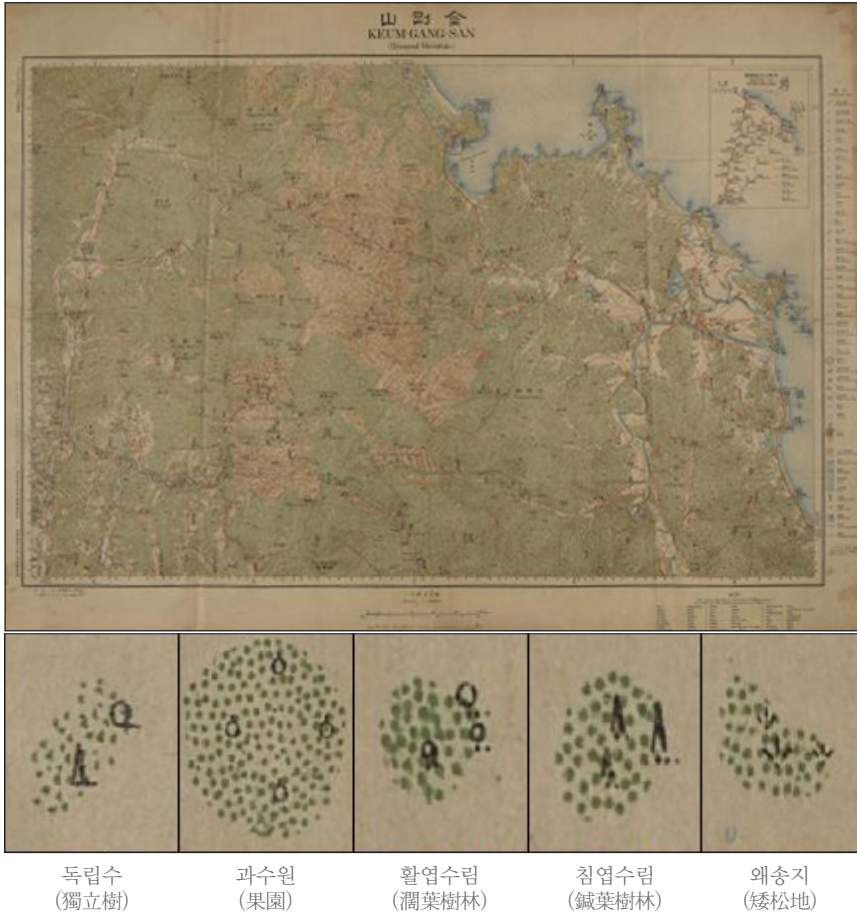
표 3 프랑스 선교사가 강원지역에서 수집한 식물 목록

연 번	식물명	채집지역	채집연도
1	복수초	화천	
2	여우꼬리풀	금강산	1906년 6월 22일
3	금강 봄맞이	금강산 1,000m의 건조한 곳	
4	자주장대나물	금강산	
5	버드쟁이나물	화천	
6	개박달나무	금강산	1906년 6월 24일
7	박달나무	금강산	1906년 6월 23일
8	꽃황새냉이	금강산 계류(溪流) 옆	1906년 6월 23일
9	논쟁이냉이	금강산 냇가의 돌밭	1901년 7월 1906년 6월 24일
10	회색사초	강원도	
11	이삭사초	금강산	
12	뉘시사초	금강산	
13	금강산뚝사초	금강산	
14	곰솔사초	강원도	
15	애기바늘사초	금강산	
16	산비늘사초	강원도 / 금강산	
17	산거울	금강산	
18	애괭이사초	금강산	
19	난사초	금강산	
20	털잎사초	강원도	

21	타래사초	강원도	
22	큰검정사초	강원도	
23	양지사초	금강산	
24	바늘사초	금강산	
25	쇠뉘시사초	강원도	
26	넓은잎그늘사초	금강산	
27	왕그늘사초	금강산	
28	백두산사초	금강산	
29	털사초	금강산	
30	가지청사초	금강산	1906년 6월
31	녹빛사초	금강산	
32	총실사초	금강산	
33	실청사초	금강산	
34	부리실청사초	금강산	
35	대사초	금강산	
36	독사초	강원도	
37	싸래기사초	금강산	
38	새방울사초	금강산	
39	황새승마	강원도	
40	개불알꽃	금강산	
41	부채고깔	강원도	1901년 9월 4일
42	매화발발도리	금강산	1906년 6월
43	물참대	금강산	1906년 6월 24일
44	작은황새풀	강원도	
45	선씀바귀	금강산	1906년 6월 20일
46	별씀바귀	금강산	1906년 6월 20일
47	산새콩	금강산	1906년 6월 23일

48	흰등괴불나무	금강산	
49	참나도히초미	금강산	1901년 6월
50	개소리랑개비	금강산의 습한 습지	1906년 6월 24일
51	개벚기나무	금강산	
52	좀짚레	화천	
53	멍석딸기	금강산 1,000m	
54	붉은 참반디	강원도 숲속	
55	조릿대	금강산	
56	황새고랭이	금강산	
57	솜방망이	금강산	1906년 6월 20일
58	참조팝나무	금강산	1906년 6월 22일
59	석잠풀	강원도 / 금강산	1906년 6월 20일
60	긴잎개회나무	금강산	1906년 5월 21일
61	연잎평의다리	금강산	1906년 6월
62	피나무	강원도	
63	산앵도나무	금강산	1906년 6월 22일
64	제비꽃	화천	
65	선제비	강원도	

* 본 표는 이창복·이문호,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 연구』,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의 '수집식물목록(蒐集植物目錄)'을 기반으로 작성함.



▲ 그림3 <금강산(金剛山)>(1917) 및 지도에 표현된 식물 관련 부호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원지역의 식물은 대부분 금강산 일대에서 채집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되는 점은 채집 지역을 단순히 금강산으로 표기한 것 이외에도 시냇가 옆, 습지 1,000m의 건조한 곳 등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한 부분이 시선을 끈다. 위의 표에서 강원지역의 우거진 숲을 이루는

나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 외에도 1917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에서 1:50,000 축척으로 작성한 <금강산(金剛山)> 지형도는 각종 부호를 통해 금강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식물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수(獨立樹)’, ‘과원(果園)’, ‘활엽수림(闊葉樹林)’, ‘침엽수림(針葉樹林)’, ‘왜송지(矮松地)’로 표기하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반도의 각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각종 나무에 대한 기록도 남겼다. 그들의 보고서와 일기 등에 기록된 나무의 종류를 대략 언급해도 잣나무, 대나무, 신나무, 뽕나무, 버드나무, 탕자나무, 가래나무, 감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종려나무, 피나무, 전나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열거된 나무 중에서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나무로 인식된 것은 잣나무와 소나무로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뽕감으로서 가치였다. 이는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으로 나무를 주목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망은 꿈에 불과했으며 강원지역의 겨울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기 때문에 뽕감은 금방 팔려나갔고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일상과 마주해야만 했다.

—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Ⅲ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선교사의 시선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사에서 전개된 중요한 사건들인 동학농민운동, 의병, 한일강제합병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뮌헨 주교에게 보고하는 서한 및 보고서에서 지역에서 발행하는 이들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으며, 뮌헨 주교 역시 일기에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항 이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운동, 의병, 한일강제합병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이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동학농민운동⁶⁵⁾

강원지역의 동학은 최제우와 함께 체포되었던 이경화(李慶化)가 영월로 정배됨으로써 포교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는 1864년 3월 무렵 정배된 영월 소밀원(蘇密院, 상동읍 화원리 소미륵)을 중심으로 동학에 대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때 이경화는 원주사람 장기서를 입교시켰는데, 그는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동학교인이 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후 강원도 영월과 정선지역은 관(官)의 지목을 피하여 피신과 잠복을 거듭해야 했던 동학교단의 지도자와 교도들의 피신처 역할을 했으며 조직의 복원과 교세확장의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동학의 제2대 교조 최시형이 1869년부터 1890년까지 강원도내에서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강원도내에서의 동학 활동은 곧 동학전체의 큰 흐름이었고, 동학은 강원도내에서 그 교리를 완성하고 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894년 6월 21일,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무력으로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흥선대원군과 개화파의 연립 정권을 수립시켰다. 이어 갑오경장을 통해서 봉건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군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였고, 이에 저항이 되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려고 했으므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는 군량과 군기를 정비하면서 삼례에 투쟁본부를 두고 재봉기를 결정했다. 전봉준은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란 이름으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여, 적극적인 항일투쟁

65) 동학 및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7(근대), 2013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을 위해 충의지사(忠義之士)들이 거병할 것을 촉구하였고, 전라도 각지의 집강소를 통하여 농민군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일본에 대한 반침략 운동이 동학농민군의 주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시선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료 1]

마침내 평화로이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학도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을 동학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영동에서도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교우들이 저에게 성사를 요청하는 많은 편지와 함께 대표를 보내왔습니다. 강릉에서는 110여명의 동학도들이 살해됐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동학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영동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미 보름 전부터 그랬습니다.⁶⁶⁾

[자료 2]

염산리로 되돌아온 후, 저는 황해도의 동학교도들 때문에 이곳이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떼 지어 몰려다니며 강원도까지 와서 쌀을 빼앗고, 돈을 갈취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다리를 몽둥이로 때려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던 동학교도들 중 어떤 사람은 죽으러 전쟁터로 나가고, 또 다른 이들은 수치스럽게 도망을 쳐 사람들로 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3]

동학교도들은 용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만 목청 높여 곡산 군수를 응징하러 간다고 떠벌렸을 뿐 그것은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곡산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바꾸었는지 이천 지역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이천 군수가 그들을 잘 대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더 대담해져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돈과 소총들을 징발하고 이천으로 가겠다고

66) 블라두 신부의 1895년 11월 12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II,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108쪽.

공언했습니다.

- 중략 -

포고문이 발표된 날 저녁, 반도들 여섯 명이 저의 사제관과 인접한 창동 마을로 들어와 상당한 액수의 돈과 소총을 강제로 빼앗고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이들이 들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용기 있는 신자 일곱 명과 비신자 일곱 명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반도들이 자신들의 짐과 소총을 끈으로 묶어 놓고 주막에서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창과 소총을 들고 갔던 신자들이 주막에 가까이 다가가 반도들을 덮쳐 그들 중 서너 명을 때려눕히자 나머지 반도들은 맨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신자들은 소총 아홉 자루와 그들이 소지했던 물건들을 포획하여 개선장군처럼 엄산리로 돌아왔습니다. **재빨리 도망간 반도들은 고인돌에 가서 그사이 일어났던 일을 알렸습니다. 고인돌에 모인 반도 무리들은 더 이상 곡산에도 이천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⁶⁷⁾

[자료 4]

수일 사이 동학이라 사칭하는 도적 떼들이 이곳저곳에서 약탈을 일삼았지만 조선 군인들이 그들을 몰아내어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적떼들이 유럽식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 더욱 불안한 마음입니다.⁶⁸⁾

[자료 5]

원주의 관가는 요즘 동학교도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6명을 붙잡았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그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음력 10월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들이 모두 산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이 아닌 평야에서 동학교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제천은 경상도에서 온 반란군들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원주의 군사들이 제천으로 파견되어 도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⁶⁹⁾

67) 뤼테르트르 신부의 1895년 2월 1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53쪽.

68) 뤼테르트르 신부의 1895년 10월 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63쪽.

69) 드브레 신부의 1904년 2월 9일자 서한, 연구책임자 소장.

강원지역에서의 동학군은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원주·횡성·양양·간성·인제·춘천·김화·금성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자료 1]에 보이는 것처럼 차기석 계열의 동학군은 강릉 관아의 점령을 비롯하여 멀리 북으로는 고성·양양, 남으로는 정선·영월, 동으로는 삼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학교도 및 동학군은 약탈을 하고 떼지어 몰려 다니며 나쁜 일을 하는 집단으로 묘사되어있다. 이들은 동학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주목하지 않은채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이자 반란군으로 묘사하고, 이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정리됨으로써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료 6]

법헌(法軒)으로 불리는 동학의 두목인 최시형이 최근 원주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⁷⁰⁾

[자료 6]은 최시형의 체포와 처형에 대한 뮌텔 주교의 기록이다. 최시형은 초기에는 양양과 영월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지역 포교의 근거지로 하였으나, 후에는 양양·인제·홍천·횡성·원주·영월·정선 등 강원도 각지에 이르러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는 1897년 8월 최시형은 원주로 거주지를 옮기고, 1898년 1월 경기도 지평 갈현 이강수(李康洙)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홍천군 서면에서 한달간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해 2월 그믐에 여주 임학선(林學善)의 주선으로 원주군 송동(松洞) 원진여(元鎭汝) 집으로

70) 뮌텔 주교의 1898년 7월 22일 일기, 『뮌텔주교일기』 2,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 307쪽.

이접(移接)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서울로 옮겨졌고 1898년 7월 처형되었는데 뫼텔 주교는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동학교도 80여 명을 죽였고 평강, 신계, 수안, 토산, 평산 등지에서도 동학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동학교도들은 호주머니 속에 똑 같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신자들 중 누구도 동학교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⁷¹⁾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면서 동학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 동학운동에 관여하거나 동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만큼 동학농민군 및 동학도들에 대한 토벌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즉 마을 곳곳마다 그물을 치듯 초소를 만들어 수색하였고, 산에 불을 지르고 혹 은신할 수 있는 동굴까지 샅샅이 수색하는 철저한 소탕작전이었다.

이런 현상은 강원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잔당을 철저히 소탕하도록 각 마을에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농민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거나, 양반 유생의 의병대열에 합류하거나, 동학과 반대된다고 여기는 서학에 가담하여 세력을 유지하거나, 화적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최시형의 처형 이후에도 동학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았고, 각지에서 동학도는 목숨을 잃거나 재물을 빼앗기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71) 뫼테르트트 신부의 1895년 2월 1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1,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53쪽.

에서 동학의 3개 교조가 된 손병희는 관의 탄압과 추적을 피하며 교단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동학교도들에게 동학교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에 해당하는 ‘명첩’을 발급하였다. [자료 8]은 그 명첩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신부의 서한에서는 위의 인용문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이 보인다.

[자료 8]

요즘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마을고 주막에는 동학군에 대한 풍문이 많이 떠도는데 신자나 외교인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학군이 저지른 잘못들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많은 동학군이 관리들에게 붙잡혀 횡성읍에서 심한 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해되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많은 악한 동학군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압수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하급 관리들이 그들의 돈을 도적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 종략 - 저들은 이미 선언 초기부터 그리스도교는 싸워할 할 대상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매우 무서워하며 그들의 분노를 피할 곳을 벌써부터 찾고 있었습니다.⁷²⁾

[자료 8]은 당시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 중 한명으로 한국인인 정규하 신부의 서한이다. 정규하 신부는 동학이 당초부터 그리스도교를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엄포를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동학의 목적이 서학이라 불리던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나, 교우들을 공격할 것에 대해 교우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72) 정규하 신부의 1904년 1월 25일 서한, 『풍수원에서 온 편지-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88쪽.

또한 관군이 동학군들에 대해서 토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들이 동학군들의 돈을 도적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어 당시 관리들의 부패한 상황에 대한 모습 및 당대의 시대상에 대한 생각까지 서한에서 드러내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있어 개화에 대한 반대 및 일본 세력의 배격이라는 측면 이외에 탐관오리의 숙청, 양반 토호들의 탐학(貪虐) 배격, 노비해방 등 반봉건적 현실에 대한 개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일반 민중들이 받았던 차별과 관리들에 의한 횡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흔 주교를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동학운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서 폭도 또는 반란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신부였던 정규하 신부는 관리들이 행했던 부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외국인 선교사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의병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개항의 움직임이 생기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위정척사 계열의 학자들이었다. 본래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성리학적 전통사회에서 이단(異端)인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정학(正學)인 유학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양요(洋擾)와 강화도조약으로 척양척왜(斥洋斥倭)론이 대두되었고, 갑신정변과 을미사변

을 거치면서 더욱 극대화되었다.

을미사변 직후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단행한 을미개혁 중 단발령은 의병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었다. 즉 1896년 고종과 태자를 위협하여 단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 사람을 보내 강제로 사민(士民)의 상투를 자르게 함으로써, 전국 곳곳에는 곡성(哭聲)이 진동하고 민심이 크게 동요(動搖)하게 되었다. 특히 단발령에 대해서는 “목을 자를 수는 있으나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며 반일 반개혁의 분위기가 속에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무력항쟁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의병은 한일 강제합병이 이루어지는 1910년까지 지속되었다.

선교사들의 서한에는 의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당시의 선교사들은 의병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의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의병에 대한 보고가 있는 서한들이다.

[자료 1]

르메르 신부로부터 원주에서 반란이 있었고, 또 러시아 장교 두 명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며 지형 조사를 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원주의 폭도들 중 일부는 벌써 흩어졌다고 한다. 그들은 체천 쪽으로 달아났는데 천명이던 것이 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저녁 폭동이 번질 것이라는 춘천에 정부에서 군사들을 파견할 것인가가 문제시되었다. 군수는 이미 도망을 갔고, 모두가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단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⁷³⁾

[자료 2]

남대문에는 흥천 근방에서 벌어진 관군과 폭도들과의 새로운 전투 결과를 알리는

73) 뮌헨 주교의 1896년 1월 20일 일기, 『뮌헨주교일기』 2,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 25쪽.

벽보가 붙어있다. 20명의 폭도들이 살해되고, 같은 수만큼의 포로가 잡혔다는 것이 다. 또 춘천도 탈환되어 평온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백성들 중에 오로지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런 소식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⁷⁴⁾

[자료 1, 2]는 1896년 1월과 2월의 뫼텔 주교의 일기이다. 르메르 신부로부터 원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편지를 받은 뫼텔 주교의 기록인데 르메르 신부나 뫼텔 주교는 원주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해서 반란, 폭도 그리고 폭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원주에서 발생한 1896년의 의병은 원주에서 농민운동을 주도하였던 연안 김씨가를 비롯하여 원주, 지평(현 양평), 제천 등지의 유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역을 달리하였던 이들은 학문적, 인적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원주 의병 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춘영 의병장은 원주 농민항쟁의 주모자였던 김택수의 조카사위였다. 이처럼 의병 참여자들은 상호 형성되어 있던 관계망을 통해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인식과 저항의식을 공유하면서 의병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1896년 1월 춘천에서 발생한 의병의 경우도 반침략적·반개화적 이념 하에 항일활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춘천 의병의 경우, 춘천관찰부의 군기고를 열어 일반 민병(民兵)에게도 무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의병이 수적으로 우세하여 관군의 우수한 화력에 맞서 대등하게 버티었으나 비 때문에 화승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훈련도 부족하고 전략·전술에 익숙치 못한데다가 의병 중에 관군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 끝내 크게 패하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의병은, 1895년에 발생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국토와 주권을 유린하

74) 뫼텔 주교의 1896년 2월 10일 일기, 『뫼텔주교일기』 2,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 35쪽.

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나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폭도로만 인식하였으므로 서한에서조차 이들을 폭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3]

의병들이 영동에서 떠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도망 나온 한 교우로부터 그들이 밤중에 사리재에 침입해서 모든 교우들을 쫓아냈다고 들었습니다.⁷⁵⁾

[자료 4]

영동의 교우들은 모두 대피중입니다. 6가구가 있는데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씨 일가는 배교를 했고 사람들이 그들을 별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배교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약 일본인들에게 일을 일임했다라면 이미 오래 전에 의병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⁷⁶⁾

[자료 3, 4]는 블라두 신부가 뤼텔 주교에게 보낸 것이다. 영동 지역에서 의병들이 떠나지 않고 있어서 교우들이 대피하거나 이들 의병 때문에 교우들이 배교를 했다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사실 전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의병에 대한 처리를 위임했다면 의병이 모두 흩어졌을 것이라는 인식은 왜 의병이 일어났는지 및 의병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 저항하고자 발생한 의병과 그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 국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일본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어 의병을 제압해

75) 블라두 신부의 1896년 5월 31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116쪽.

76) 블라두 신부의 1896년 7월 3일자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118쪽.

야 한다는 인식은 그들의 본국이 지닌 특성 즉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5]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통감부가 조선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이 보호국을 본국 인구의 과잉을 덜어줄 수 있는 터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사람들의 감정이 대단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란기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폭동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에 항거한다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목적 없이 '의병(義兵)'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조직도 잘 안되고 규율은 더 엉망인 그들은 처음부터 실패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의병운동은 겨울 동안에 강원도 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결국 의병으로 가장한 노략질과 강도질이 되어 버렸습니다.⁷⁷⁾

[자료 5]는 뫼텔 주교의 일본 통감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병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뫼텔 주교는 일본에 의해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들에 의해서 관리받는 것에 대한 조선 사람들이 감정이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폭동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 없이 새로운 상황에 항거한다는 것으로만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이후 의병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드러난다.

즉 뫼텔 주교가 가지고 있는 의병에 대한 인식은, 조직도 잘 되어있지 않고, 규율도 엉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하게 되어있었다는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일어난 의병의 활동에 대해서도 노략질과 강도질로

77) 뫼텔 주교의 1906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31쪽.

되었다고 폄하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을사늑약 이후에 강원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뫼텔 주교에게 보고한 서한 중 의병에 관한 내용이 아래의 인용문들이다.

[자료 6]

의병들이 나타났지만 일본인들을 만나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행진하다가 개를 보면 개를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돈을 내지 않기도 하고, 함에 숨어있는 여인네를 총으로 쏘기도 하는 등 언제나 나쁜 짓을 자제하지 않는 일본 병사들만 아니라면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⁷⁸⁾

[자료 7]

그날 조선인들이 이 읍내를 포위하고 오후 2시까지 교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약 300명이었습니다. 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제가 가는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방향이어서 제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그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오지 않았고 저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을 선두로 일본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어서 더욱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일본 군인들은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 종략 -

회양의 의병들은 고성을 포위하며 전투를 시작하고, 간성 지방의 몇몇 지점을 탈환하려 했습니다. 원주의 의병들은 영동, 특히 양양 지방을 습격하여 그 곳을 그들의 총사령부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길을 가면서 항상 제 앞 500미터 거리에 한 사람을 앞서가게 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총탄을 받을 가능성과 함께 매순간 그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가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될 교전병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도 말고, 가능한 한 그들과의 어떠한 대화도 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 역시 그 행동 노선을 따랐습니다. - 종략 - 의병들은 강릉 공략을 모두 함께 하러 가기 위해 양양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78) 부이수 신부의 1907년 9월 24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56쪽.

한 두 개의 의병 무리를 보았으며, 돌아오는 길에 양양 지방에서는 전위 부대가 공격을 위해 길을 떠나는것을 보았습니다.⁷⁹⁾

[자료 6, 7]은 의병들이 일어났지만 일본인이라 칭한 일본군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시선을 보이는 서한들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의병은 침략의 대상자인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일어난 것이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병은 폭동이고 이를 제압하는 일본이 있어 다행이라는 인식은 참 씩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8]

강원도 지방에는 반일 감정이 격하게 일고 있고, 또한 그것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감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일쑤인 말은 ‘모든 외세를 축출하고 나라의 복고를 이룩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을 도처에는 ‘모든 왜양은 섬멸해야 한다’는 벽보가 붙었습니다. 도처에 반도들이 의병이라는 이름 아래 집결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강원도 출신입니다.⁸⁰⁾

[자료 8]은 부이용 신부의 서한이다. 부이용 신부는 서한에서 당시 강원 지역의 상황으로 반일감정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감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즉 의병을 ‘반도(叛徒)’로 인식하며, 의병들이 지닌 반일과 반왜에 대한 인식이 선교사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병의 출신 상당수를 강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강원지역에서 거의(擧義)하는 의병들이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이들의 출신지를 그저 강원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79) 투르니에 신부의 1908년 1월 25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263쪽.

80) 부이용 신부의 1896년 2월 11일자 서한, 연구책임자 소장.

[자료 9]

시잘레, 프와오 신부들의 지역인 원주와 그 인근 지방에서는 반도(叛徒, 항일운동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병(日兵)들의 수색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빈번했기 때문에 억압이 더욱 심했습니다. 한때 주민들의 혼란과 공포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교우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주, 상본, 고상 등이 뺏기거나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형 집행과 방화가 계속 되었습니다.⁸¹⁾

[자료 10]

산너미 공소의 어떤 여신도들은 의병들이 활동했을 때, 드러나게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믿음에서 이탈했었는데, 그들이 때를 지어 물려와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공과책 하나 없는데 이유는 의병들이 모든 책, 상본, 고상, 목주 등을 빼앗아 불 속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⁸²⁾

[자료 9, 10]은 실질적으로 의병에 의해서 신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보고하는 서한의 내용이다. 의병에 대해 언급하는 서한의 대부분이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데 이 두 서한은 의병에 의해서 신자들이 목주, 고상(苦像) 같은 것을 빼앗기고 배교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의병들 때문에 신자들이 배교하고,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나 상본 등이 소실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11]

조선인 의병들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인들이 와서 강제로 의병이 된 집들을 불사르고 또 다음에는 “의병”들이

81) 두세 신부의 1908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56쪽.

82) 정규하 신부의 1897년 2월 7일자 서한, 『풍수원에서 온 편지-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41쪽.

와서 일본 병사들을 그들 집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집을 불사릅니다. 참 슬픈 상황이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애통한 사정입니다.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략 -

산두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위치한 가마골이라는 마을에 불고자인 50-60세 가량의 교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병들에게 가담했고 고발되어 군인들이 그를 처형하러 왔습니다. 그가 집에 없었으므로 25-30세 가량의 그의 아들이 대신 체포되었고 “아버지 대신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들의 발아래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자, 그들은 그를 때리고 기둥에 붙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밤낮으로 음식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한 군인이 그에게 밥 한 그릇을 갖다 주고는 “자, 마지막 밥이다, 먹어라, 너는 내일 아침에 죽을거야.”라고 병사는 말했습니다. 그 가엾은 사람은 그날 야음을 이용하여 포승을 풀기위해 있는 힘을 다했고, 마침내 자정 쯤에 포승을 벗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손은 극도로 부어 있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제게 전해준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인 행동입니다.⁸³⁾

[자료 12]

2명의 의병이 보리골 회장에게 그들의 총 수리를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엾은 회장은 거절함으로써 “의병”들의 복수를 자초하느냐 아니면 총의 수리를 승낙함으로써 일본인들의 복수를 자초하느냐 어려운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⁸⁴⁾

[자료 13]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일본군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군인들이 원주에서 정부로부터 징집된 사냥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괴롭히며 강제로 끌고 다닙니다. 지금은 사냥꾼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무기를 조금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정당하건 부당하건 간에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일본군은 의병들을 쫓아다니며 의병들과 합류했던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들과 의병 사이는 풀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83) 투르니에 신부의 1907년 10월 15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260쪽.

84) 투르니에 신부의 1908년 1월 25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262쪽.

의병들이나 일본군이나 백성을 괴롭히기는 마찬가지여서 서민들은 의병 편에서 일본군 편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성이 의병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면 일본군이 와서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반대로 일본군이 무서워서 의병을 돕지 않으면 일본군 편에 섰다고 하면서 의병들이 마을을 파괴하여 주민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군이 의병과의 싸움에서 자주 승리하였지만, 사실 의병들은 얼마 안 되는 수가 죽은 반면 일본군 사상자들은 훨씬 많았고 무고한 민간인들만 죽었습니다.⁸⁵⁾

위의 인용된 [자료 11, 12, 13]은 의병과 일본군 양쪽 모두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서한이다. 이 서한을 작성한 이들은 외국인 선교사인 투르니에 신부와 정규하 신부이다. 투르니에 신부는 다른 선교사들이 대체로 의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병을 처단하거나 의병을 잡는데 몰두하는 일본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긍정하는 것에 비해 의병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 정규하 신부는, 의병들은 한국인들이 의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일본군을 지원한다고 하고, 일본군은 한국인들이 혹 의병을 도우면 의병을 도왔다고 횡포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나라 잃은 설움에 양자 택일을 강요받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전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야만적인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받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서한이라 할 수 있다.

85) 정규하 신부의 1907년 10월 6일자 서한, 『풍수원에서 온 편지-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105쪽.

3. 조선을 매개로 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세력을 뻗어왔다. 하지만 조선은 일찍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청은 조선 땅에서 맞부딪치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의 동학농민운동군을 평정한다는 명분 하에 출병함으로써 벌어진 청일전쟁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타이완과 만주의 랴오둥 반도를 얻게 되는데,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한 데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나라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만주 쪽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었으므로, 독일·프랑스와 함께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는 것은 동양 평화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하며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던 영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마침내 러시아를 공격, 러일 전쟁을 발발시켰다.

이 두 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 두 전쟁의 시기 조선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전쟁과 당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1]

많은 중국군인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휩쓸고 갔는데,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 말 등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훔쳐갔고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파괴해버렸습니다. 자잘한 집기들과 미사 도구, 그리고 제대 위에서 사용하는 성물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 종략 - 낮에는 종일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밤에는 중국 군인들의 잠신을 만드는 일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저는 주일 미사 참례를 면제해주는 파공을 허락했습니다. 동이 트자 조선인들이 드문드문 섞인 3~4백 명의 군인들이 대오를 벗어나 떼를 지어 저희 집 대문 앞으로 지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집을 한 순간에 점령하고 대문을 부수고 방 안에 놓여있던 가구들을 망가뜨리고 침실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경당 마루는 완전히 부서졌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소를 끌고 와 가마솥, 그릇, 병 등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고 모든 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철저한 약탈**입니다. 저는 이 와중에 ‘프랑스와 조선’ 간의 조약서 사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방 가운데 완전히 펼쳐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잃어본 후 가져간 것 같습니다.⁸⁶⁾

[자료 2]

지금 조선은 매우 조용합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려면 애를 써야 할 정도입니다. 도적들에 대한 소문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곳 신부들은 모두 이러한 평화스러움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원산에서 온 한 조선인이 5~6일 전 원산에서 러시아와 일본 함대가 교전을 벌였고 일본 함대가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 함대가 일본에 상륙하여 모든 것을 파괴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인들이 하는 모든 속덕공론이 그렇듯 말이지요.⁸⁷⁾

[자료 3]

이곳의 저희는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서울에서 받은 신문은 6월 7일자입니다. 저는 현재 너무나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조선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분발하겠습니다.⁸⁸⁾

[자료 4]

러일전쟁은 신부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조선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86) 뫼테르트르 신부의 1894년 8월 3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47쪽.

87) 루게트 신부의 1904년 5월 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70쪽.

88) 루게트 신부의 1904년 6월 3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76쪽.

히 신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는데 일본 군대의 이동 과정에서 몇 명의 신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 군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강원도 산골에 사는 저는 그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인 저의 본당에는 일본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이곳에는 조선인 도적들, 동학교도들, 산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들이 비교적 조용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목활동차 강원도내 여러 공소들을 방문하면서 가끔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강원도의 천주교 신자나 비신자 주민들은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⁸⁹⁾

위의 [자료 2, 3]에서는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 대해 특별히 선교사들이 느끼는 불안함이나 이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전쟁을 실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1, 4]에서는 청군이든 일본군이든 군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천에서 활동했던 뒤테르트르 신부는 [자료 1]에서 청군이 지나가면서 행한 약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군인이 아닌 강도들이고 철저한 약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천에서 활동한 루게트 신부 역시 러일전쟁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일본 군인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산골에서는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89) 루게트 신부의 1904년 11월 23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79쪽.

4.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선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한국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 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미국과는 1905년 7월 27일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영국과는 그해 8월 12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을 둘러싼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해 암암리에 인정받은 일본은 친일각료들을 이용하여,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어전회의를 통해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여 식민지로 삼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지휘자로 총독을 두어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에 파견된 총독은 행정권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이른바 ‘조선군’)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경술국치로부터 시작되는 일제강점기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역사의 시간인데 당시 한국에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1]

일본의 한국 보호 정책은 드디어 한일 합병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일본이 한 걸음씩 전진해 올 때마다 일어난 저항운동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다행이도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놀라운 평온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분명히 엄격하고 면밀한 치안 조치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조심스러운 체념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항거를 해야 했겠으나, 불가항력의 상황 앞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굴복한 것입니다.⁹⁰⁾

[자료 2]

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한일 합병을 기념한다면 신자들을 도시로 오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헌병들이 저도 무엇인지 모르는 음식들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조선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려는 듯 돈을 3~7냥(30~70냥?)씩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인들이 매우 고마워했다고 합니다.⁹¹⁾

[자료 1]은 1910년 서울교구 연보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는 뫼텔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이 보고에 한일 합병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보고서에서 치안조치 때문일 수는 있겠으나 평온한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졌고, 애국지사들도 지혜롭게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06년 10월 19일 <경향신문> 창간호를 통해서, 정치 불간섭주의적인 정교 분리 원칙을 선교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즉 한국 천

90) 뫼텔 주교의 1910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81쪽.

91) 부이수 신부의 1911년 8월 28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74쪽.

주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선교 활동에 전념할 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본래 정교분리 원칙은 교회와 국가가 자기의 활동 영역을 지키는 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리로, 정교 분리 원칙의 근본 취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데 있다. 1906년 2월 초대 통감인 이등박문(伊藤博文)은 개신교의 선교사들에게 회유책을 폈다. 그는 “한국 정치는 통감이 맡고, 정신적 교화는 종교가 맡는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일제는 한국의 정치 분야를, 선교사 혹은 목사는 정신계, 즉 종교 분야를 계도한다는 이른바 ‘역할 분담론’이었다. 그러나 근본 정의는 교회 세력을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저의를 교회가 모를 리 없지만 긴 세월 동안 박해를 경험한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석연치 않은 정교 분리 원칙을 공포한 것이다.

[자료 2]는 한일합병 당시 민중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조선인들이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강제 합병을 기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보여주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고마워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당시 한국 교회는 식민지 지배 통치를 묵인, 방조, 비호하는 정도를 넘어 동조와 협동, 봉사와 충성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반침략 운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단죄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까지 했다. 강원지역에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이러한 시각을 볼 수 있는 뒤편의 일기가 있으니 바로 안중근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 3]⁹²⁾

드망즈 신부가 한 한국인에 의해 이토 공이 암살되었다는 소문이 장안에 나돌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러 저녁 5시에 왔다. 애도의 인사를 하러 통감부로 가서 소네 자작의 비서인 사다케 남작과의 면회를 청했다. 이토 공의 이번 암살은 공공의 불행으로 증오를 일으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은 일본인이나 몇몇 친일파 한국인들에게만 보일 뿐이고 일반 민중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뿐더러 그런 감정이 아주 전반적이다.(1909년 10월 26일)

오늘 오후에 외출했는데 돌아와 보니 전보 한 장이 와 있었다. 그것은 12시 15분에 발송되어 3시경에 도착했다.“유력한 모 신문이 이토 공의 암살자가 천주교인이라고 보도함. 사실 여부 속담바람. 요코하마 무가뷔르 신부.” 저녁 8시 반경에 답전을 보냈다. “결코 아님. 또 어떠한 천주교인도 스티븐스 암살에 가담한 일 없음. 뮌텔”(1909년 10월 28일)

이토 공의 암살 주범이 천주교인이라는 고발이 원래 신천 출신으로 2년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다는 암살자에 대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아마 안도마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암살자의 이름을 안응칠이라고 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안도마의 이름과는 다르다.(1909년 10월 30일)

불행히도 오늘 오후 대련에서 온 전보가 우리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이 전보에 의하면 안응칠이란 이름은 암살범이 여기저기서 여러 번 사용한 가명이고 진짜 이름은 안중근이라는 것이다.(1909년 11월 2일)

안중근 도마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고, 또 신부 한명을 보내달라는 전보가 왔다.
(1910년 2월 14일)

여순으로부터 여러 번 전보를 받은 드망즈 신부가 오늘 회신을 보냈다. 나는 거기에 빌렘 신부를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이게 했다.(1910년 2월 15일)

92) 이 [자료 3]은 뮌텔 주교 일기의 기록으로, 각각의 기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주 없이 인용문 뒤에 날짜만 표기하였다.

오늘 저녁 5시 경에 여순재판소의 일본인 검사로부터 사형수와 빌렘 신부의 면회를 허락한다는 공식 전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면회를 허락해주어 매우 고맙지만 여순으로 신부를 보낼 수는 없다는 회답을 했다.(1910년 2월 16일)

빌렘 신부가 13일 대련을 떠나 같은 날 기차 편으로 진남포로 출발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그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2개월동안 미사집전을 중지시키는 징계장을 부득이 보내야 했다.(1910년 3월 4일)

안도마의 사형이 26일에 집행되었다. 일본인들이 그 시체를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한다. 극히 당연한 일이다.(1910년 3월 28일)

위의 [자료 3]에서 보이는 것처럼 뫼텔 주교는 이토를 암살한 안중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회를 간 빌렘 신부에 대해서는 2개월 미사정지라는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이토의 암살이 공공의 불행이나 일반 민중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기쁜 소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뫼텔의 인식은 비단 뫼텔 개인의 인식만은 아니었다.

당시 한국 교회는 프랑스의 종교 보호 정책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프랑스의 한 교구로 생각하였다. 뫼텔 주교는 항상 모국인 프랑스의 정책과 궤를 같이 했으므로, 1907년 프랑스가 불일협정(佛日協定)을 체결하고 일본의 한반도 소유를 용인하자 뫼텔 주교는 역시 친일 노선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 하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의 인식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난다.

[자료 4]⁹³⁾

이틀 전부터 서울에서는 소란한 시위 운동이 그쳤으나 이 운동을 계속 시키고자 하는 등사물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 조선 상점들도 이를 전부터 문을 닫았다.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합병에 항의하고 독립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개중에는 상점을 열고 싶지만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럿 있을 것이다, 대구에서는 최근에 매우 큰 시위가 있었다.(1919년 3월 10일)

용산의 대신학생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요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용산에서 온 김 아리수(金聖學) 신부가 나를 잠에서 깨웠다. 대신학생들이 막 잠을 자려고 할 때 즉 9시경에 — 소신학생들은 이미 8시부터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 삼호정 언덕 위에서 햇불로 무장한 조선인 군중들이 그 ‘독립 만세’를 불렀고 동시에 새남터 노들 쪽에서 비슷한 불빛과 고함들이 이에 응답했다. 대신학생들은 양쪽 사이에서 (감동에) 사로잡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창문들을 열고 그들도 (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했다. 기낭 신부는 그들을 침실로 다시 데려오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보러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나도 이 불행한 망동으로 인한 흥분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1919년 3월 23일)

학생들의 동요는 아직도 대단히 컸다. 이미 며칠 이래 그들의 정신은 탄 데 있었다. 홀로 내려가 거기에 모인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정신을 진정시켜 보려 했다. 묵묵히 듣고들 있었으나 나의 말이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올 때 그들은 나를 붙잡고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려 했다. 어떤 학생들은 울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정말로 무서운 모습들이었다. 마침내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간청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신학교를 떠나라고 했다. 그 중 여러 학생들은 이미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았다. 매우 서글픈 마음으로 주교관으로 돌아왔다. 어제 하루 동안에 서울에서만 19곳에서 시위가 있었다.(1919년 3월 24일)

위의 [자료 4]는 1919년 3·1운동에 대한 뫼텔 주교의 일기 내용이다. 당시

93) 이 기록 역시 뫼텔 주교 일기에 수록된 것으로 각각의 인용문에 대해서 별도의 각주없이 인용문 뒤에 날짜만 명시하였다.

3·1운동은 많은 종교계가 주도하였으나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천주교 지도자들이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고, 뮌헨 주교는 한국인들이 전개한 3·1운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 한국 천주교회가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제에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런 와중에 서울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신학생들도 만세 운동에 참여하자 이 보고를 받고 신학생들을 훈계한 것이다.

하지만 신학생들은 주교의 훈계가 끝나자 일본인들에게 짓밟힌 조국을 외면할 수 없다며 만세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뮌헨 주교는 신학생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심지어 만세 운동에 참여하려면 신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실지로 뮌헨 주교는 만세 운동 참가에 대한 징계 조치로 그해의 서품식을 연기하였고, 만세 운동을 주도한 신학생들을 퇴학시켰다. 강원지역의 신학생으로 당시 퇴학당한 이의 기록이 선교사 서한에서 보인다.

[자료 5]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박 마르코 신학생의 형인 박 요한이 저를 찾아와서, 분개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욕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제게 와서 많은 신자 앞에서 주교님과 신학교 교장 신부님, 그리고 모든 신부님을 혈통어 말하기를, “유럽인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8년 동안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 동생을 저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급기야 내쫓았다. 저들은 얼마나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한가! 저쪽 [신학교 밖의 조선인들] 편에서 먼저 만세를 불려서 신학생들이 그들을 따라 몇 번 만세를 불렀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신학교에서 내쫓다니!” 등등….

나아가 신학교에서 쫓겨난 마르코 신학생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앙심을 품고 있을

니다. 마르코 자신도 신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달 전에 상경했는데, 그는 만나는 학생들을 자기 세력에 규합시키려 합니다.

[자료 5]는 한국인 정규하 신부의 서한이다. 당시 정규하 신부는 횡성 풍수원의 주임 신부로 있었는데 풍수원 출신의 신학생이 3.1운동에 참가하여 퇴학을 당하자 고향에 돌아와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다시 서울로 가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표출된 불만 속의 ‘저들은 얼마나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한가’라는 말은 비단 퇴학당한 박 마르코 신학생만의 의견이 아닌 당대를 살았을 조선인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 6]

저의 영동 여행, 특히 강릉과 간성으로의 여행은 매번 일본 경찰들로 인해 불안했습니다. 제가 체류하고 있는 동안 경찰들이 찾아왔고, 또 제가 떠난 후에도 교우들에게 저의 활동에 대해 까다로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저에 대해 수고를 하고 있지만 저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10년 동안 체류하면서 1910년 이래의 현질서에 대해 한마디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귀찮게 굴고 천주교에 대해 간접적인 박해를 하지 않는 한, 결국은 그 많은 조사가 제 태도의 올바름과 공정했음을 조금씩 입증하게 되어 그러한 사소한 핍박도 자연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 독립 운동에 대한 영동 교우들의 태도도 저의 단언을 증명해줍니다. 즉 그들은 저의 권고에 복종하여 제가 아는 한, 그들 중 한 사람도 그 소요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⁹⁴⁾

[자료 6]은 안변에서 강원도 영동 지역을 관할했던 뤼카 신부의 서한이다. 뤼카 신부는 조선에 체류하면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94) 뤼카 신부의 1919년 6월 6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326쪽.

없음을 이야기하며, 신자들 역시 그의 권고에 복종하여 아무도 3.1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한국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일본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조선을 일본 제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일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독립운동을 반정부운동으로 단정하였다. 월남을 침략하고 있는 제국주의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들의 눈에 일제의 침략 행위가 정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무모한 짓으로 판단했다. 이에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드망즈 주교는 만세운동에 가담하면 대죄를 범하므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흥분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주교를 비롯한 이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들 중 어느 누구도 소요(騷擾)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뤼카 신부의 서한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다.

[자료 7]

기산과 망담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렵듯하게나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두 곳에 사는 저의 신자들이 그 마을에 사는 비신자들의 모략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선인 순사와 일본인 순사들에게 호되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이 순사들은 기산과 망담에서 각각 3개와 7개의 묵주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 미 염산리와 창두루(평강)에서도 순사들이 묵주 1개와 2개씩을 빼앗아 갔습니다.

-중략-

일본군인 7~8명과 통역관인 일진회원 3~4명으로 구성된 무리가 망담으로 내려와 마을의 비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구매했던 가옥을 수색했습니다. 닫혀있는 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성화 2개를 훔쳐갔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를 되찾아서 일진회 통역관인 '일수사'에게 갔습니다. 통역관은 18~19세 가량의 젊은이였는데 통역 실력도 형편없고 건방졌습니다. 저는 그 통역관에게 망담의 비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리한 행동을 저질렀으니 신자들과 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사과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일진회원들은 이천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법대로 처리한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고 그런 감정과 불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 중략 -

일본인들과 일진회원들에게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신자들은 신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비신자들은 자기들이 '자위단'을 결성하여 일본인들에게 저항하기 전에 먼저 신자들이 저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중략 -

지금 저희는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저나 저의 신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저는 일진회원들이 신자들에게 품은 악의를 없애고 함부로 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⁹⁵⁾

[자료 8]

일진회에 끌려 다니는 관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천 군수에게 곧바로 편지를 보내 주교님과 부총독의 대담 내용을 알렸고 신자들을 강제로 자위단에 가입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소의 신자들에게도 자위단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는 사실을 짧은 글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진회원들이나 관료들이 신자들을 강제로 자위단에 가입시키지 않을까, 또한 신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일진회원이나 관료들이 신자들을 때리거나 돈을 갈취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군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저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수는 일진회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 답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⁹⁶⁾

[자료 9]

오늘 아침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수가 직접 나서서 단발은 원하는 사람만 해도 된다고 수차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군수의 말을 믿

95) 루게트 신부의 1908년 1월 18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08쪽.

96) 루게트 신부의 1908년 1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11쪽.

지 않습니다. 자위단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단발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봅니다.

- 종략 -

단발령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지역 공소에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니 군수 단독으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지시를 내려 보낸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천에만 단발령이 내려진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단발을 한다면 누가 일진회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일진회가 꾸민 촌극이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⁹⁷⁾

[자료 10]

일진회 회원들만 없다면 이곳은 조용합니다. 일진회원들은 신자 3명을 꼬드겨 단발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천주교 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이천군에 와서 정착하여 30~40명의 추종자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있는 곳에 정착하여 신자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치사한 놈들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악감정은 없습니다.⁹⁸⁾

[자료 11]

주교님께 일진회에 가입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남자들이 단발을 하고 일진회 회원이 되어, 다른 신자들에게도 그럴듯한 구실을 대며 단발을 하도록 독려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그들이 다시 머리를 기르고 일진회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했으며 주교님을 찾아뵙고 주교님의 편지를 제게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진회원들은 신자들에게 일진회원이 되면 천주교인이 될 수 있고, 미신을 행하지 않으며, 개화를 지향하고, 양반도 될 수 있다면서, 단발하지 않으면 평민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종략 -

지금 그들은 일진회에 미쳐(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있어, 일진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고, 진실된 것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진회원들이 말하

97) 루게트 신부의 1908년 1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11쪽.

98) 부이수 신부의 1905년 10월 23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42쪽.

기를 천주교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신부들은 사람들을 속이므로, 자신들은 천주교를 신뢰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하느님을 저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저버리지 말고 종교를 떠나자. 천주교는 전에는 참된 종교였으나 일진회가 생긴 이래 가짜가 되었다. 천주교는 노쇠한 종교이고, 일진회는 새롭고 참된 종교이다.”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웃도 과연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는 외국에 있고, 전씨라는 사람인데 조선을 지배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개화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국(敗國)의 개화인가요?⁹⁹⁾

위에서 인용한 [자료 7-11]은 일진회에 관련된 서한들이다. 당초 일진회(一進會)는 독립협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1904년 8월 조직되었다. 이때의 일진회는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 정부의 정치개선 실시, 군정 재정의 정리 등을 위한 단체였으나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즉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추진을 위한 단체로 성격이 바뀌면서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진회는 을사늑약 체결에 앞서 외교권 이양을 제창한 ‘일진회선언서’를 발표하였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였다. 이들은 1907년 7월 고종의 양위와 한국 군대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항일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일진회도 ‘자위단’을 조직해 의병탄압에 앞장서다가 일제가 한국을 강제 합병한 이후에 해체되었다.

이러한 일진회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기록된 위의 기록은 이천에서 활동하던 루케트 신부와 부이수 신부의 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두 선교사는 일진회원들이 신자들에게 ‘단발’을 강요하고, ‘천주교는 노쇠한 종교이고, 일

99) 부이수 신부의 1905년 12월 8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44쪽.

진회는 새롭고 참된 종교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루케트 신부는 서한에서 일진회원의 힘이 막강하여 잘못 대처하면 신자들을 괴롭힐까 염려스럽다는 표현을 통해서 1904년부터 1910년 강제 합병에 이르는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앞장섰던 일진회에 대처할 방법을 뫼텔 주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사의 질문에 주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나, 1911년 6월 11일 대구교구장 드망즈 주교의 서품식 자리에서 뫼텔 주교가 “천주교는 정치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나는 항상 일본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나와 우리 모든 신부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또한 신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그 대답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12]

저는 루케트 신부에게 일본이 조선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으며 조선인들의 집은 그 감옥소의 감방과 같다고 했고, 외국인들은 구류형을 받은 살찐 수감자라고 말했습니다.¹⁰⁰⁾

[자료 12]는 일본에 대해서 뫼텔 주교와는 조금 달리 바라보는 부이수 신부의 서한이다. 물론 부이수 신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이 조선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기록은 당시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들은 구류형을 받은 살찐 수감자라는 표현과 감

100) 부이수 신부의 1911년 7월 2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72쪽.

방과 같은 조선인의 집이라는 표현은 같은 맥락에서 선교사였던 부이수 신부가 그의 상황을 당시 조선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이한 기록이기는 하나 당시 일본과 일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뒤통스런 주교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13]

일본인들은 신문 발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론을 막아버린 후 그 법으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법 조항 첫 부분에 언론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참으로 교활한 사람입니다.¹⁰¹⁾

[자료 13]은 일제강점기 신문지법에 대한 선교사의 의견이다. 일제는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언론을 탄압하고자 하였다. 신문지법은 처음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민간신문만을 그 단속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1908년 4월, 그 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한국인 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 뿐만 아니라 영국인 베델(Bethell) 명의로 발행되는 『대한매일신보』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경향신문>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경향신문>은 1906년 10월 19일 천주교에서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순한글판 주간 신문이다. 경향신문 창간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경향신문이라는 제호(題號)는 ‘서울 백성 뿐만 아니라 시골백성에게도 배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도 아래 명명한 것이었고, 공정한 보도와 지식의 보급을 그 신문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는 전국 각처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각지의 소식을 제공하

101) 부이수 신부의 1915년 12월 1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38쪽.

였고, 보급에 있어서도 교회 당국이 지원하여 독자를 확보하였으나, 1910년 4월 22일자 제184호가 신문지법에 의하여 치안방해라 하여 발매 금지 및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서한은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서한이었다. 파리의방전교회는 1939년 골롬반선교회가 강원지역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기 이전까지 이 지역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였으므로 서한의 대부분은 그들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1933년 6월 교황청으로부터 전라남도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은 골롬반외방선교회는 1933년 10월 29일 최초로 10명의 회원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들은 목포를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활동하다가, 1939년부터는 춘천지목구, 즉 강원지역에서 사목을 담당하게 되면서 추가로 6명의 골롬반 선교사가 합류하여 춘천, 원주, 홍천, 이천, 평강 등지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합세하면서 골롬반선교회 선교사들을 체포하여 이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송환시켰고,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들은 가택연금 시킴으로써 1945년까지 사실상 선교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이에 1945년까지 골롬반회의 기록은 많지 않으나 이 시기 강원지역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서한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 14]

우리는 희망을 갖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상황은 조용하고 질서 정연합니다. 당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미국이 대혼란에 빠져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미국이 대혼란에 빠지면 우리는 언짢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¹⁰²⁾

102) 골롬반문서 1941년 2월 7일, 춘천교회사연구소 소장.

[자료 15]

감사하게도 이곳 상황은 조용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이곳의 당국자들, 특히 도지사와 경찰서장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자유국가의 시민인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정이 불행히 더 악화되더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¹⁰³⁾

[자료 16]

강원도에 있는 우리는 모두 감사하게도 매우 건강하고, 잠시도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일찍부터 부족했지만 우리가 굶주린 적은 실제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인 관리들은 이교도들을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언제나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성분을 “국내에서는 아일랜드인이고 국외에서는 영국인”으로 간파했는데, 매우 적중한 짐작이었습니다. 장래에 관한 얘기를 하면, 미군이 38선 남쪽에 주둔할 것이고, 소련군이 38선 북쪽에 주둔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38선은 강원도를 가로지르고 있어, 약 절반이 소련 점령지 안에 있습니다. 소련군은 도착한 이후 빨갱이를 선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종교적일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춘천은 38도선 남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거지 세 곳이 38선 북쪽에 있습니다.¹⁰⁴⁾

일제강점기 골롬반회의 기록은 인용한 [자료 14,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없다. 가택연금 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어 실질적으로 사목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은 1941년 춘천에서 보낸 문서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해외 사정이 악화되더라도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자료 16]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인 9월 10일의 기록이기는 하나, 일본인 관리들이 자신들을 의심하고는 있으나 잘 배려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후의 사회상에 대해서 38선 남쪽에는 미국이, 38선 북

103) 골롬반문서 1941년 8월 18일, 춘천교회사연구소 소장.

104) 골롬반문서 1945년 9월 10일, 춘천교회사연구소 소장.

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목자로서 그들이 관할하는 사목지 3곳이 38선 북쪽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5. 신자들의 간도 이주에 대한 시선

선교사들의 서한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이 보이는 것은 신자들의 간도 이주이다. 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방은 고대부터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후기 간도는 정치 기강의 해이와 탐관오리의 횡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란을 피해 이주를 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 정부는 간도 개척을 위해 한인 이주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한인 이주민을 위한 특별 개간구를 확정하기도 하면서 한인 이주민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한인들의 간도 이주는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가중되자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던 이들이 국내에서의 활동이 녹록치 못하자 근거지를 옮겨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들의 가족들도 집단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로 토지를 잃은 농민들 중에는 ‘개간할 토지가 많아서 먼저 가서 개간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을 듣고 간도, 만주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도 이주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한은 아래와 같다.

[자료 1]

과도기 동안 국경 밖에 정착하려고 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수의 한국인이 간도로 이민하였습니다. 퀴를리에 신부에 따르면 적어도 현재 이러한 이민이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¹⁰⁵⁾

[자료 2]

간도에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이에 부딪혀 좌절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라디보스톡과 러시아 땅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돈이 더 흔하고 일삿도 이곳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빚을 진 조선인들이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그들은 부모, 처자식을 버려두고 남의 집 하인으로서나 또는 금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을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은 무척 드뭅니다. 일단 러시아에 도착해 보면 그곳도 고향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단단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임금을 덜 주고, 그것도 흔히 통역해 주는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깁니다. 더구나 성분이 좋지 못한 무리들 사이에 끼게 되기 때문에 며칠 만에 도박이나 방탕생활로 몇 달 동안 이마에 땀 흘려 번 것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빈 손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고향에 돌아오면 필연적으로 듣게 될 야유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고, 여전히 상황은 똑같게 됩니다. 12명 정도의 교우들이 그 곳에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들의 소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¹⁰⁶⁾

[자료 3]

서간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만주 지방으로 떠나는 더욱 커진 이민열(移民熱) 때문임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조선 사람은 항구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어, 자기 공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곧 용기를 잃게 되고 다른 곳으로 돈벌이를 찾아 떠나려고 짐을 싸게 됩니다. 제멋대로 사는 습관이 되어 치안 유지를 위한 규제와 다른 규제들을 감수하지 못하는데, 그들 눈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정말 귀찮은 일들이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민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또한 더 비싸졌습니다. 눈을 경작하며 평야에 사는 주민들은 사회 변동에서 어느 정도의 물

105) 뷔텔 주교의 1910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81쪽.

106) 뷔텔 주교의 1912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05쪽.

질적 안락을 갖게 되었지만 반대로 산악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아마도 이같은 심각한 형편이 일부 사라지겠지만, 허기진 배에 무슨 말이 들릴 리 없으므로 계속 이민을 하게 됩니다. 프와요 신부는 이렇게 원산에 이민 온 사람들이 50여 명에 달한다고 하였고 뤼카 신부는 영동에도 100명이 넘게 있다고 보고했습니다.¹⁰⁷⁾

[자료 4]

불행히도 최근에 제가 수 차례 충고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14명의 교우들이 사제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간도지방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도 쉽사리 남의 말을 믿어 그곳에 가면 상당한 이익이 약속돼 있더라도 한 것처럼 확신에 차 있습니다.¹⁰⁸⁾

[자료 5]

신자들 중 오십 여명이 간도로 떠났음에도 저의 담당 지역 신자 총수는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세자가 예년보다 좀더 늘어난 덕택입니다. 불행하게도 내년에는 현저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1월부터 제 사제관과 인접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신자 200명이 간도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거둔 영세자 수가 그러한 대탈출을 보상해줄기를 희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가없는 신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진짜 광기입니다. 그들은 간도에서 꿈의 고장을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도록 해주는 삶의 조건을 발견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가난은 가중되기만 할 뿐, 보다 심각한 것은 몇몇 사람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갈피를 잃고 있다는 점으로 참으로 걱정스런 일입니다. 한두 명을 제외하곤, 모든 신자들이 성서 증명서를 갖춘 후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충실히 실천하고자 한 선교사의 사제관 주변이나 신자들 속에 정착한다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 이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신자들과 멀리 떨어져 외교인들 속에 정착하여 그로 인해 모든 신앙적 실천을 그만둔다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¹⁰⁹⁾

107) 뤼텔 주교의 1913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13쪽.

108) 기요 신부의 1913년 4월 11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8쪽.

109) 시갈레 신부의 1927년 4월 27일 연말보고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205쪽.

[자료 6]

저의 신자들 중 많은 이들이 간도로 가려고 합니다. 10가구 쯤 되는 사기골 공소신자 대부분과 기산과 남자리의 신자 여러 명이 그 곳으로 가면 부를 누리고 평화스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고 올 가을이나 내년 봄 간도로 이주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신자들도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 중 30~50가구 정도가 올해 간도로 이주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그곳에 가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저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니 그들을 못 가게 말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¹¹⁰⁾

[자료 7]

지난 해 사목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자 수와 연중 고해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의 신자들 중 상당수가 간도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¹¹¹⁾

[자료 8]

저희 신자들 사이에서 간도로 가는 것이 점점 더 유행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대략 오십여 가구가 간도로 갈 것 같습니다. 이를 막을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몇 년 이내로 저의 신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빠져 나갈 것입니다. 남자리 공소에서 22가구가 몇 달 후 간도로 떠날 것입니다. 이천과 평강에서도 간도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맡기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¹¹²⁾

[자료 9]

간도로의 이주가 계속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간도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이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10) 루게트 신부의 1910년 8월 23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31쪽.

111) 루게트 신부의 1912년 4월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6쪽.

112) 루게트 신부의 1912년 9월 15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56쪽.

다. 만일 간도로 가는 신자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많은 공소들이 해체될 것입니다. 남자리 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리교사 2명과 착한 신자들도 간도로 이주해 가고 이제 이 곳은 아무것도 모르는 새 신자들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¹¹³⁾

[자료 10]

1926~27년 사목 보고서에는 이천지역 본당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간도 이주로 신자수가 줄었으며 새로 지은 두 개의 작은 학교 중 하나는 망담 공소에, 또 하나는 큰골 공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망담에서 간도로 떠나간 신자수가 많아, 대어섯 가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들도 이주민들을 뒤따라 갈 듯합니다. 간도에는 풍년이 들고 이천에서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천 지역의 신자들이 이처럼 빠져 나가면 겨울에 축일을 지낼 수 없으며 공소의 신자들이 올 경우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도 마련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¹¹⁴⁾

위에서 인용한 [자료 1-10]은 모두 간도 이주에 대한 것이다. 신자들의 간도 이주에 대한 언급은 이천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뿐만 아니라 용소막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의 글과 서울교구 연보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보인다. 이는 천주교 신자로 간도로 이주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지로, 천주교 신자로 간도에 이주한 이들의 출생지는 대부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도, 충청도였다. 그런데 간도 이주 한국인들의 출신도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북간도 이주는 함경남도 → 강원도 → 함경북도 → 황해도 → 강원도 순이었고, 서간도 이주자는 평안남도 → 경상북도 → 함경남도 → 평안북도 → 강원도 순이었다. 1910년 강제합병 이후 서간도나 북간도 이주자 중에는 함경남도 출신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강제

113) 루게트 신부의 1913년 4월 13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63쪽.

114) 부이수 신부의 1926-27년 사목활동 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74쪽.

합병 이후 함경남도보다 강원도에서 더 많은 이들이 간도로 향하였다.¹¹⁵⁾

이러한 간도 이주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빈곤과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국내에서의 삶이 어려워 국경을 넘는 신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자료 1-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권을 잃은 나라의 국민으로 일제의 강박을 피해 그리고 생계를 찾아 고국을 떠나는 신자들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비난하였다. 간도 이주는 무모하고 허황된 것이며 대부분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인의 간도 이주에 부정적인 것은 파리외방전교회의 창립 정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파리외방전교회는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면에서만 관심을 두었을 뿐 경제적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자들의 간도 이주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중 하나인 삼림관계 법령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한 후 『압록강·두만강 삼림경영에 관한 한일합동약관』(1906)을 강요하고 삼림 약탈을 시작하였으며, 『삼림법』(1908, 법률 제11호)을 제정하여 식민지 삼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삼림법 19조의 지적신고(地籍申告)를 확정하기 위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을 1910년 3월에 실시한 후 이것을 전제로하여 삼림령을 공포하였다. 1911년 6월 20일 공포된 삼림령과 1912년 5월에 공포된 『국유삼림산야보호규칙』은 천주교 신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아래에서는 식민지 삼림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신자들의 간도 이주 및 이로 인해 야기된 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서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115)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2, 148~155쪽 참조.

[자료 11]

저는 영동 교우들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방 교우들의 대부분은 옹기 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공소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곳의 군수들, 특히 양양군수가 공동 산의 벌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유림의 소유주들에게도 그들 자신이 벌목을 하거나 자기 산의 나무를 관청의 특별 허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 허가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평으로 돌아와서 일본인들이 근방에서 벌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종략 -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조치로 인해, 이 교우들이 수입을 얻을 수 없다면, 장작이 없이는 그들의 옹기업을 계속 할 수 없고 따라서 거의 모두가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이 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합니까?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이 논도 밭도 없으니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라고 권하겠습니까? 영동에 있는 600명의 교우 중에 적어도 500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¹¹⁶⁾

[자료 12]

영동 교우들의 상황은 이후 매우 불안해질 것 같고 또 그것은 그들 가운데 신부를 모시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 곳의 경찰이 그들에게 벌목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옹기없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히 비참해지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¹¹⁷⁾

[자료 13]

영동에서는 벌목을 금지하는 새 법률 때문에 예외 없이 모두가 옹기마을인 그곳의公所들은 벌써부터 안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평 교우들이 떠나게 될 경우에 영동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데 사정이 이러하니 저의 처지는 곤란해질 것입니다.¹¹⁸⁾

116) 뤼카 신부의 1912년 2월 4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295쪽.
 117) 뤼카 신부의 1913년 6월 17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304쪽.
 118) 뤼카 신부의 1913년 11월 6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306쪽

[자료 14]

영동에서는 이미 작년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데로 장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기점들의 장래가 대단히 불안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것들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동 교우들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모양인지, 풍수원과 그 근방의 교우들이 영동으로 많이 이주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약 25가구가 이 곳으로 왔습니다.¹¹⁹⁾

위의 인용문 [자료 11-14]는 영동지역에서 사목을 담당하던 뤼카 신부의 서한이다. 서한은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작성되었는데 영동지역의 신자들이 벌목을 할 수 없어서 옹기를 굽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산간지역에 살던 신자들은 화전 개간과 연초재배 그리고 옹기업을 주요 경제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삼림정책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화전민까지 격증하였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 약탈로 경작자를 잃은 농민들이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생계가 곤란해진 이들이 화전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화전과 담배농사를 하던 천주교 신자들은 새로운 생계를 찾아야 했고, 공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루블레 신부는 1913년 4월 10일 뮌헨 주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화전의 수확과 감소, 담배 값의 하락, 돈이나 부역으로 지불해야 하는 온갖 세금, 화전민과 지주들과의 어려움, 몇 푼의 돈도 빌릴 수 없는 상태 등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생계를 찾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서간도가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들이 간도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옹기업을 하던 신자들도 삼림령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박해를 피해

119) 뤼카 신부의 1914년 6월 23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309쪽.

산간벽지로 숨어들었던 신자들은 화전을 개간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과 땀감 그리고 흙만 있으면 되는 옹기업을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신자들에게 옹기 기술의 습득을 권장하고 그 기술을 가르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박해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옹기업을 계속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작을 필요로 하는 옹기업에 벌목을 금지한다는 법령은 옹기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신자들에게 있어 큰 충격이었고, 이런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국경 밖이었던 것이다.¹²⁰⁾

이렇게 국경 밖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은 비단 신자들만이 아니었다.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들은 주거 생활이나 의식 생활 그리고 민속에 있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원도 마을’ 혹은 ‘원주촌’, ‘고성촌’ 등과 같이 출신지가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을 이름을 붙이며 생활하고 있다.¹²¹⁾

간도 이주와 함께 신자들의 해외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하와이 이주였다. 20세기에 들어오면 한국인의 미주지역 즉 하와이와 멕시코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공식적인 하와이 노동 이민의 시작은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 항구에서 121명이 출발하면서부터이다.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하와이의 백인 출신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급증하고 있던 일본인 노동자들을 견제하면서 농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지역에서도 하와이로 이주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글이 아래

120)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2, 148~155쪽 참조.

121) 전신제 외 편저, 『재중 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2006 참조.

서한에서 보인다.

[자료 15]

강원도의 교우들은 굳은 신앙심이 있기는 하나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노임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이(Hawaii) 섬의 미국(美國) 농장주들은 경작에 필요한 노동자를 구하는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보다 재빨라서 노역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 비싼 노임을 내걸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힘이 미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신자들에게 이런 유혹을 물리치도록 했으나, 새로 입교한 신자들의 상당수가 몰래 떠났습니다. 물론 하와이 섬에서 가톨릭 신부를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별로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받는 임금이 많지만 기본적인 생활품 값이 어찌나 비싼지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을 무진히 하면서도 겨우 굶어죽지 않을 만큼밖에는 벌지를 못합니다.¹²²⁾

위의 [자료 15]에서 보듯이 가난한 신자들은 비싼 노임에 현혹되어 하와이로 망명을 선택했고, 선교사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고 종교적인 도움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는데 1905년 4월 정부가 돌연 이민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시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하와이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일본의 압력 때문이었고, 이후 하와이 이민에 대한 기록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간도처럼 많은 신자들이 이주하지는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122) 두세 신부의 1905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56쪽.

—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Ⅳ 선교사의 사목활동

1. 뮌텔 주교의 눈에 비친 선교지¹²³⁾

사목활동을 통한 강원지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선교사의 서한이 있다. 하지만 강원지역 전체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서한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강원지역에서의 천주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뮌텔 주교 일기』에 수록된 그의 순방기록이다. 뮌텔 주교는 순방하는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의 순방기록을 중심으로 사목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뮌텔 주교의 강원지역 순방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순방은 1891년 10월 풍수원, 두 번째 순방은 1893년 12월 부영골, 세 번째 순방은

123) 이 부분의 인용문은 『뮌텔 주교 일기』에서 발췌한 것으로, 각각의 인용문마다 출처를 각주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날짜만 인용문 뒤에 표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1900년 10월부터 1901년 2월까지 강원도 전역, 네 번째 순방은 1901년 11월 철원과 북강원의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다섯 번째 순방은 1910년 11월 풍수원, 용소막, 원주본당 관할 지역에 대한 것이며, 여섯 번째 순방은 1916년 11월 원주본당 관할 구역에 대한 것이었다. 이 6번에 걸친 순방 일정은 각각 다르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의 순방은 1891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풍수원 본당 및 관할 공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강원지역과 관련된 교우촌과 그 생활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 1]

풍수원 십리를 앞두고 한 포수가 우리의 도착을 알리게 되어 있었다. 행렬은 점점 장엄해졌고, 산과 고개와 깊은 골짜기를 지나 마을 앞에 이르렀다. 르메르 신부가 입구에서 10여 명의 횃불을 든 사람들에게 행렬을 지시했다. 횃불이 광채를 내기에는 아직 밤이 좀 일렀다. 성당, 집 모두가 새롭게 잘 건축되었다. 매괴첨례(玫瑰瞻禮), 군중을 다 수용하기엔 성당이 너무 작다. 르메르 관할의 모든 공소(Kong-so)에서 대표들이 왔으며, 영동(嶺東)에서도 왔다. 새내(Sye-nai)¹²⁴⁾의 연로한 문회장은 그가 추수한 배를 내게 가져왔다. 미사 때 150명의 영성체에 이어 견진성사가 있었다. 아직도 고해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첨례에 참여하려 한다. 저녁 때 소성당의 강복식이 있었다.

뫼텔주교의 1891년 첫 번째 강원도 순방은 풍수원에 대한 방문으로, 6일간의 여정이었다. 뫼텔주교는 서울에서 출발, 양근을 거쳐 풍수원으로 가는 노정(路程)을 택하였다. 양근에서 풍수원으로 가는 길에 양평 용문에 있는 퇴촌 신앙 마을에 머물면서 성사를 주었는데, 퇴촌은 옹기마을이라고

124)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유포리 서내.

기록되어 있다. 퇴촌에서 20리 이상을 가서 풍수원에 도착하였는데, 산과 고개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지났다고 되어 있어 퇴촌에서 풍수원에 이르는 노정이 수월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풍수원은 르메르 신부가 사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르메르 신부의 관할 범위는 강원도 전역에 해당하였으므로, 당시 관할 공소의 대표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4 뮌텔 주교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

뮌텔 주교의 두 번째 강원도 사목 방문은 1893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강원 지역에 대한 사목방문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가 보다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사목방문을 하면서 강원도 부영골¹²⁵⁾을 방문한 것이다. 부영골은 1885년에 예수성심신학교가 건립되었으나,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도 좋지 않고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아 1887년에 용산으로 신학교를 이전하였다. 이곳은 지금은 수원교구 관할이나, 당시에는 풍수원 성당에서 사목을 하던 르메르 신부의 관할이었다.

뮌텔 주교의 세 번째 강원지역의 사목 방문은 1900년 10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순방은 강원도 전역에 대한 순방이라 할 수 있다. 50일 정도 사목방문에서 강원지역과 관련된 교우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25) 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자료 2]

저평읍¹²⁶⁾을 지나 10리를 더 가서 점심을 들었다. 2개의 좁은 길을 지나 60리 길을 더 가서 원심이¹²⁷⁾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밤상골¹²⁸⁾ 교우들이 성사를 받으러 와 있었다. 10년 전에 우도 신부가 지은 방이 아직 경당 밖에 남아 있는데, 이 작은 공소를 위해서는 충분했다.(1900년 10월 14일)

30리 거리의 두둑말¹²⁹⁾로 떠났다. 사람들이 원심이 계곡까지 쫓아왔다. 이어 새 공소로 가기 위해 부영골 앞을 흐르는 강을 건넜는데, 부영골에는 교우 집이 세 집밖에 없기 때문에 성사를 받으러 이리로 왔다. 불행히도 거기에 불화가 있는데, 특히 그것은 필시 이 요한 회장의 부인과 부영골의 이 요셉 회장의 부인사이의 경쟁일 것으로, 두 사람은 다 성사를 받지 않았다.(1900년 10월 17일)

15리 떨어진 장들¹³⁰⁾로 출발. 이곳에는 6-7가구의 가난한 교우들이 살고 있다. 일찍이 양로원에 있었던 송 수산이라는 유명한 앓은뱅이가 이곳의 자기 오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오빠는 혼배조당(婚配阻當) 때문에 2년 전부터 성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1900년 10월 18일)

위의 기록은 주로, 양평에서 출발하여 원주 법천에 이르는 5일간의 여정이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교우촌은 옹기마을로 명시된 곳도 있으며, 모든 교우촌을 다 돌아볼 수는 없으므로 인근 마을에 사는 교우들이 와서 성사를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 문막, 부론에서 5일간의 사목 일정한 뒤텔 주교는 지금은 원주교구 관할인 제천지역으로 향하는데 이 순방에 대한 그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126)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127)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28) 강원도 문막읍 반계리.

129)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30)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자료 3]

가야할 길이 85리나 되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고해자가 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7시에 떠났다. 산을 넘으니 제천 땅이었는데 거기서 점심을 들었다. 다행히 교우들이 와서 밥을 준비해 주어서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4시경에 도착, 고해성사를 주고 이어 저녁을 먹고는 찰고를 하고 세례를 주었다. 상당히 지친 후 밤 11시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점에서 **절터**¹³¹⁾ 공소는 산골의 훌륭한 교우들을 상기시켜 주었다.(1900년 10월 1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떠났는데 온종일 비가 내렸다. 만지실¹³²⁾ 공소에 이르기까지 비를 맞으며 50리 길을 갔다. **용소막**¹³³⁾ 앞을 지났는데, 부이옹 신부가 8일 전 온종일 모욕을 당하고, 교우들이 고문을 당한 곳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다. 아마 내리는 비 덕분에, 우리는 교우들이 우리들 때문에 두려워할지 모를 불행한 사건을 모두 모면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1900년 10월 20일)

20리를 가면 **가래나무골**¹³⁴⁾에 이른다. 날씨는 흐리고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니, 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용소막의 최 요한 회장의 편지가 왔으나 우리의 복사들은 선의에서 우리를 깨우지 않았다. 묘재¹³⁵⁾의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최 회장에게 주었던 6일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100명이 넘는 외교인들이 최 회장에게 와서 다시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의 외교인 2명을 새 기한의 보증인으로 세우고 새 기한은 음력 9월 10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이 외교인들은 내게 전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용소막으로 나를 만나러 온다고 위협하고 있으므로, 회장은 그런 소식을 전하며 내가 용소막으로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1900년 10월 21일)

이곳에서는 두 번의 공소가 있다.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신평촌**¹³⁶⁾ 교우들이 성사

131)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132)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133)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13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35)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학산리.

136)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를 받으러 가래나무골로 오기 때문이다. 나는 제천 군수에게 나의 호조(護照)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내가 협박을 받고 있으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포졸들을 보낼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평온을 유지하도록 포고할 것이고 또 내일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올 것이라는 회답을 내게 보냈다. 나는 어떠한 위험도 닥치지 않을 것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1900년 10월 22일)

용소막을 향해 40리 길을 떠났다. 그곳 교우들은 그곳 맨 앞에 신부 방이 포함된 아담한 경당을 지었다. 마루는 아직 놓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나 습기가 많다. 40명 가량의 고해자, 성사가 끝날 무렵 제천 군수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고해를 끝내고 그를 만나러 방으로 갔으나 방에는 이미 그가 드브레 신부와 함께 있었다. 민영완(閔泳琬)은 우리를 만나러 감나무골로 갔다가 여기는 밤에야 도착했다는 것이다. 군수에게 미사주 한잔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에게 제천 주민들의 폭행에 그가 관련되었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가 변명을 하므로 나는 폭동을 선동한 자들이 군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좀 당황해하는 듯 했으나 곧 다시 침착해졌다. 최 회장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으며 만일 그러한 폭행에 대해 가만히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주문해 놓은 주막으로 돌아갔다.(1900년 10월 23일)

오늘 아침에 새 경당의 강복식이 있었다(장소의 축성). 주막으로 군수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이미 떠났으므로 그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묘재로 명함을 보냈다. 내가 보낸 파발꾼이 돌아오기 전에 군수의 포졸 한명이 그저께 묘재 주민들이 최회장으로부터 빼앗은 어음을 최 회장에게 돌려주려고 가지고 왔다. 원주를 향해 40리 길을 떠났다.(1900년 10월 24일)

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뫼텔 주교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용소막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교우촌을 순방하였다. 원주 법천에서 출발한 뫼텔 주교가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산을 넘으니 제천 땅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양아치 고개를 넘어 이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천 땅이라고는 하지

만 당시에는 용소막 성당에서 관할하는 공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기록에서는 용소막 성당 건물의 축성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토지분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배론과 묘재 등에 있는 교회 소유의 전답을 병인박해 당시 관(官)에서 몰수하여 매대한 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하며, 교회는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였다. 뫼텔 주교 역시 사목 방문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1866년에 잃어버린 논들은 교회 측의 소유로 하도록 판결이 났다.

용소막에서 사목방문을 마친 주교는 원주로 이동하여, 원주 시내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40리 떨어진 곤의골을 시작으로 하여 공소 순방을 시작하여 곤의골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택하였다.

[자료 4]

40리 떨어진 곤의골¹³⁷⁾ 공소로 떠났다. 외인들과 떨어져서 계곡 깊숙이에 있는 이 공소는 산악 지대에 있다.(1900년 10월 26일)

60리 떨어진 물구비¹³⁸⁾ 공소로 떠났다. 산 하나를 넘어서 8일 후에는 다시 금두¹³⁹⁾ 공소에 와야 한다. 풍수원 교우들과 정 아오스딩 신부가 길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물구비에는 7-8가구가 있는데, 절반은 옹기장이들이고 절반은 농부들이다.(1900년 10월 28일)

송정¹⁴⁰⁾ 옹기 마을을 향해 50리 길을 떠났다. 양덕원을 지나 대로(大路)로 홍천읍을 지나쳐 20리를 더 가서 옹기 마을에 이르렀다. 가마가 2개인데 하나는 유약을 발

13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138)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139)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140)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라 그릇을 굽는 곳이고, 또 하나는 그대로 굽는 곳이다. 거위가 영동에서 온 교우들이다. 병에 걸린 리굴로 신부가 원주로 돌아가기 위해 공소를 중단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 그가 사망한 곳도 이곳이다.(1900년 10월 29일)

우리는 (미판독)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가랑비를 맞고 오전 내내 기다렸다. 20리에 서 말고개¹⁴¹⁾를 넘고 철분이 있는 광산 지대를 30리 걸었다. 거기에는 온통 철광인 산이 있는데, 사람들은 노천에서 광석을 캐내고 있다. 정오경에 귀의 고개를 지났다. 다행히 비는 그쳤다. 점심을 먹은 후 높은 산에 올라갔다. 소들이 산에서 널빤지를 운반하고 있었다. 이 널빤지들은 강가에서 거룻배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 거룻배들이 춘천과 서울 간을 왕래하고 있는 것이다. 주막에서 15리를 가서 나룻배로 강을 건너고 오른쪽 강가를 따라 걸어갔는데, 가끔 길이 매우 가파랐다. 그 강가를 떠나 긴 계곡을 올라갔다. 계곡의 협로를 지나니 밤이 되었다. 다행히 길이 비교적 좋았고, 또 10리를 더 가니 교우들이 횃불을 가지고 와서 7시 30분에 별로 큰 불편없이 도착했다. 우리는 110리 내지 120리를 왔다. 그중 일부는 인제 땅이다. 오후에 양구 땅 재궁골¹⁴²⁾에 도착했다. 웅기점이지만 8-9가구뿐이다. 비가 오고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에 와서 저성참례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주님께 감사했다.(1900년 10월 30일)

9시에 60리 떨어진 운수골¹⁴³⁾로 출발. 양구 북쪽으로 가는 계곡을 따라 간 다음 거의 계곡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계곡을 따라 교우들의 집과 외교인들의 집이 있었다. 모두 4개의 공소로 아들은 한 공소에 같이 모이면 거기에는 춘천 땅 가래골¹⁴⁴⁾ 공소 교우들도 모인다. 화전 농사는 올해 아주 성공적이었다. 오늘날, 강을 따라 있는 길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강물을 끌려고 세 곳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곳 골짜기에도 몇 개의 작은 논들이 있다.(1900년 11월 2일)

14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 강원도 양구군 남면 야촌리.

143)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4)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7시 40분에 **곰실**¹⁴⁵⁾로 떠났다. 60리를 가서 춘천 강을 건넜고 기나긴 계곡을 올라 가 산 하나를 넘어 40리 평야에 들어섰다. 이 평야 끝에 곰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큰 집 한 채가 있고 그곳에는 세 가족이 살고 있다. 오후에 모두 합해 10명에게 고해를 주었다. 우리는 12시간 동안 길을 걸어야 했으므로 11시 반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1900년 11월 4일)

8시 30분에 80리 거리의 웅기 마을 **중방터**¹⁴⁶⁾로 떠났다. 점심 전에 60리를 걸었다. 멀리 아름다운 팔봉산이 보였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홍천강을 건넜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웅기 마을에 도착, 저녁에 16명에게 고해를 주었다. 피곤하여 9시에 잠 자리에 들었다.(1900년 11월 5일)

10월 26일에 시작한 일정은 11월 5일까지 이어져 한 열흘 정도의 일정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순방의 경우 원주에서 홍천을 지나 양구를 거쳐서 다시 춘천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긴 순방이었다.

이 순방 기록에서는 당시 교우들의 경제 생활을 책임지는 생계수단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당시 교우들은 웅기와 화전,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송정의 경우 가마가 2개로 유약을 발라서 굽는 것과 그냥 굽는 것이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 교우들이 굽는 웅기가 다양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말고개를 넘고 철분이 있는 광산지대를 지나며 사람들이 노천에서 광석을 캐고 있다는 기록에서 이 지역에 광석이 존재했음과 당시 지역 사람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철광산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과 화천지역 일부를 순방한 뮌텔 주교는 홍천 강을 지나 풍수원을 시작으로 다시 횡성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

145)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146)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면 아래와 같다.

[자료 5]

8시 30분에 70리 거리의 풍수원으로 떠났다. 40여리를 가서 서울로 가는 길가에 (미판독) 주막에서 점심을 들었다. 거기서 10리를 더 가서 우리를 마중 나온 교우 선발대와 만났고, 곧 모든 마을 사람들과 만났다. 가라개 주막에서 잠시 쉬 후 다시 행렬을 지어 풍수원으로 향했다. 정 아오스딩 신부가 산기슭에 나와 있었다. 르메르 신부의 옛 아성으로 입성했는데, 그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1900년 11월 6일)

금두¹⁴⁷⁾ 공소로 떠났다. 그곳은 계곡에 사는 오상골¹⁴⁸⁾ 교우들도 모인다. 금두는 촌으로 그중에는 박 요셉, 함 니고나오, 김 회장과 같이 유복하게 사는 지주(地主)도 몇이 있다. 이곳에는 불쌍한 나병환자가 한 명 살고 있는데, 교우들은 그에게 산 근방에 오막살이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1900년 11월 8일)

20리 길의 도새울¹⁴⁹⁾ 옹기 마을을 향해 떠났다. 이곳 아이들은 무례하고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다. 불행히도 이것은 부모들 탓이다. 상습적인 노름꾼과 술꾼들도 여럿이 있다.(1900년 11월 10일)

10리 거리에 창봉¹⁵⁰⁾이란 새 교우촌이 있는데 주민 중 절반은 옹기장이이고 절반은 농부들이다. 도새울보다는 나아 보인다.(1900년 11월 11일)

11월 6일 풍수원으로 돌아온 뮈텔 주교는 주로 풍수원 성당 관할인 횡성 지역의 교우촌에 대한 순방을 하는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 역시 옹기와 농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횡성에서 사목방문을

147)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와 같은 곳임.

148)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149)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150)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한 주교는 평창 지역으로 순방을 시작하는데 이 일정은 8일 동안 이어진다.

[자료 6]

농촌 **항달모로**¹⁵¹⁾까지는 70리. 우리는 거기서 **말암리**¹⁵²⁾ 점 교우들도 만나게 되어 있어서 하루를 묵어야 했다. 교우들은 두 공소를 한 번에 치르도록 모든 준비를 잘하므로 비록 그들이 저녁 6시에야 도착했을지라도, 우리는 밤 성사를 주었다. 11시 반에야 잘 수 있었다.(1900년 11월 12일)

매우 비좁고 아주 불편한 공소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주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 높은 고원을 흐르는 강을 10리나 거슬러 올라가니 작은 옹기 마을 말암리였다. 교우들과 외국인들이 안 야고버와 그의 어머니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므로 나는 성사를 거절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게으름뱅이, 노름꾼이며 술꾼인 그는 아주 못된 짓을 하며 천주교를 중상시키는 나쁜 행동을 보였다.(1900년 11월 13일)

오늘 아침에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는 우리가 다음 공소인 **서내**¹⁵³⁾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산-농사짓기에는 좋은 땅으로 보인다-을 넘어 30리를 갔다. 이 고지대에는 소나무는 없고 떡갈나무만이 있다. 그것들은 서서히 자라서 마침내 상당히 큰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정오 경에 서내 교우촌에 도달했다. 나는 1882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집은 같은데 증축이 되었을 뿐이다. 노인인 문 회장은 74세의 고령에도 건강했고 그의 오소리 가족 모자가 그를 특히 돌보이게 했다. 고해자는 100명. 오늘 저녁부터 성사를 주기 시작해도 내일 하루로는 벅찰 것이다. 교우들은 가난하고 순박한, 가장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1900년 11월 14일)

다음 공소인 **향교터**¹⁵⁴⁾로 떠났다. 서내 계곡을 다시 넘어 얼마 안가니 **창목동** 교우촌이었다. 이곳 교우들은 성사를 받으러 서내로 가기 위해, 매우 험한 10리 길을 걸

151)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152)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5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154)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었던 것이다. 20리를 더 가서 향교터에 이르렀다. 저녁 때까지 40여 명에게 고해를 주었다. 이곳은 거의 평야 지대여서 교우들은 특히 논농사를 짓는다. 이곳에서 맏인 이 된 피태올의 옛 공소회장 김 베드로를 다시 만났다.(1900년 11월 16일)

30리 길인 공소로 출발. 산 하나를 넘고 운교¹⁵⁵⁾ 아래에서 서울-강릉간의 도로를 지나, 매우 높은 원당이 고개¹⁵⁶⁾를 넘었다. 다음 세 번째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 반대쪽에 물푸레¹⁵⁷⁾ 공소가 있다. 겨우 48명의 고해자와 7명의 영세자, 밤 11시에야 잠자리에 들었다.(1900년 11월 17일)

주일 11시가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하일¹⁵⁸⁾ 공소에 가려면 10리만 내려가면 되었다. 고해자는 겨우 40명 정도, 주실의 많은 남녀들이 150리 길을 걸어 이곳까지 성사를 받으러 왔다.(1900년 11월 18일)

마을 앞 평창강을 건너 10리를 내려가니 강 오른쪽에 읍내가 있었다. 거기서 한 계곡을 따라 내려갔는데 계곡에는 출굴이 여러개 있었고 그 곳에서 많은 물이 솟고 있었다. 10리를 더 가서 이 계곡이 끝나고 더 좁은 계곡이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나는 18년 전에 지나갔던 길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언덕은 몹시 가파르고 산은 매우 높았는데 그 맞은편에 산너미¹⁵⁹⁾ 공소가 있었다. 공소 집은 1882년의 것이었으나 조금 확장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바뀌었다. 저녁에 약 40명의 고해를 들었다.(1900년 11월 19일)

밤에 비가 내렸고 아침에도 가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온종일 우리를 따라다녔다. 새골¹⁶⁰⁾ 옛공소 -지금은 외인들이 살고 있음- 로 가려면 어제 첫 번째로 지나왔던 계곡을 다시 지나쳐야 하므로 어제 올라갔던 계곡을 내려갔다. 30리에서 산 하나를 넘

155)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56)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원당리.

157)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하일리 수청.

158)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하일리.

15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60)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조동리.

었는데 길이 미끄러워 내려가기가 좀 힘들었다. 새초거리¹⁶¹⁾ 큰길의 한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곳에서 10리를 더 가서 내가 1882년에 하룻밤을 지낸 바 있는 부정을 지났다. 태화¹⁶²⁾에는 교우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거기서 겨우 10리 길에서 공소 교우들과 헤어졌다. 모두 70리.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공소인 아오스딩 신부의 고인돌¹⁶³⁾ 공소에 다다를 수 있었다. 모레 나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영동의 짐꾼들이 여기서 하루를 쉬고자 벌써 저녁에 도착했다. 공소 집주인 한 이시도로는 꽤 잘살고 있으나 큰 근심거리가 있다. 그의 아들이 영세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신의 젊은 아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구실로 아내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아내를 저버린 채, 2년 전부터는 수계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900년 11월 20일)

8일이 걸린 이 순방은 황성 둔대를 시작으로 평창 일대를 주로 돌아본 것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100명이 고해를 한 교우촌인 서내가 가장 큰 교우촌으로 보이는데, 서내의 문회장은 앞서 1893년의 강원도 순방에서도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1893년 뫼텔 주교가 처음 강원도로 사목방문을 해서 풍수원에 왔을 때, 풍수원에도 방문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교우들은 주교의 순방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주교가 순방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산너미라고 기록된 교우촌은 1882년에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1882년부터 신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월에 속하는 교우촌인 주실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15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 성사를 받았다는 것에서 당시 신자들이 신부를 만나고 성사를 받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음과 더불어 신자들을

16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16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6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평리.

자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게으름뱅이, 노름꾼이며 술꾼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교우를 돌려보냈다고 하며, 그를 만나지 말 것을 신자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점은 주교가 사목 방문시 신자들의 생활에 대한 규율을 제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횡성을 시작으로 평창에서 순방을 마친 뫼텔 주교는, 정규하 신부 및 신자들과 헤어진 후에 영동 지역에서 마중 나온 신자들과 함께 영동지역에 대한 순방을 시작한다.

[자료 기]

아오스딩 신부(역주: 정규하 신부를 말한다)와 교우들과 작별한 후, 9시경에 고인들에서 안내자 한 명과 영동의 짐꾼 두 명이 우리를 수행했다. 우리는 평창으로 흐르는 고인들의 강을 30리를 거슬러 올라간 후, 작은 언덕을 넘어 정선 언뫼에 이르렀다. 20리를 더 큰길에 들어서서 진부 주막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25리만을 걷고 언덕 밑에 있는 높은 다리¹⁶⁴)라고 불리는 한 주막에서 묵었다.(1900년 11월 22일)

꽤 따뜻한 방에서 잤다. 하지만 방에다 귀리를 말리려고 널어놓았기에 몹시 눅눅했고 습기가 요와 이불에 스며들어 축축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꽤 찻다. 말을 타고 얼어붙은 시내를 건너야 했다. 말이 건너가도 얼음은 깨지지 않을 정도였다. 11시쯤 완만한 경사를 타고 대관령 꼭대기에 이르렀다. 정상에서의 영동과 강릉의 전망은 장관이었다. 바다는 이곳에서 50리, 그러나 겨우 5리 밖에 안 되어 보였다. 정확한 시간을 빨리 내려가 제민원¹⁶⁵)에 이르러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다. 거기서 또 내려갔으나 덜 가팔랐고 구산까지 10리를 더 갔다. 구산에서 우리는 큰길을 벗어나 삼

16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165)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제민원은 조선 시대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여행자 숙소이다.

정평¹⁶⁶⁾ 옛 공소로 가기 위해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다. 삼정평에는 최근에 두 명의 교우가 다시 살러 왔다. 우리를 마중 나온 그리자르 신부를 삼정평 조금 전에서 만났고 삼정평에서는 교우들을 만났다. 계속해서 길을 가서 10리에서 금광¹⁶⁷⁾ 옹기 마을에 도달했는데, 이 마을은 강릉읍에서 남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이곳에서는 약 100여명의 교우들이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옹기를 굽고 있다.(1900년 11월 23일)

교우들은 공소로 사용하고 있는 집 외에 또 방 두 개가 있는 집을 지어 놓았는데 방 하나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선교사들의 방문 때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그리자르 신부는 14일에 도착했으므로 그 방에 상당히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오늘은 64명에게만 고해를 주고 7명에게 견진을 주었다.(1900년 11월 24일)

성녀 가타리나 침례인 동시에 성신 강림 후 24번째 주일이다. 서울을 떠난 후 처음으로 나는 주교 수단을 입었다. 설사가 그치고 이제는 다 괜찮다. 오늘 아침에 높은 산에 눈이 조금 내린 것이 보였다. 평지에는 비가 조금 내렸을 뿐이고 여느 때처럼 햇빛이 나고 있다. 영동의 기온은 영서보다 온화하다. 그저께 이곳에 도착하면 감이 달려 있는 감나무를 보았고, 버드나무에는 아직 잎새가 남아 있었다.(1900년 11월 25일)

금광리를 떠났다. 오늘 가야 할 길은 80리나 되는 먼 길이라고 한다. 15리에서 강릉의 강을 건너 읍내를 지났다. 군수 김병황에게는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명함만을 보냈다. 15리 내지 20리를 가니 해변을 따라 긴 길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꽤 많은 염전을 보았다. 연곡 큰 장터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큰길을 계속해서 갔다. 인구¹⁶⁸⁾에 다다르기 전에, 양양에 도착하여 왼쪽 길로 접어들어 아름다운 계곡으로 10리 가량을 거슬러 가니 장두골 옹기 마을이 나왔다. 집은 몇 채일 뿐, 고해자도 고작 8명이었다.(1900년 11월 26일)

166)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167)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168)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30리 떨어진 다음 공소로 떠났다. 인구를 지나 동산¹⁶⁹⁾에 이르렀는데, 내가 1882년 한 일본인에게 잡혔던 곳이 바로 이 주막이다. 그 때 나는 사월에서 쉬일¹⁷⁰⁾로 가는 길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조금 떨어진 해변의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개 한 마리가 보였다. 물개를 쫓았으나 물개는 잠시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계속 왼쪽 계곡을 따라가니 10리에서 명지골¹⁷¹⁾ 옹기 마을이 나왔다. 그 곳에는 고해자가 25명 뿐이어서 어려움 없이 다 줄 수 있었다.(1900년 11월 27일)

장승골¹⁷²⁾ 공소를 향해 40리 길을 떠났다. 30리에서 강을 건너고 이어 꽤 영락해 보이는 읍을 지났다. 현재 군수는 부재 중이다. 거기서부터 왼쪽 길을 따라 작은 언덕을 넘으니 계곡이었는데, 거기에 공소가 있었고, 고해자는 15명 뿐이었다.(1900년 11월 28일)

5리 떨어진 다음 공소인 쉬일로 떠났다. 거기에는 세집뿐인데, 내가 1882년 방문했을 때의 옛 옹기점 때보다는 좀 더 잘살고 있다.(1900년 11월 29일)

20리를 가니 바닷가에 있는 정바위¹⁷³⁾ 공소였다. 그곳에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4가구의 구교우 집 외에도 1893년과 1894년경에 블라두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신입교우 몇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의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때부터 몇몇은 장 도사-도마, 석구-라는 사람이 반란 도당의 두목이 되었다. 1년 전부터 이들 도당은 수계 생활을 하지 않을뿐더러 가족들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온 줄 알면서도 그들은 내가 부를 것을 두려워하여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교우라는 명목을 악용하여 불의한 짓을 하기 위해 입교한 자들인 것 같다. 아직 수계하고 있는 여러 신입 교우들은 이러한 데서 오는 유혹에 그다지 대항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전혀 모

169)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17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파일리.

17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172)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17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르는 구교우들은 내가 본보기를 보이도록 나를 즐라대고 있다.(1900년 11월 30일)

오늘 성사를 주기 위해 어제는 쉬었다. 우리는 아침나절에 성사를 쉽게 끝냈다. 점심은 임 암브로시오 집에 초대를 받았고 오후에는 비가 한 두 방울 떨어지고 바람이 꽤 강했으나 우리는 이곳에서 5리 떨어진 영동의 명소를 구경하러 갔다. 낙산사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거기서부터 200여 미터 더 올라가 매우 오래된 암자¹⁷⁴⁾를 구경했다. 종이 상당히 아름다웠다.(1900년 12월 1일)

싸리재¹⁷⁵⁾ 옹기마을을 향해 10리 길을 떠났다. 공소 집은 따로 있었고 매우 넓었다. 거기에는 의병들이 불지르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목동¹⁷⁶⁾과 신흥¹⁷⁷⁾, 두 작은 교우촌이 있는데 각각 8명의 어른들이 성사를 받으러 이리로 왔다. 20여명의 견진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준 후, 오후에 견진 찰고를 했다. 견진 교리자들이 견진 성사를 받았다.(1900년 12월 2일)

성 방저거 사베리오 첨례. 이곳에서도 지난 봄에 두 교우 가족이 수계 생활을 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외교인 옹기 마을로 이사를 갔다. 이러한 배신행위를 보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그 책임은 불라두 신부가 사목을 잘못된 때문일까? 이런 의혹이 생겼으나 나는 감히 그것을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가 없으면 동료 신부가 보인 교훈적이지 못한 행동은 결코 여기의 신입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없는 것이었다.(1900년 12월 3일)

40리 떨어진 회악골¹⁷⁸⁾ 옹기 마을로 떠났다. 10리쯤 가서 우리는 잠시 신입 교우인 김 요셉의 집에 들렀다. 그는 서울 태생으로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순검이다. 두 형제가 다 교우인 그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지 못하게

174)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을 말함.

175)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176)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77)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7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해달라고 내게 청을 했다. 그의 집은 방 하난가 성당으로 꾸며지고 모든 것이 세심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절간을 상상케 했다. 공소에 10리 못미처 작은 광포¹⁷⁹⁾ 나루의 주막에서 잠시 쉬었다. 다음 내가 1882년에 성사를 준 일이 있는 옹기 마을 근처를 지났다. 오늘 그곳에 살고 있는 교우들이 성사를 받으러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학야동이란 농부 마을로 왔다. 공소 집은 용산 신학생 하 바오로의 형 하 방지거 회장의 집이다.(1900년 12월 4일)

영동 지방의 마지막 공소로 가기 위해 아침에 70리 길을 떠났다. 35리를 가서 읍내에 도착, 거기서 점심을 들었다. 관장에게 명함을 보냈더니 그는 주막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늙은, 지방 사람인데 그의 가족은 지금 흥천에 살고 있다. 오후에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우리는 밤이 되어서야 산두¹⁸⁰⁾ 공소에 도착했다. 이 공소는 내가 1882년 왔던 옹기마을보다 2-3리 높은 곳에 있다.(1900년 12월 6일)

하루 종일 성사를 주었다. 고해자는 80명이 좀 넘었는데, 이 곳의 옹기점과 열산¹⁸¹⁾의 옹기점, 30리의 고성 땅에 있는 오시골과 조포골 두 작은 교우촌에서 온 교우들이었다.(1900년 12월 7일)

일요일, 바람과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교우들이 떠나지 말라고 말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났다. 정말로 대단한 추위다. 오후에 고성 강가에 도착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으나 말들과 짐을 실은 두마리의 소는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뱃사공들에게 배를 끌어내고 얼음을 깨게 하기로 했다. 배 주위의 얼음이 깨지자 우리는 모두 나룻배에 올랐다. 배는 좌우 균형을 잡고, 얼음을 깨면서 전진했다. 이 첫 번째 도강은 약 20분 걸렸는데, 다음으로 말들이 건너고 소들이 건넜다. 고성 주막에는 저녁 7시경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바라던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오후에 내 가방 속을 뒤져보니, 내가 1877년부터 여행 때 가지고 다니던 잉크병이 깨져 있었다. 또한 내 회중시계의 태엽을 감을 때 태엽이 끊어졌다. 이것들이 길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건들이다. 우리는 오늘 약 70리 길을 걸었다. 고성 주막에서 머물다.(1900년 12월 9일)

179)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80)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용하리.

181)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산하리.

통천읍을 지나 보리골¹⁸²⁾ 공소에 머물다.(1900년 12월 11-12일)

비운령-안변읍-모래고개(沙峴)을 지나 두 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강성골 공소에 머물면서 이곳에 온 근피¹⁸³⁾와 그 밖에서 온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다.(1900년 12월 13-15일)

그리자르 신부 댁이 있는 내평(內坪, 安邊, 블라두 신부가 마련하여 살던 집)에 도착하여 브레¹⁸⁴⁾ 신부를 만나다. 이곳의 교우들과 이곳에 온 평강(平康)의 가래포골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다. 그리고 복골 교우들을 찾아 보다. 그리고 석왕사(釋王寺)의 스님들과도 만나다.(1900년 12월 16-19일)

11월 22일에 시작한 영동 권역의 순방은 12월 19일에 끝났는데 강릉에서 양양을 거쳐 속초, 고성, 통천 그리고 평강과 안변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평강과 통천은 현재는 침묵의 교회로 남아있는 북강원에 속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금광리가 가장 규모가 큰 교우촌으로 보이며 공소로 사용하는 집 이외에 신부 방문시에만 사용하는 다른 방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자들 대부분이 옹기를 구워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교우들이 수계생활(守誠生活)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블라두 신부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시안변에서 영동지역을 관할하던 블라두 신부가 신자들과 비교인들간의 사소한 문제들에 개입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냈음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영동지역의 경우, 강릉에서는 구정면의 금광 이외에는 다른 교우촌은 보이지 않은채, 현재의 영북 지역인 양양과 고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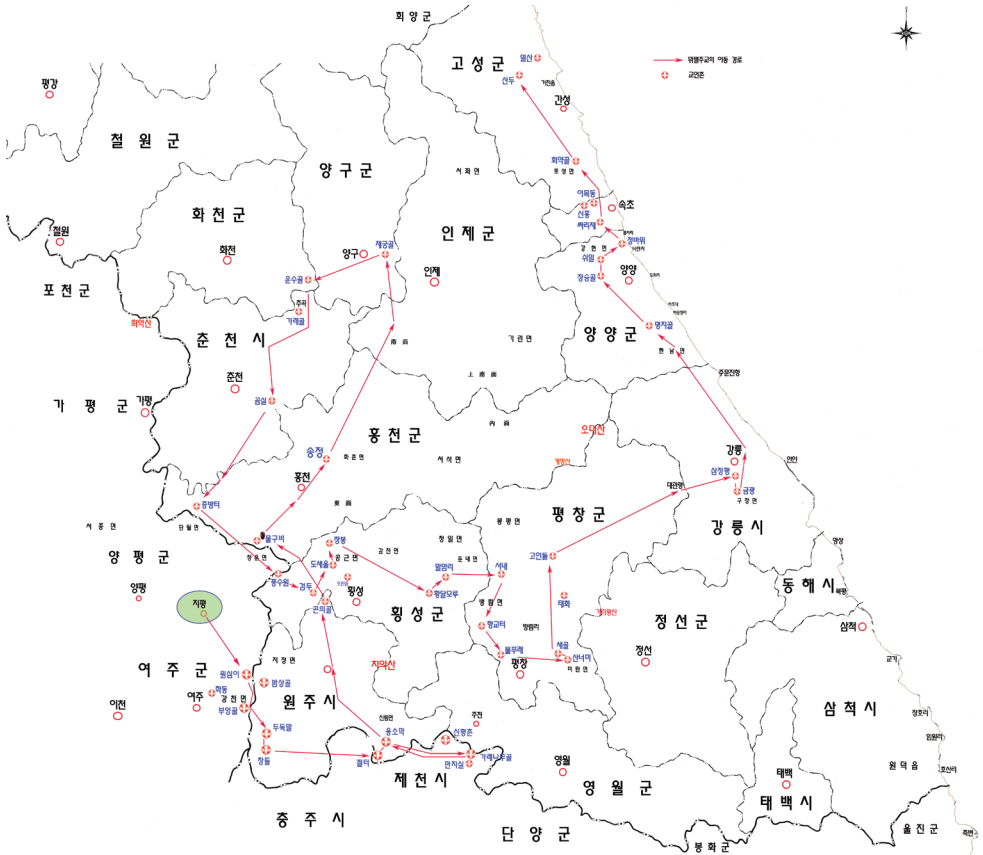
182) 강원도 통천군 학일면 하화리.

183) 함경남도 안변군 위이면 죽근리. 근피동이라고도 함.

184) 당시 원산본당의 제4대 주임 신부.

특히 동해 및 삼척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영동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확장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¹⁸⁵⁾

뫼텔 주교가 행한 1900년 순방지를 지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 그림5 뫼텔 주교 순방 강원지역 일대 교우촌(1900년)

185) 이에 대해 영동지역의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면 바닷가라는 특성에서 오는 다양한 신(神)과 그 믿음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뫼텔주교의 4번째 강원지역 순방은 1901년 11월에 행해진 것으로 철원, 김화, 평강, 이천으로 이어지는 사목방문이며 그 기록은 아래와 같다.

[자료 8]

낭천 만산이는 포천 솔모루에서, 철원 풍전, 김화 새솔막(김화 새솔막은 서울에서 210리 거리)을 지나 도착한 곳, 여기서 큰길을 뒤로 하고 오른쪽 산길로 접어들었다. 15리를 가서 점심을 먹기 위해 멈추었다. 춘천(春川) 시내의 한 교우가 40리나 걸어 우리를 만나러 왔다. 조금 더 가서 4, 5명의 교우를 만났다.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그러했다. 상당히 높은 산을 2개나 넘었다. 마지막 산의 정상에서 뒤테르트르 신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내가 1882년 처음으로 와 본 적이 있는 낭천 만산이 공소에 당도했다. 그 이래로 이곳 주민들은 모두 바뀌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공소 집이 따로 아주 적절하게 지어져 있다. 60명 가량의 고해와 3명의 영세, 15명 가량 교우의 견진.(1901년 11월 6일)

김화 구변두리 공소는 교우가 12명밖에 안되는 새 공소, 이곳을 가지 위해 낭천 만산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왔다. 공소회장은 고 요셉이며, 고 요셉의 집을 공소로 사용. 인근에 몇 명의 예비 교우가 있다. 그곳은 김화 땅의 구변두리¹⁸⁶⁾ 공소로, 읍내는 여기서 남동쪽으로 약10리 거리에 있다. 교우들 중 여러 명은 최근에 가라비¹⁸⁷⁾에서 온 사람들이다.(1901년 11월 8일)

포천 송호동(松湖洞)¹⁸⁸⁾ : 김화 구변두리에서 아침 7시 15분에 출발하여, 40리 길을 지나 11시 30분에 도착. 교우 가정은 7, 8가구로 반은 교우촌이다. 남자 영세자가 여자 영세자보다 많다. 이 공소를 시작한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체 장수들인데, 개종한 마을 농부들도 몇 명 있다.(1901년 11월 9일)

186)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의 귀변동.

187)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188)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상사리.

평강 솔모루¹⁸⁹⁾ 공소 : 25가구 가운데 9가구가 교우 집이다. 5리 더 먼 곳에 산후¹⁹⁰⁾라는 작은 공소가 있는데, 그곳 교우들은 강당이 있는 이곳으로 성사를 받으러 오게 될 것이다. 이날의 고해자 약 70명.(1901년 11월 11일)

평강 기산¹⁹¹⁾ 공소 : 거의 모든 주민들은 서로가 친척이 되고 권씨 가문에 속하고 있는데, 이 집안은 20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 이들의 개종은 7,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해마다 새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정오쯤에 당도한 우리는 오후에 약 3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공소 집은 넓고 정돈이 잘되어 있으며, 기와 지붕으로 잘 지어져 있다.(1901년 11월 16일)

견진자 26명, 고해자 30여 명, 영세자 5명, 하루 일과를 끝마친 후 일곱 광주리의 떡을 가져다가 참석한 교우들과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외국인들은 호기심에서 기꺼이 참석했고 성사 집행 때는 문밖에 있었다.(1901년 11월 17일)

평강 거릿말¹⁹²⁾ 공소에 도착했다. 회장 이 말구의 집이 유일한 교우 집이고, 그래서 거기서 공소를 보았다. 고해자 40여명, 대인 영세자 3명과 6세된 어린이 영세 1명. (1901년 11월 19일)

이천(伊川) 뽕골¹⁹³⁾로 출발. 거리는 20밖에 안되지만, 평강과 이천 두 지방의 경계를 이루는 상당히 높은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 내일 이 산을 다시 넘어와서 평강 지방에 있는 두 공소를 봐야 한다. 비가 조금 왔는데, 교우촌에 들어온 후에는 더 많이 내렸다. 여기에서 나의 복사인 김덕민 요한은 20여년 간이나 보지 못했던 그의 누이를 만났다. 고해자는 40명이 채 안되고, 영세자는 4명이다. 오후에 비가 진눈개비로 변했고 바람이 매우 세어졌다.(1901년 11월 18일)

189)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문산리.

190)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백룡리.

191) 강원도 평강군 목전면 기산리.

192) 강원도 평강군 목전면 복만리.

193) 강원도 이천군 용포면 상두리.

고비앗골¹⁹⁴ 공소에 당도했다. 오후에 15명 가량에게 고해를 주었다. 이곳 교우들은 모두 비교적 잘살고 있다. 올해 풍작을 거둔 일반 농사 외에도 그들은 인삼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1901년 11월 21일)

유진골을 향해 출발. 농부들이 역시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곳의 인삼 재배 방법은 송도(松都)평야의 재배 방식과 다르다. 다음해를 위해 그 자리에 남겨두는 1년 인삼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가을에 뽑아서 겨울 동안 옮겨 심는다. 그렇지 않고 밭에 그대로 남겨 두면 인삼이 자라지 않는다. 30명 가량의 고해자와 영세자 1명.(1901년 11월 22일)

큰골¹⁹⁵ 공소로 곧장 내려갔다. 여기서 이틀을 묵게 된다. 이곳에서 5리 가량 떨어진 곳에 섭골이란 작은 공소가 있는데, 일찍이 드게트 신부와 퀴를리에 신부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이곳에는 여러 공소에서 모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에게 고해성사를 주어야 하고 또 영세자도 4, 5명은 될 것이다.(1901년 11월 23일)

염산리(廉山里)¹⁹⁶는 상당히 넓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교우들도 많다. 성사를 보러 이곳으로 오는 두서너 개의 공소까지 합치면, 이틀 동안 약 250명에게 고해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마당 전체와 마루에는 돛자리를 깔아 놓았다. 우리는 오후에 40여 명 가량의 고해를 듣기 시작했다.(1901년 11월 26일) 온종일 우리 셋이서 약 140명의 고해를 들었다. 오후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상당히 추워졌다.(1901년 11월 27일)

60여명의 고해자. 오후에는 영세자가 3명.(1901년 11월 28일)

뮌텔 주교의 다섯 번째 사목방문은 1910년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풍수원,

194) 강원도 이천군 용포면 무릉리 일명 '무루니'.

195) 강원도 이천군 산내면 용포리.

196) 강원도 이천군 산내면 송정리. 1892년에 로 신부가 처음 정착하여 이천본당을 설립한 곳. 이곳에서 1896년에는 포내본당을 분리하였고, 1908년에는 이천 본당 자체가 염산리에서 이천읍 개하리(開下里), 일명 망담(望澗)으로 이전되었다.

용소막, 원주 본당 관할 지역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 9]

아오스딩(정규하) 신부는 10리 거리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다. 1시 반쯤 풍수원에 도착했다. 성당은, 작은 교우들이 그 앞에서 자취를 감춘 듯 계곡에 혼자 우뚝 솟아 있는 듯하였다. 이 성당은 두세 신부 성당(서울 약현)의 모방이다. 교우들이 벌써 많이 도착했다.(1910년 11월 7일)

옛 성당은 현재 학교¹⁹⁷⁾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남녀 교우 군중에 둘러싸여 식사를 했다.(1910년 11월 8일)

성당 밖을 축성한 후, 우리가 도문을 노래하는 동안 교우들은 밖에서 도문을 바쳤다. 성당은 대만원이었고 특히 앞줄들이 대단히 뻑뻑했다. 영성체자 450명, 견진자는 어제 받은 66명을 제외하고도 150명이나 되었다. 견진 예절은 10시 15분에 끝났다. 3시경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장엄한 중 축성식이 있었다. 베드로는 100엔을 기부한 종의 대부(代父)의 본명 성인인데,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성당은 예수 성심께 봉헌되었다. 대안리(太安里)¹⁹⁸⁾의 짐꾼들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1910년 11월 10일)

8시경에 대안리로 떠났다.(1910년 11월 11일) 성당에는 드브레 신부가 만든 신부방이 달려 있다. 축성해 달라고 했다. 그것은 진짜 성당이기에 성당 축성 예절로 축성했다. 성당은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미사를 드리고 38명에게 견진을 주었다. 성당 축성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상이 차려졌다. 9시 반에 20리 거리인 원주로 떠났다. 점심을 들고 이어 용소막(龍召幕)으로 떠나 5시경에 도착했다.(1910년 11월 12일)

이틀에 9건의 혼배, 43명의 견진, 5명의 영세식, 150명 가량에게 교해를 주었다. (1910년 11월 13일-14일)

197) 삼위학당을 말함. 현재 풍수원 성당 경내에 있는 양옥 교우 댁 안에 그 모습이 남아 있다.

198) 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승안동.

뮌텔 주교는 1910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풍수원을 중심으로 한 다섯 번째 방문에서 옛 성당을 삼위 학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풍수원 성당, 종, 14처의 축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대안리 공소 강당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안리 공소의 건립 연대 및 공소 강당이지만 뮌텔 주교에 의해 성당 축성에절로 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문 당시 뮌텔주교는 용소막에서 원주로 가는 길에서 낙마(落馬)하는데, 이로 인해 서울로 돌아갈 때 까지 원주 본당에서 요양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일기를 통해서 보면 당초 강릉 지방까지 사목방문을 계획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낙마로 인해 원주에서 요양을 하고, 당시 강릉에 있었던 뤼카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제 신부로 하여금 견진성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뮌텔 주교는 1912년부터 발생한 원주 성당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16년 11월 여섯 번째 강원지역 사목방문으로 원주를 방문한다. 이 방문에서는 원주 성당의 토지문제 및 제천과 용소막 소유의 토지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뮌텔 주교의 여섯 번에 걸친 사목 방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교우촌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 표 4 >와 같다.

표 4 뮌텔 주교 일기에 나오는 강원지역 교우촌

교우촌 지명	현재의 위치	교우촌 형태	비고
밤상골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학동	여주시 여주읍 오학리		
두독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부영골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3가구	
장들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7가구	

절터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용소막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용소막 성당
원주	원주시 원동		원동 성당
곤의골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산악지대	공소 현존
물구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옹기점/농부	공소 현존
송정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옹기점(가마2개)	공소 현존
재공골	양구군 남면 아촌리	옹기점	
운수골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가래골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화전	
곰실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공소 현존
증방터	홍천군 서면 증방대리	옹기점	
풍수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 성당
검두	횡성군 갑천면 상하대리		
오상골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도새울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옹기점	
창봉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옹기점/농부	
항달모루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말암리 점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옹기점	
서내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창목동	평창군		
향교터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논농사	
물푸레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수청		
하일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주실	영월		
산너미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새골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태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대화성당
고인돌	평창군 진부면 장평리		
삼정평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금광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옹기점	공소 현존
장두골	양양군 현남면	옹기점	
명지골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옹기점	
장승골	양양군 서면 장승리		
쉬일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정바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씨리재	속초시 대포동	옹기	공소터만 존재
이목동	속초시 노학동		
신흥	속초시 노학동		

회악골	고성군 토성면 학아리	옹기	공소 현존
산두	고성군 거진읍 옹하리	옹기	
열산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옹기	
오시골	고성군		
조포골	고성군		
보리골	통천군		
만산이	현재 화천		
구변두리	철원군 서면 외수리		
송호동	철원군 갈말면 상사리		
솔모루	북강원		
기산	북강원		
거릿말	북강원		
뽕골	북강원		
고비앗골	북강원		
큰골	북강원		
섭골	북강원		
염산리	북강원		
대안리	원주시 흥업면 승안동		공소 현존

2. 선교사들의 보고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뮌헨주교에게 서한을 보내서 선교활동에 대한 것도 보고하고 의문점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선교사들의 서한을 중심으로 이들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된 자료는 서울교구연보와 용소막, 이천, 그리고 풍수원에서 사목한 선교사들의 서한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영동, 영서와 산악지대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거리에 대한 것이 보이는 자료들이다.

[자료 1]

강원도 지방에는 교우들이 많지도 않거니와 거리 관계상 성사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인 영세자가 52명이고 많은 개종자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¹⁹⁹⁾

[자료 2]

나는 찾아가 보아야 할 교우수 보다, 더 많은 이(里)수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동쪽 지방의 선교사는 언제나 아주 평평하고 편안한 길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어떤 즐거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선배들이 같은 길을 돌아 다녔지만 우리처럼 안전하게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변했습니다. 여기 이 산골에는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자손들이며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인 사람들이 세상의 독기있는 숨결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²⁰⁰⁾

[자료 3]

이천(伊川) 본당에서 교우들이 모여 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신자들은 대부분 신앙의 위협을 받지 않고, 신자 생활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험준한 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신임교우들이 들어와 이 작은 집단이 점차로 커져서 계속적으로 네 개의 본당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올해 총 500여 명의 영세자를 기록했습니다.²⁰¹⁾

[자료 4]

저는 신자 수 1,500명 이상의 길이 약 100킬로미터, 넓이 60~70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곳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린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넓은 지역이지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있지만 이곳 신자들은 가난해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합니다.²⁰²⁾

199) 1884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35쪽.

200) 1890년 보고서 - 르메르 신부의 서한 부분,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86쪽.

201) 뫼텔 주교의 1900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260쪽.

202) 루게트 신부의 1904년 11월 23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79쪽.

[자료 5]

울릉도(鬱陵島)에도 천주교 신앙이 침투했습니다. 조선의 동해안에 있는 이 섬의 인구는 3,000명입니다. 육지의 신자들이 울릉도에 장사하러 가서 천주교를 전파하여 현재 50명 가량의 예비교우들이 영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 이 섬에 가기가 힘들어서 오늘날까지 어느 선교사도 그곳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50가구의 예비교우들이 100리나 되는 바닷길을 건너 보리골(通川郡 鶴一面 下花里)공소로 왔습니다. 그 곳에서 그 중 15명이 영세를 하였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목지인 강원지역내에서의 공소 및 본당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봐야 하는 신자수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다녀야 하고, 넓은 거리에 험준한 산속임을 말하고 있다. [자료 5]의 동해안에 있는 울릉도에 신앙이 전파되고 이들이 100리나 되는 바닷길을 건너 강원지역 통천으로 왔다는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에서 살펴볼 보고는 선교의 확장으로 인해 본당이나 공소가 증가하거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수치상의 보고이다.

[자료 6]

지금까지는 신자 집단이 없던 회양(淮陽)고을에 공소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4, 5년 전에 그 곳 산골에 사는 한 집안이 천주교에 대한 말을 듣고 산골사람들의 양식(良識)으로 그것이 참된 교라고 판단해서 온 집안 식구가 즉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²⁰³⁾

[자료 7]

새로운 한 본당(구역)이 르메르 신부의 구역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이는 한국인 사제, 정(鄭圭夏)아오스딩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첫 수확은 75명의 성인 영세자들이었습니다. 르 메르(Le Merre) 신부는 분할해주고 남아 있는 자기 구역에서 81명

203) 샤르즈비프 신부의 1894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1,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42쪽.

의 성인 영세자를 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옛 거처를 아오스딩 신부에게 양도하고, 강원도의 옛 도청 소재지인 원주 시내로 가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²⁰⁴⁾

[자료 8]

오래 전부터 필요를 느끼게 하던 때에 다행히 공석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양양지역 사리재에 본당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춘천 근방 고은리에 본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²⁰⁵⁾

[자료 9]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겨우 900명), 너무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1명의 신부만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본당을 신설했는데, 하나는 양양읍내이고, 또 하는 구읍(舊邑) 강릉에서 멀지 않은 여항(漁港)인 주문진입니다.

[자료 10]

두세 신부의 지시에 따라(원주) 시잘레 신부의 공소 21곳이 분리되어 8곳은(풍수원 정(규하) 신부가 4곳은(용문) 조제 신부가, 9곳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²⁰⁶⁾

위의 인용문은 강원지역에 1888년 풍수원 본당이 생긴 이래, 1896년 원주, 1920년 양양과 주문진 그리고 1921년 춘천 고은리에 본당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보고이다. 또한 1909년의 관할구역 조정은, 당시 원주 원동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시잘레 신부가 용산신학교로 전임되어가면서 본당 사목을 담당할 선교사가 부재하게 되자, 인근 성당인 풍수원, 용소막, 용문의 신부가 공소를 나누어 관리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강원지역에 천주교가 들어온 이래 본당이 분가되어 나가는 모습 및 담당 선교사의 부재(不

204) 뫼텔 주교의 1897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209쪽.

205) 드브레 주교의 1921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58쪽.

206) 프와요 신부의 1909년 1월 1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1쪽.

在) 시 서로 협력하여 사목을 담당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다음의 자료들은 사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사 집행에 대한 것이다.

[자료 11]

교우들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그리스도교 생활이 점점 더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용소막이 바로 그 경우인데, 시잘레 신부는 주일마다 80명에게, 매달 첫 금요일(첫 첨례 6)에는 160여 명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대축일에는 간신히 모든 교우들의 고해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부활절에 그는 650여 명에게 영성체를 주었습니다.²⁰⁷⁾

[자료 12]

저는 전임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교우들만으로 마을들을 이루고 사제관 주변에 그들이 무리 지어 살도록 했는지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200명의 교우들 가운데 800명 이상이 선교사를 중심으로 반경 14리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미사에 참례하러 오는 모든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저의 경당이 너무도 협소합니다. 대축일에는 4백 명 이상이 성체 배령을 합니다. (이는) 선교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광경이자, 노후한 프랑스의 신부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광경입니다!²⁰⁸⁾

[자료 13]

저의 신자들은 대축일에는 매우 열심히 나오고 있어, 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성당이 벌써 수 차례 만원사례를 이뤘습니다. 특히 부활절에는 650명 이상이 영성체를 배령하였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평균 80회의 고백성사를 주고 있는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 미사에도 꽤 많은 수의 신자들이 참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잘 결속하는 신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저의 큰 장점입니다. 저의 신자 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내년엔 다시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봄에 남쪽 지방에서 많은

207) 뮈텔 주교의 1916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35쪽.

208) 기요 신부의 1911년 4월 20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5쪽.

사람들이 올라와 용소막 인근 산들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²⁰⁹⁾

[자료 14]

이천 인근 지역의 종교적 상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천 주변에 7개의 공소가 있는데 가장 먼 공소는 이천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공소는 이천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신자들은 300명 가량이며 그들 중 250명이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이천에서 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염산리 신자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천은 제 관할 지역 가운데 거의 중심에 있는데, 염산리에서 40리, 포내에서 70리, 기산에서 60리 떨어진 곳입니다.²¹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신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크다고 생각했던 성당이 작아지고 많은 성체를 영하고 성사를 볼 수 있는 신자들이 있고 이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보고하면서도 가장 기쁨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893년 5,000명의 신자가 1922년 보고서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자료 15]

강원도의 본당에는 모두 5,000명 이상되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390명이 성인 영세자입니다.²¹¹⁾

[자료 16]

강원도 : 서울의 동부에 위치한 이 도는 인구 1,181,994명에 신자는 10,111명입니다. 이들은 8개 본당과 118개 공소에 분산되어 있는데, 선교사 3명과 한국인 신부 5명이

209) 시잘레 신부의 1916년 7월 20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93쪽.

210) 루게트 신부의 1906년 10월 29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1,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96쪽.

211) 뫼텔 주교의 1899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1, 천주교 명동교회, 1984, 242쪽.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악지방이라 교통이 어렵기는 하지만 교우들이 옛날의 열심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들의 목자들에게 어느 곳보다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1. 포내(浦內)- 공소 15개, 교우 1,774명으로 26년 전부터 이들을 맡아보고 있는 부이쑤(Bouyssou) 신부는 공소마다 경당을 갖추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 경당에는 견고한 제대와 함께 제대주변에 자그마한 내진(內陳)까지 있습니다.
2. 망담(望潭)- 공소가 20개, 교우 1,591명입니다. 포내(浦內)에 이웃한 이 본당에도 공소마다 경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본당 신부인 김(金善永)요셉 신부는 한국식으로 아름다운 성당을 새로 짓고 또 신부댁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고은리(古隱里)- 공소 19개와 교우 1,069명이 있는 이 본당은 창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성당과 동시에 김(金裕龍)비리버 신부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가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가을 사목 방문 때에 본인은 주교관을 쓰고 앉아서 견진성사를 주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천장이 너무 낮아서 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아직 임시 성당조차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개신교에서는 화강암의 예배당과 병원, 그리고 멋진 학교들을 지었습니다.
4. 풍수원(豊水院)- 공소가 17개, 교우는 1,704명인데 정(鄭圭夏)아우구스티노 신부가 26년 전부터 이곳의 본당신부입니다. 그는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연와(煉瓦) 성당과 사제관을 지었는데, 그의 교우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꽤 넓고 또 대부분의 교우들은 본당 아주 가까워서 살고 있습니다.
5. 원주(原州)- 공소가 17개, 교우는 1,467명입니다. 연와 건물인 성당과 사제관은 주임 조제(Jaugey) 신부가 소집되었을 때, 즉 전쟁이 일어난 첫해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동료 신부는 그의 교우들의 정신이 훌륭하고, 또 도처에서 일고 있는 독립 정신이 아직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세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통한 좀

더 적극적인 전교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6. 용소막(龍召幕)- 공소가 16개이고 교우 1,592명인 이 본당의 시잘레(Chizallet) 본당신부는 최근 몇 년간에 사제관과 큰 성당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루르드의 성모에서 봉헌된 이 성당은 아름다운 종과 함께 저성참례날, 즉 본인의 사목방문 때 축성되었습니다. 시잘레 신부는 1911년에 1,199명이던 것이 1921년에 1,672명으로 늘어난 발전을 본인에게 제시했습니다. 재영성체자도 1911년의 2,603명이던 것이 1921년에는 19,189명으로 늘었습니다.
7. 양양(襄陽)- 공소가 10개 교우는 691명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이 본당은 작년(연산교구 설정 후)에 설립되었는데, 그 때까지 내평(內坪)의 선교사가 방문했던 공소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당을 맡고 있는 최(崔文植) 베드로 신부는 양양읍 근처에서 발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힘을 기울여야 할 새로운 지방입니다.
8. 금광리(金光里)- 공소가 4개, 교우는 227명입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을 맡고 있는 이(李喜淵) 방지거 신부는 그의 본당 신부인 최(崔文植) 베드로 신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아직 신부택이 없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양양과 가까운 곳에 신부택을 지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경당 안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양양으로 가는 길이 아주 좋긴 하지만 그는 현재 양양에서 정말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²¹²⁾

위의 [자료 15]와 [자료 16]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899년의 기록과 1922년의 기록이다. 1899년 강원지역에 있던 5,000명의 신자는 1922년에 10,111명으로 증가하였고 어느새 8개의 본당에 118개의 공소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박해 이후 천주교가 정착되어 가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1922년 당시의 본당 중 북강원에 있는 포내와 망답을 제외하고는 현재도 존재하는 곳이다. 물론 고은리 본

212) 드브레 주교의 1922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67쪽.

당이나 금광리 본당처럼 당시에는 다른 위치에 존재하였으나 본당 교세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하여 현재의 춘천 죽림동 본당과 강릉 임당동 본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그 뿌리는 다르지 않으므로 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자료 17]

성무활동[판공] 기간 동안 저는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적어도 읽을 줄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말입니다.²¹³⁾

[자료 18]

교리교육과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산리공소를 제외하고 다른 공소에서는 교리교육과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²¹⁴⁾



▲ 그림6 북강원 이천 염산리 성당의 교리학교 (출처 : 한국교회사연구소 화보집)

위의 [자료 17]과 [자료 18]은 교리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파리의방전교회의 선교방침은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해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자치적인 교계제도를

213) 기요 신부의 1913년 4월 11일자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8쪽.

214) 뒤테르트르 신부의 1894년 5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36쪽.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물론 사제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반 교리교육에는 차이가 있으나 선교사들은 교리교육과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19]

조선에서의 대재와 소재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계란이나 고기를 언제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신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²¹⁵⁾

위의 [자료 19]는 대재와 소재에 대한 지침을 질의하는 것이다. 옛 교우촌에서는 참된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하나인 대재와 소재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육하였다. ‘재일(齋日)’이란 바로 단식 또는 절식을 하는 날을 말하는데, 소재는 작은 재 즉 육식을 하지 않는 재이고, 대재는 큰 재 즉 단식을 하는 재로서, 신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며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재와 소재에 대해서 1923년 발간된 『회장직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즉, 대재는 ‘하루에, 다만 한 끼만 먹되, 오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저녁에 조금 요기하는 것을 허락하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점심을 저녁으로 바꾸어 점심에 요기만 하고 저녁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또 소재는 ‘가축의 고기와 고기죽과 고깃국을 금하나, 계란이나 다과 종류나 음식을 준비할 때 쓰는 양념과 반찬을 준비할 때 쓰는 가축의 기름 등은 금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해가 끝나고 문호가 개방되어 사회가 바뀌어 갔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교황의 관면(寬免)으로 신자들이 재를 지키는 생활은 박해시기보다 다소 완화되어 일제강점기 때는 애궁시사(哀

215) 부이수 신부의 1896년 6월 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44쪽.

矜施舍)가 강조되어 ‘관면을 준행하는 자는 마땅히 봉재 때에 혹 애궁하며 혹 주일마다 매피 오단을 외음으로써 곁함을 기울지니라.’고 했다.

3. 성당 건축

천주교가 전래 되고 신자들이 모이는 공간은 개인 집이었다. 공소집으로 불리기도 하는 개인 집은 종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1880년대부터는 신부가 상주하는 집이 곧 성당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성당 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것은 서한에서 드러나는데 처음부터 현재의 모습과 같은 성당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서한에서 보인다.

[자료 1]

르메르 신부는 꽤 편리한 사제관을 지은 모양이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순 조선식 경당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²¹⁶⁾

[자료 2]

저는 성당 하나를 지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산속 주민들은 이 일을 위해 놀라운 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동 설한에, 높이 쌓인 눈속을 헤치고 산속의 여기저기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을 잘라 맨팔로 끌어다가, 소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와서, 또 저의 마당과 작은 밭으로 운반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온통 나무들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마치 산이 통째로 제 집에 내려와 앉은 것 같습니다. 이제 유급 목수와 석공들이 성당을 거의 완성해 놓았으므로 농사 일에 지장이 없었던 우리 신자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²¹⁷⁾

216) 뮌텔 주교의 1891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03쪽.

217) 뮌텔 주교의 1895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63쪽.

[자료 3]

용소막(龍召幕)에서 본인은 신자들이 기부금을 내어 지은 아주 아담한 성당을 축성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 간소한 모습의 이 성당이, 그 설비와 이루는 대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²¹⁸⁾

[자료 4]

조제 신부가 있는 곳에서 나는 6, 7년 전에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인 한 중심지에 건축한 조그마한 경당을 축성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풍수원의 성당은 본격적인 성당으로서 정(鄭圭夏)아우구스티노 신부가 개축한 것입니다. 이 성당도 나의 방문시에 축성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종의 세례식과 이중의 십자가의 길을 설치하는 일로서 끝을 맺었습니다.²¹⁹⁾



▲ 그림7 풍수원 성당과 정규하 신부, 1919년 (출처 : 한국교회사연구소 화보집)

[자료 5]

가을에 강원도 북쪽 지방으로 사목 방문을 갔을 때 본인은 부이수 신부가 그의 본당에 세운 넓고 아름다운 성당을 축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의 조제 신부가 신축한 성당도 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본당신부가 전쟁으로 떠나 공석중이어서

218) 뷔텔 주교의 1901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280쪽.

219) 뷔텔 주교의 1911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80쪽.

좀더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²²⁰⁾

[자료 6]

강원도 산간지방을 순시했습니다. 방문해야 할 곳은 김 요셉 신부와 부이수 신부의 두 본당이었습니다. 첫째 본당에서 본인은 루르드의 성모에게 봉헌된 새 성당을 축성했습니다. 그 성당은 한옥으로 된 꽤 넓은 것이어서 주일 신부 바로 근처에 사는 교우들을 위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교의 순시로 첫날부터 너무 작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본당 관할 사방에서 온 226명의 견진자들을 위해 마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해야 했습니다.²²¹⁾

[자료 1-6]에서 보이는 성당의 건축형태는 작은 경당이거나 순 조선식 경당이라고 하여 한옥식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지로 1886년 조불 수호조약이 조인되자 프랑스 선교사들은 교회와 인연이 깊었던 곳이나 그 부분의 땅을 사들여 성당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양식의 성당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서울, 인천, 대구 등지의 대도시에서만 국한되었을 뿐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한옥을 변조해서 쓰거나 한옥을 모방해서 지은 과도기적 성당 건축이 지배적이었다.

[자료 7]

대성당[근사한 바실리크 양식의 성당]을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용소막 본당이 현대적이면서도 저의 교우들이 주일에 모두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성당을 갖게 되길 희망합니다.²²²⁾

[자료 8]

교우들에게 가지못해 약간의 이례적이긴 하지만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220) 뤼텔 주교의 1914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22쪽.

221) 드브레 주교의 1923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84쪽.

222) 기요 신부의 1913년 9월 15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9쪽.

밭일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이들[교우들]이 성당 건축을 위해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당 건축 시간은) 미사 때인 오전 9시 반경부터 정오까지를 규정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밭일이 좀 한가해지면, 그리고 주교님께서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보다 일찍 허락을 철회할 생각입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초석들이 놓여졌습니다.²²³⁾

[자료 9]

저의 성당 건축은 차츰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흠집이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수들은 지붕에 판자들을 놓고 있고, 석공일은 이제 종루의 일부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석공들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도록 프와넬 신부가 저의 사제관 도면을 계약서와 함께 돌려 보내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²²⁴⁾

[자료 10]

제가 피정을 떠나기 전에 신축 중이었던 성당의 기둥과 대들보가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당 신축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어 성모승천대축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 성체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의 충실한 신자들은 한 번에 삼, 사백 명이 함께 할 수 있고 멋지게 잘 지어진 성당을 자랑스러워 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²²⁵⁾

[자료 7-10]에서 보이듯이 늘어난 신자수에 비해서 경당은 너무 협소했기 이는 성당 건립 계획으로 이어졌다. 신자들은 성당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과 목재들을 조달하였다. 목재 운반은 계속되었고 붉은 벽돌은 가마를 만들어 직접 구워냈다. 모든 신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며 성당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교회의 전례형식과 전통 한옥의 만남을 통

223) 시잘레 신부의 1914년 6월 22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82쪽.

224) 시잘레 신부의 1914년 8월 27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82쪽.

225) 뒤테르르 신부의 1895-96년도 사목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1,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74쪽.

해 토착화를 시작하였던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맞이하자 본연의 전례 형식을 수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성당 건축 양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이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관할하였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중세의 신학 사상과 신념 체계를 잘 반영한 고딕 양식을 교회 건축의 최고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천주교에 대한 오랜 탄압 끝에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자 개항장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당을 건축할 때 고딕양식을 지향한 벽돌조 양식 성당이 추구되었다.²²⁶⁾

4. 학교 설립과 성영회

선교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천주교회는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활동은 한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들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이었고 이들은 선교 방침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자료 1]

성성에서 여러분들을 이들 지역에 주교로 파견하게 한 주요한 이유는 젊은이들을 교육 시켜서 사제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주교직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언제나 이 목표를 염두해 두고

226) 김정신, 『한국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45쪽.

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성직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를 세워서 무료로 라틴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말로 천주교의 교리도 가르치십시오. 교우들 중 누구도 외교인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육성해야 합니다.²²⁷⁾



▲ 그림8 배론신학당 전경 (출처 : 한국교회사연구소 화보집)

이러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창립 정신은 파리외방전교회가 선교지역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 성직자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파견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1836년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가 신학생으로 마카오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과 더불어 일반 교육도 중시하였다.

하지만 천주교회가 근대식 학교를 설립한 이래 초창기의 학교들은 일정

227)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53~54쪽.

한 교과목 편성 없이 학교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교과목이 선정되어 설립 초기 천주교회의 학교가 어떠한 교과목을 가르쳤는지 확인되는 자료는 없다. 다만 전라도 되재 본당에서 설립한 일반 근대학교인 태극계명학교(신성학교의 후신)에서 한글, 산수, 화학, 물리, 지리, 국사 등을 가르쳤으며, 북강원의 이천본당에서 설립한 삼애학교에서는 지리, 역사, 수신, 국어, 산술, 일어, 미술, 체조 등을 가르쳤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²²⁸⁾

학교 설립은 당시 한국의 사회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병운동과 더불어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면서 사립학교의 설립은 애국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각처에서 교육기관이나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천주교회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서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

게다가 주교님께 저희 공소에는 서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학교를 제외하고 보고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곳에는 신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가 3곳 있습니다. 한 학교는 세림 공소에 위치하며 학생은 4명이고, 다른 한 학교는 만산이 공소에 위치하고 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신자들로부터 빈축을 산 교사가 떠났기 때문인데 지금 그 교사는 제물포에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학교는 냉골에 있고,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²²⁹⁾

228) 윤병훈,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가 한국 근대교육기관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8, 112쪽.

229) 뒤레르르 신부의 1893년 5월 2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9쪽.

[자료 3]

올해 저의 마을에 학교용 가옥을 한 채 지었습니다. 학생 수는 12명에 불과한데 신자들이 너무나 가난하여 교장에게 줄 돈이 없어 제가 학교장에게 매달 업전 5냥을 주기로 하였습니다.²³⁰⁾

[자료 4]

이천에는 '일진회' 소속 개신교 신자들이 2년 전에 '학교' 하나를 세웠고 작년에 두 개의 학교를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 군수가 또 다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의 신자들은 천주교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²³¹⁾

[자료 5(자료 4에 대한 뮌텔 주교의 답변)]

학교 설립은 필요하지만 신부님의 사목 지역이든 다른 어느 지역이든 시급한 사안은 아닙니다.

-중략-

참을성도 부족하고 확고한 목적도 없어 일 년 전 열렬한 환영 속에 서둘러 문을 열었던 많은 학교가 지금에 와서는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주인이 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절차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서 적합한 좋은 신자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고, 자격을 갖춘 훌륭한 비신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학교라 일컫는 학교가 있지만 젊은이들은 대부분 공립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공립학교를 선호합니다.²³²⁾

[자료 6]

부이수 신부와 저는 학교 설립 시 비신자들의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평강의 저의 신자들과 부이수 신부의 신자들은 비신자 학교들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어려울 때 분쟁의 원인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동참하겠다는 그 신자들의 돈만 받기로 결정하고 비신자들의 돈은 받

230) 뮌텔트르 신부의 1898-99년도 연말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99쪽.

231) 루게트 신부의 1906년 12월 3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99쪽.

232) 루게트 신부의 1907년 1월 1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02쪽.

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중략-

모든 점을 충분히 생각한 뒤 저희는 주교님의 지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염산리에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보다 힘든 문제는 교사를 구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²³³⁾

[자료 7]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학교 설립에 관한 서적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10월 초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51명인데, 5~6명은 비신자입니다. 앞으로 비신자 학생들이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교사는 기산에서 영세를 받은 신자인데 과학 과목이 좀 약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잘 가르치고 있고 여러 면에서 매우 훌륭합니다.²³⁴⁾

[자료 8]

현재로는 관청으로부터 학교 설립 허가를 별 문제없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²³⁵⁾

[자료 9]

최근에서야 군수가 문교부 장관에게 제가 신청한 기산과 솔모루의 천주교 학교 인가신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군수의 책임입니다. 솔모루 학교의 경우 재정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음에도 솔모루 신자들은 재정 보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 공소가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공소의 신자들은 백 명이 넘습니다. 망담의 학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상에 등록된 학생수가 67명인데, 애석하게도 오메 걸린 학생들은 그들의 집으로 떠났고 나머지 아이들은 강제로 예방 치료약을 먹도록 조치했습니다.²³⁶⁾

233) 루게트 신부의 1907년 1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05쪽.

234) 루게트 신부의 1908년 12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13쪽.

235) 루게트 신부의 1909년 1월 15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17쪽.

236) 루게트 신부의 1909년 2월 25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21쪽.

[자료 10]

저희 학교는 이 달 초하루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수는 대략 40명 안팎인데 그들이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저희 지방 학교로서는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교부 장학관이 이번 겨울에 저희 학교로 시찰을 나온다고 합니다. 장학관의 시찰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는데 교사들은 장학관이 시찰 나올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 시찰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진 책자를 서울에서 구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일 서울에서 그 책을 구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 그 책을 보내주실 것을 주교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결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주교님께서 그 책을 구하시면 “명의회교”로 보내주십시오.²³⁷⁾

[자료 11]

학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으로부터 평강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없으므로 기산 학교를 ‘공립학교’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고 기산 학교를 현재의 천주교 학교로 유지하겠다고 관청에 서신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중략- 언젠가 그렇게 될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나요? 신자들은 슬모루나 망담 학교와의 통합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²³⁸⁾

[자료 12(자료 11과 관련된 뮈텔 주교의 답변)]

기산 학교는 천주교 학교로 인가받았으니 교과 과정 안에 종교 수업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산 학교가 공립학교가 되면 종교 수업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천주교 학교를 설립한 취지와 어긋납니다. 그런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나서야 합니다. 종교 학교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립학교로의 변경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인가를 받은 천주교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신자들이 낸 지분을 서로 나눠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²³⁹⁾

237) 루게트 신부의 1909년 9월 19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25쪽.

238) 루게트 신부의 1911년 12월 27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1쪽.

239) 루게트 신부의 1911년 12월 3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4쪽.

[자료 13]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망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망담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 현재 28명 밖에 안되는데 그 중 13명은 비신자의 아들들입니다. 옛날의 열정은 사라져가고 게다가 올해 수확이 좋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을 아이들만 남게 될 듯해 걱정이 많습니다.²⁴⁰⁾

[자료 14]

학교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망담 학교 한 곳만 남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기산학교는 일반 학교가 되었습니다. 솔모루 학교는 일반학교와 통합되었고 관청의 관할로 넘어갔습니다.²⁴¹⁾

위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북강원인 이천과 망담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해당 지역의 학교 수, 학생 수 및 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문제 등 학교에 대한 제반적인 상황을 보고하는 서한이다. 이천 지역에서 활동한 루케트 신부는 학교 설립에 대한 의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뮌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교 설립을 허락해줄 것을 청하면서,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서한을 통해서 보면 루케트 신부는, 처음에는 비신자들의 자금을 활용하여 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하였으나 뮌텔 주교에게 학교 설립에 대한 허락을 받은 뒤에는 비신자들의 지원 없이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1907년 삼애학교(三愛學校)를 개교하였다. 하지만 학교 설립 이후에는 교사(教師)를 구하는 문제와 학부(學部)의 승인을 받기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서한에 드러나고 있다. 이에 1907년 개교했다가 개명한 삼애학교뿐만 아니라 1908년 승

240) 루케트 신부의 1912년 4월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6쪽.

241) 루케트 신부의 1914년 4월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93쪽.

희학교(崇熙學敎)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부의 승인을 받아야했으므로 이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루게트 신부는 1908년 6월에 개하리 망담으로 성당을 이전하고 10월에 학교를 개교했다고 서한을 보냈다. 학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받으려고 한다고 보고했다. 이천본당(망담)의 학생수는 51명이라고 하는데, 시골 본당의 학생 수로는 적지않은 숫자이다. 그러나 당시의 추세와 관련하여 비신자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루게트 신부는 이것도 선교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제는 1908년 8월 26일에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였다. 사립학교의 제반규정을 내용을 하는 전문 15개 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또 성향이 불량한 자를 교사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교과서 가운데 통감부의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 종교학교 운영자 중 통감부에 반감을 가진 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규정도 명시하였다.²⁴²⁾

교회는 교육사업과 더불어 아동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교세통계표에서 볼 수 있다. 당시 강원지역을 담당했던 파리의방전교회의 선교 방침 중 하나인 아동에 대한 복지와 관련하여 성영회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한국에 성영회(聖嬰會 또는 嬰孩會)가 소개된

242) 1900년대의 사립학교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1910년 ‘한일합병’ 전후에 발간된 學部나 조선총독부 등의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學事統計』(明治 43年度)나 『統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教育」 그리고 『舊韓國官報』1910년 8월 13일자 「學事」에 소개된 통계자료가 사립학교의 현황을 알린다. 또 일본에서 발행한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조선편)을 분석해야 한다. (최기영, 「韓末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교육 규모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報』 70, 1992, 26쪽의 각주6을 재인용) 한국 근대학교의 성립과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최기영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자료를 섭렵하여 시도하였다. 일제 통감부와 총독부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조선사회를 통제하였다. 이 논문은 당시 「경향신문」이나 「경향잡지」를 인용하는 단계에서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것은 1852년 말 한국에 도착한 메스트르 신부에 의해서였다. 그는 1854년 경부터 형편이 어려운 어린 아이 및 버려진 아이들을 신자 가정에 맡겨 양육하도록 하고 대세(代洗) 줄 사람을 임명하는 등 성영회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1854년 10월 22일에는 성영회 본부에 편지를 보내어 한국에서의 성영회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영회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킨 사람은 조선대목구의 4대 교구장인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였다. 1856년 성영회 본부로부터 6,000 프랑의 지원을 받은 베르뇌 주교는, 이듬해 8월 2일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教諭示諸友書)』라는 사목 서한에 ‘영해회 규칙’을 첨부하여 각 지역에 있는 공소로 보냄으로써 성영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베르뇌 주교의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教諭示諸友書)』에는 ‘영해회 규칙’ 외에 1886년에 필사된 『미과수원(美果收園)』에 수록되어 있는 성영회 규칙이 있다. 성영회 규칙은 ‘영해회 규칙’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성영회 사업은 각 지역을 맡고 있던 신부들의 책임하에 공소 회장 중에서 성영회장을 정해 고아들의 선정 및 관리를 맡기고 각 공소회장들이 그 지시에 따라 성영회 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1923년에 간행된 『회장직분』에는 성영회 사업이 신자들이 낸 자선금으로 유지된다고 되어있는데 선교사들의 서한에 보이는 성영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15]

올해 저는 우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세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와 저는 학교를 짓고 신자 아이 6명과 비신자 아이 1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는 신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원주지역의 가장 흥미있는 점은 Sainte-Enfance(예수성심학교)를 통해 유지되어 온 아이들의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104명이 고아원을 통해 길러졌고, 그 중 14명은 사망했기에 현재 남은 아이들의 수는 90명입니다. 원주 인근의 천주교 신자 가정의 아이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예수성심학교 학생입니다.²⁴³⁾

[자료 16]

신자들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것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소유한 토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결점이 있다면 아이들을 예수성심학교에 맡겨 원가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에도 신자들은 109명의 아이들을 성심학교에 맡겼습니다.²⁴⁴⁾

여기서 말하는 예수성심학교(Sainte-Enfance)는 성영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영회는 1843년 파리에서 올봉 장송(Holbon Janson)이 창설한 고아 구호 단체로서 죽을 위험에 처한 아이에게 대세(代洗)를 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양육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 17]

성영회 회원 목록(1924년 4월 25일)

성영회 아이들²⁴⁵⁾

문 아가다	1909년 4월 10일생	1909년 4월 11일 영세 받음.
안 마리 마르가리타	1909년 2월 7일생	1912년 4월 14일 영세 받음.
진 마리아	1917년 2월 11일생	1917년 2월 17일 영세 받음.
신 테클라	1914년 1월 22일생	1915년 10월 22일 영세 받음.

243) 드브레 신부의 1901년 6월 4일 서한, 연구책임자 소장.

244) 드브레 신부의 1902년 5월 25일 서한, 연구책임자 소장.

245) 정규하 신부의 1924년 5월 1일자 서한에서도 풍수원 지방에 있는 聖嬰孩會의 고아들의 실황이 보고되고 있다.

홍 루치아	1909년 6월 23일생	1916년 4월 9일 영세 받음.
김 모니카		
권 헬레나	1910년생	1914년 3월 31일 영세 받음.
박 루치아	1909년생	1913년 10월 26일 영세 받음.
최 루치아	1909년 7월 7일생	1912년 10월 23일 영세 받음.
김 루치아(기혼)	1908년 4월 13일생	1912년 1월 17일 영세 받음.
정 바르바라(기혼)	1909년 2월 20일생	1914년 3월 8일 영세 받음.
박 아가다(기혼)	1909년 11월 26일생	1914년 3월 8일 영세 받음.
김 데레사	1917년 8월 31일생	1920년 5월 26일 영세 받음.

[자료 18]

제 관할에 속해 있는 성영회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는 단 두 명뿐입니다. 이 곳으로 오기 전부터 구루병으로 아팠던 어린 소년 한 명과 또 다른 어린 소녀 한 명입니다.²⁴⁶⁾

[자료 19]

1897년 2월까지 성영회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전부 4명인데 12세를 넘는 남자 아이들은 성영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정성껏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는 편이며 여자 아이들의 경우 사람들은 서둘러 혼인을 시키고 있는데 성영회에서 아이들을 볼보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돈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중략-

이 가족은 가난하지만 헌신적이고 신심이 깊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²⁴⁷⁾

위의 [자료 17]은 1924년의 보고인데 이러한 성영회 아이들에 대한 보고는 정규하 신부의 보고 이외에 다른 선교사들의 서한에서도 보이고 있어 당시 전국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 같다. 자료를 보면 맡겨진 아이들 중 13-14세가 되는 남녀 아이들은 서로 짝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며주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

246) 뒤레르르 신부의 1898-99년도 연말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99쪽.

247) 부이수 신부의 1899년 6월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80쪽.

로도 생각된다. 성영회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은 가난하지만 헌신적인 그리고 신심이 깊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선교회가 원하는 교육과 선교 방향에 적합한 곳을 찾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5. 선교사들이 소개하는 신자들에 대한 미담(美談)

선교사들은 서한에서 각 공소나 본당의 미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미담의 소개는 표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고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자료 1]

1866년 박해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난 김 마디아는 더 마음 편하게 교회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 마음의 영감을 따르기 위해 산골로 피해 왔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게 하는 일 자체도 고립되고 일체의 관계를 급작스럽게 끊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그는 천주교인 집단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교우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서적과 그 밖의 종교에 쓰이는 물건을 잃었기 때문에 험사리 대세에 질질 끌려 가서 하느님과 자기 영혼을 잊고 본분을 버리며 천국을 이 세상보다 못하게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이 세월 동안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을 권한 적이 절대로 없었고, 죽기 전에 언젠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성사의 은혜를 마련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살고 집안도 먹여 살리기 위해 마디아는 그가 피난해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출한 서당 훈장 노릇을 했습니다. 이 동네는 주실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조선의 다른 궁벽한 지방과 마찬가지로 서울 소식이 비록 많이 왜곡되기는

해도 언제나 결국 들어오야 합니다. 2년 전 가을에는 조그만 장소에 소식이 많이 들어와서 떠들썩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야기 뿐이었는데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의 옷이 어찌니 조선 예절과는 동떨어진 허술한 저 사람들의 태도가 어찌니 하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각기 그것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선 사람들은 무자비 하고 또 금방 평가를 내립니다. 서양 사람들 이야기도 자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전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서양인들은 항상 제일 낮게 취급 되었습니다.

김 마디아는 이 이야기에서 민중의 소문으로 전해지는 흔한 소식 이외의 것을 보았으니, 그것이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계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서양인들 중에 예전에 순교한 신부들을 대신하러 온 새 선교사들이 있지 않을 것인가? 틀림없이 그분들이다. 새로운 목자들은 언제나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진하고 믿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장 쓰기 시작했는데, 그 주소라는 것이 '신부님께 드리는 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이었는데, 그 화살이 하느님의 마음을 맞췄던 모양입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 스무 살 먹은 청년 한 사람이 외교인이었으나 그날로 교리를 배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 가지고는 그 편지를 전하겠다고 하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서양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낮이 선데다가 균중들이 오가는 가운데에서 좀 어리둥절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갈 지를 몰랐습니다. 물어보고 망설이고 찾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하다가 다행히도 사람들이 가리켜 준 어떤 곳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편지를 손에 든 채, 성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기 뭣하러 온 거야"하고 통명스럽고 무시하는 태도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뭐고, 어디서 왔나? 저는 이런 곳에서 왔고, 이름은 홍 성식이라고 하는데, 서양인들 집에서 공부할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하고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걸봉을 읽고 되읽고 '신부'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했습니다. 주소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기가 개신교들의 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당황한 젊은이는 그의 늙은 스승이 선교사들에 대해 말해 주었던 것과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더 다행스런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둘째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여

전히 같은 실패였으니, 그 사람들도 개신교도이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보고는 그들 모두가 깔깔대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통역 중의 한 사람이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청년을 거만하게 쫓아내면서 “총각, 자네가 집을 잘못 찾았네. 자네가 찾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진고개로 가보게, 그러면 아마 자네가 찾는 것을 찾아낼 걸세”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약간 창피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희미한 희망의 불빛은 가지고 거기서 물러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는 진고개 가는 길을 물었는데, 섭리의 마련으로 그가 만난 첫 번 사람이 교우였습니다. 그 사람은 친절한 태도로 “날 따라오게. 내가 직접 자네를 인도해줌세. 나도 그 쪽으로 가는 길이었거든”하고 말했습니다. 15분쯤 걸어가서 그 사람은 갑자기 당가 신부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네가 들어가야 할 곳이 여길세”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대접을 해주는 것을 보고 젊은이는 이번이야 길을 잘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와넬 신부가 그 편지를 읽고 사건이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심부름꾼을 즉시 주교님께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고생과 모험에 충분한 위로와 보람을 받고, 그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과 지시에 크게 감격해서 이 젊은이는 마디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20일 후 내가 산 넘어 공소에 들렀을 때에 스승과 제자를 알게 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김 마디아는 60여 세가 된 사람으로 온화하고 겸손하며 말수가 적은 교우입니다. 그의 태도에는 어디에나 존경과 위엄을 풍기는 무엇이 있습니다. 수인사를 한 후에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흐뭇한 추억이 가득차서 그는 내 말에 오직 흐느낌과 눈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갈망하던 성사를 받고 서울에서 돌아온 뒤 밤낮으로 세례 준비를 한 자기 제자의 대부가 되기도 한 이 착한 노인은 그 이튿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와 작별을 했습니다. 그는 내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죽음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주실을 떠나 어떤 교우촌에 가서 자리잡을 뜻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며 오히려 그가 사는 동네의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라고 권했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다음 가을에 내가 직접 가서 그에게 성사를 주고 그가 가르쳤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겠노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큰 성공을 거두어 지금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지경이고 각자가 여기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업을 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영원히 찬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²⁴⁸⁾

[자료 2]

지금은 세례를 받은 노파 정 마리아가 있습니다만, 이 노파는 반소경이고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도 교리문답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말마디 하나 바꾸지 않고 외게 되었습니다. 이 노파가 문답 외는 것을 듣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아직 예비 교우에 지나지 않을 때 내게 처음 인사를 와서 이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나는 늙고 반소경이요 반귀머거리입니다. 예수 마리아 상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는 예수 마리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컷 볼 수 있도록 제대에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예수 마리아가 똑똑히 보입니다. 이 분들은 내 눈 앞에 늘 모시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기 그 분은 이 늙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서까지도 갖가지 은혜를 내려 주신 모양이어서 세월도 이 노인을 아껴주는지 그렇게 늙었는데도 아직 정정합니다.²⁴⁹⁾

[자료 3]

양양 고을을 지나다가 본인은 이 아무개라는 젊은 선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무슨 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건강을 돌보려고 그 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천주교에 대한 말을 듣고 본인을 보겠다고 청했는데, 천주교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이내 취해졌습니다. 책을 몇 권 주었더니 보름 후에는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테파노라는 본명을 받았는데, 그는 육체의 건강을 얻으러 왔던 곳에서 자기 영혼을 위한 참된 교리를 얻어 만나게 해주신 것을 오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확야골에서 본인은 한 노인도 만났는데, 이분은 세상의 재물이 넉넉하고 또 매우 영리하여 그의 늙은 날의 유일한 의지가 될 스무살쯤 된 아들에 온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불운한 사건으로 그는 거의 전 재산을 잃었고, 그보다도 더 비통한 일로는 아들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지치고 정이 떨어져서 그는

248) 블랑 주교의 1889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1, 천주교 명동교회, 1984, 80~83쪽.

249) 르메르 신부의 1893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1,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32쪽.

그 때 하느님과 천국 쪽으로 눈길을 돌렸고, 자기가 세상의 기쁨을 빼앗긴 것을 보고 적어도 천국의 기쁨은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본인은 도비아라는 본명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느님과 원죄없이 모태에 배이신 동정녀의 덕택으로 그의 사건이 차차 타결이 되어서 오늘 그가 잃었던 재산의 일부를 도로 찾았을 뿐 아니라 아들이 귀양살이에서 풀려 나와 공소의 어린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²⁵⁰⁾

[자료 4]

늙은 부인, 젊은 색시, 나이 어린 처녀가 사형 집행자들과 그들의 형벌을 비웃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빨리 머리를 잘라 달라고 재촉하며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고통속에서 그렇게 깨끗한 정신과 용기를 지니기란, 또 신념 속에서 그러한 대담함과 굳은 지조를 지키기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보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연약한 여성들이 이러한 미덕을 보여줄 때,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탄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동학군들도 이 신앙고백자들의 용기와 대담함을 거듭 칭찬하니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문을 받고 있던 한 늙은 여교우는 생명을 구해줄테니 배교하라는 강요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다. 비겁한 말 한마디로 근 70여년간 애써 쌓아온 결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천 번이라도 죽는 편이 낫지.’ 그러자 이러한 싸움에 지친 망나니 두목은 그의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 부인이야말로 하느님을 마음으로부터 흠송하는 자가 아닌가. 그녀의 포승을 풀어주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이상 더 강요해 봤댔자 소용도 없으니까’
또 하나 뜻하지 않았던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경중을 막론하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고 박해받았던 신자들 약 2,000명 가운데 단 15명만이 배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두명은 매우 한심한 상태였지만, 나머지는 나약한 말 때문이었을 뿐 곧 자발적인 통회보속으로 속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²⁵¹⁾

250) 샤르즈뵈프 신부의 1894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44쪽.

251) 르메르 신부의 1895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72쪽.

[자료 5]

어느 날, 한 개신교 신자가 열두살 난 어린 아이를 만나 그가 가톨릭 신자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에 이 개신교 신자는 말하길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숭상한다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숭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라고 어린이는 대답했습니다. 이단자는 반박하기를 ‘마리아를 숭상해서는 안된다. 그 증거로 이 비유를 들어봐라. 귀리를 심어봐라. 귀리는 썩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줄기뿐이다.’ ‘당신 어머니도 썩었나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셨겠군요!’ 어린이가 대꾸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당황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천성이 수줍고 별로 교육도 받지 않은 아이였습니다.²⁵²⁾

위에서 소개한 미담들은 사실 그대로의 기록일 수도 있고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담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는 하였지만 교리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생활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순수한 신자들의 이야기이다. 선교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돌아봄의 계기를 가지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52) 부이수 신부의 1900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천주교 명동교회, 1984, 269쪽.

—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V 분쟁의 발생 - 교안(敎案)

1886년 조불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은 합법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 활동은 교우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교우 수의 증가는 선교정책의 변화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즉, 1889년에 프랑스 공사 블랑시(Plancy)는 천주교의 큰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선징악을 권고하는 것에 있으니 국민들에게 신앙생활을 허용해 주고 교인들에 대한 처벌 법령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⁵³⁾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동서 각국의 종교는 같지 않으므로 전교를 허락하지 않으며 원래대로 금지할 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블랑 주교는 교회 재건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블랑 주교의 뒤를 이은 뫼텔 주교는 1891년 부임하여 1895년 고종을 알현하였고, 이는 정부 관료와 지방 관리들에게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253) 天主教原屬光明正敎 其大意勸人爲善懲惡 亦如大清國 先皇帝道光一律 自願恩准 貴士民行使奉事天主 並特傳習 天主教 今尙有科罪律條 全行刪除 是所至禱也 爲此照覆 請煩查照可也(『舊韓國外交文書 - 法案』124號).

의 위상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뫼텔주교의 선교정책 역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교회의 이익과 교회를 보호하며 적극적인 교세확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종교분쟁에 적극 관여한 것이다. 교회의 내실화 및 교회재건의 완결을 위해 선교사들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종교 분쟁에 있어 천주교 박해와 선교사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프랑스 공사가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보호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프랑스 공사와 프랑스 선교사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천주교인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불조약에 의한 치외법권, 영사 재판권, 전교의 자유 및 보호의 규정 등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 관할에서의 문제 발생시 천주교는 조선국 관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신부가 임의로 재판하여 교민들에게 형벌을 주거나 사면을 해주기도 하였다. 결국 천주교회는 이러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 조선의 향촌사회에서 특권집단이 되었다.²⁵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외교인들 사이에 대립이나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교회 및 선교사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외교인들에게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천주교인들도 나타나게 되었다.²⁵⁵⁾ 이렇게 각 지역에서 발생한 교인과 지방관리·토

254) 박찬식, 「韓末 敎案과 敎民條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연구 27, 2006, 56~60쪽.

255) 『뫼텔주교 일기』, 1900년 11월 30일자에는 “20리를 가니 바닷가에 있는 정바위 공소였다. 그곳에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4가구의 구교우 집 외에도 1893년과 1894년경에 볼라두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신입 교우 몇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의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때부터 몇몇은 장 도사 라는 사람이 반란 도당의 두목이 되었다. 1년 전부터 이들 도당은 수계생활을 하지 않았던더러 가족들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온 줄 알면서도 그들은 내가 부를 것을 두려워 하여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교우라는 명목을 악용하여 불의한 짓을 하기 위해 입교한 자들이나 것 같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착주민 사이의 분쟁을 교안(敎案)이라고 할 수 있다.²⁵⁶⁾

일반적으로 조불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886년부터 1910년까지 교안이 발생하는 시기로 인식하는데 강원지역은 1886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 기간 동안 29건,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 1건의 교안이 발생하여 총 30건이 발생하였다.²⁵⁷⁾

또한 교안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선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및 비방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학 및 의병들의 교인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선교사가 전통사회와 전통사회의 관습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선교사들의 힘을 뒤에 업고 교인들이 작폐를 보임으로써 발생하는 유형도 있다.²⁵⁸⁾

1. 1886년 조불조약부터 1904년 러일전쟁 시기 교안

1886년 조불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박해와 교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 정부와는 달리 원산에서는 조불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1887년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데다가 지방관의 횡포까지 겹쳐서 원산본당의 초대 신부였던 드게트 신부는 관

256) 이원희, 「강원지역 교안(敎案;1886-1910)의 발생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2010, 251쪽.

257) 이원희, 위와 같음, 260쪽.

258) 교안의 유형별 분류는 이원희, 『江原地域 天主教史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에서 인용하였다.

가에 체포되어 서울로 호송 당하는 신세를 지게 되었다. 당시 조불조약으로 인해 호조(여권) 없이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의 관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여 드게트 신부를 추방토록 명하였다.²⁵⁹⁾ 드게트 신부는 관청에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호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고 오히려 위협을 받기까지 하였다.

[자료 1]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5명 가량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이 낭독되는 동안에 20명 가량의 불량배들이 울타리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보고 듣고는, 원산으로 돌아가 터무니없는 소문과 험악한 중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저의 집이 습격당하고 포위되고 공격 당했습니다.

- 중략 -

저는 감옥에 갇혀 옥살을 듣고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던 것입니다.²⁶⁰⁾

드게트 신부는 저항이 지속될수록 교인들에게까지 약탈과 핍박을 당하게 될까 염려되어 관리의 명령에 따라 서울로 호송되기로 했다. 2개월 이후 그의 거주권이 인정을 받게 되어 원산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원산의 교인들은 집이 약탈당하고,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원산 밖으로 추방되기까지 하였다.

이른바 드게트 사건은 안변 성당의 교인들과 담당 신부인 르메르 신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드게트 신부의 추방이 알려지자 안변의 교인들도

259) 1887년 초 드게트 신부가 호조를 발급받고 원산감리에 전할 외아문 관문을 가지고 원산에 도착하여 관계관을 제시하였을 때, 원산감리는 이것을 받아보기를 거부하고 “당신은 조약에 따라 좋게 있을 것이다. 우리 고을의 백성은 내가 다스리는 바다” 라고 오만하게 대하며 일면 관의 위세를 과시하니 드게트 신부는 중앙정부의 공문인 관문을 던져놓고 나왔다. 『뫼텔 문서』 1887-20)

260) 드게트 신부의 1887년 10월 6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1,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32쪽.

외교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²⁶¹⁾

이 외에도 당시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어린아이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마신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는데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발생한 교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93년 횡성교안이다.

[자료 2]

아침에 르메르 신부의 파발꾼, 횡성의 홍효백과 안준문 두 사람이 당치 않게 그를 중상모략하였으며, 지금도 그 주변 사방에서 그를 중상하고 다닌다고. 나는 그 신부에게 여기서 신부가 옳다는 인정을 받게 해줄 방법이 없노라고 대답했었다. 이 대답이 그를 몹시도 실망시켰다. 그 때문에 그는 나에게도 프와넬 신부에게도 편지를 보냈으며 프랑댕씨에게까지 청원서를 보냈다. 불행히도 그가 보낸 서류는 확실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프와넬 신부가 나를 만류하였고,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르메르 신부에게 그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게끔 서울로 올라오라는 편지를 보냈다.²⁶²⁾

횡성교안은 1893년 횡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르메르 신부가 강원도를 여행하다 홍효백과 안준문에 의해 횡성에서 부녀자를 겁탈하고 임신시키자 약을 먹여 아이를 낙태하게 했다는 모함을 받은 사건이다. 뫼텔 주교는 이 사건을 프랑스 공사관과 공조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인 프랑댕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61) 르메르 신부의 1888년 연말보고서에는 ‘이 소식은 번개처럼 빨리 번져나가, 강상골의 부상(負商) 두목은 한 고우한테 많은 돈을 받아낸다는 구실 아래 30명 가량의 부상들을 이끌고 와서 그 교우를 붙잡아 가혹하게 매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똑같이 얻어 맞았습니다.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I, 28쪽)

262) 뫼텔 주교의 1893년 2월 12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10쪽.

[자료 3]

프랑댕씨의 방문. 부어 사건에 있어서 독판에게 받아낸 편지에 대해 그를 치하하고, 곧 르메르 신부를 부르러 보낸다. 르메르 신부의 사건을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²⁶³⁾

[자료 4]

프랑댕이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게 소송사건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 프랑댕씨를 방문. 관자는 황성 현감에게 전해졌으며 현감이 그 사건을 맡기로 약속하였다고. 프랑댕은 자신이 직접 그를 만나보고 오는 길이라며 그는 모든 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약속하였다고 한다.²⁶⁴⁾

[자료 5]

정오에 우리 16명이 공사관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가다. 독판은 초대에 응해 놓고서 1시까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자야말로 교활하고 약속빠른, 절대로 함부로 마음을 터놓아서는 안 되는 진짜 동양사람이다. 그는 르메르 신부의 소송사건을 화제에 올리며 흥과 안은 무고하니 석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모두들 태연한체 하려고 애쓰며 적어도 그 죄인들이 서울로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고 한다.²⁶⁵⁾

[자료 6]

생송 씨의 방문, 곧이어 프랑댕씨의 방문. 르메르 신부의 소송사건 때문이다. 이 선교사는 황성 현감에게 공사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두 죄인이 독판의 명령에 의해 이미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내게 편지로 알렸고, 내가 그 편지를 프랑댕씨에게 전한 것이다. 그는 독판에게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취한 이유를 물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방도를 생각해내기는커녕 나에게 독판을 변호하러 왔다. - 종략 - 회합을 이룩해야 할 프랑스의 공사가 이런 위인이라니.²⁶⁶⁾

263) 뫼텔 주교의 1893년 2월 27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14쪽.

264) 뫼텔 주교의 1893년 3월 23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20쪽.

265) 뫼텔 주교의 1893년 4월 24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27쪽.

266) 뫼텔 주교의 1893년 5월 10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32쪽.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뫼텔 주교와 르메르 신부는 홍효백과 안준문이 석방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석방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판을 만났지만 그가 시간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쾌함을 나타내었고 이것은 동양인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독판 뿐 아니라 프랑댕 공사 역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뫼텔 주교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약 3달여 동안 진행된 이 사건은 결국 두 죄인 홍효백과 안준문이 석방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황성 출신 홍재구가 쓴 『정속신편(正俗新編)』이란 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재구는 이 책에서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훔치고 시체를 파내어 약재를 만든다”고 썼으며 위정척사론과 천주교 및 서양기술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록하기도 하였다.²⁶⁷⁾ 홍재구는 경기도 양평에서 활동한 조선말기 대표적인 위정척사론자이며 홍효백과 안준문은 그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서양인에 대한 위정척사론자들의 배척정신을 바탕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교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선교사가 교인과 외교인 사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마찰을 일으킨 교안도 있다.

[자료 기]

지난 6월 28일 저녁, 하루종일 고해를 듣느라 지친 신부는 사리재 부근의 한 외교인 마을에 바람을 쐬러 갔다. 그를 따라 나온 교우들 중에 정바오로라는 자가 신부와 함께인 것을 기회삼아 어느 외교인에게 150냥의 빚을 청구하였다. 이 외교인은 곧 이 사일(李事一)이라는 하급 양반을 찾아 나섰고, 이 양반은 그 서양 사람을 욕하며 그

267) 이원희, 「강원지역 교안(教案:1886-1910)의 발생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2010, 265쪽.

를 죽여버리겠다고 나섰다.²⁶⁸⁾

이런 일이 생기자 블라두 신부는 하인들을 시켜 이사일의 집 문을 부수라고 시켰으며 이를 안 이사일이 양양 부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양양 부사는 정바오로를 잡아오라고 하였고 블라두 신부가 이를 막고 읍내로 나가 부사를 따로 만나게 된다. 부사는 신부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하여 조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 뒤 블라두 신부를 싸리재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던 이 사건은 이사일이 블라두 신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복잡하게 되었다.

[자료 8]

예상했던 대로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다. 2일에 그는 강릉으로 가려던 길에 중간에서 이사일이 그를 기습하여 죽이려고 300명의 관속과 부상을 매복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던 길을 되돌아와 싸리재로 다시 왔다. 그는 서울로 오고 싶었지만, 교우들이 ‘신부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죽습니다’하며 그를 붙잡았다. 더구나 이 가없는 교우들이 신부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켜 신부도 몹시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²⁶⁹⁾

이 일이 있은 후 블라두 신부는 프랑댕 프랑스 공사를 통해 뫼텔 주교에게 자신을 구출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간청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뫼텔 주교는 일련의 사건들을 프랑댕 공사에게 설명하였고 프랑댕 공사는 외아문에 이 일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외아문은 오히려 양양의 도문동 주민들이 블라두 신부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블라두 신부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왔다. 이에 프랑댕 공사는 항의

268) 뫼텔 주교의 1893년 7월 5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43쪽.

269) 뫼텔 주교의 1893년 7월 6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44쪽.

를 하였고 결국 독판은 새로운 관자(關子)를 작성하여 이사일을 처벌하라고 명하였으나 양양부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자료 9]

저녁에 프랑댕씨의 방문. 블라두 신부 일로 외아문에 다녀오는 길이란다. 양양부사가 가지각색의 고발 내용이 담긴 긴 진술서를 보낸 모양이다.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댕씨는 우리를 변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쪽 말을 더 잘 믿을 사람이다. 그는 관자 한 통과 블라두 신부를 서울로 불러서 사건을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사일도 역시 불러올린단다.²⁷⁰⁾

위의 내용을 보면 블라두 신부에 대하여 양양 지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뫼텔 주교 역시 블라두 신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다.²⁷¹⁾

[자료 10]

오후 늦게 양양 사건에 관한 관자 도착.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서울에 올라와 사건을 해명하고 자신을 변호하라는 지시와 함께 블라두 신부에게 보내다.²⁷²⁾

[자료 11]

11시 반에 프랑댕씨의 방문. 그는 독판에게서 이사일이 다시는 양양에 돌아오지 않

270) 뫼텔 주교의 1893년 7월 30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48쪽.

271) 뫼텔 주교 일기 1893년 7월 5일자에서 “……우리로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하고, 관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교우들에게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과, 그런 고장은 찾아갈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자꾸 일으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좋으련만!” 이라고 쓰여있다. 이후로도 블라두 신부는 6차례의 교안에 관련되어 뫼텔 주교에게 주의를 받게 된다.

272) 뫼텔 주교의 1893년 7월 31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50쪽.

으리라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얘기한다.²⁷³⁾

1898년 고성 교안은 고성군 거주 김녀(金女)가 같은 군의 장석조(張錫祚)에게 답(畓) 16두락을 매입하는데 1897년 가을에 장석조의 매부 홍경모가 문권을 위조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천주교인을 동원하여 김녀를 쫓아냈다 하므로 그 전후 사실을 프랑스 공사에게 알렸으니 군수를 법식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다. 고성군수 이희인은 1898년 7월 16일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료 12]

외부의 훈련에 의거 조사하는데 장석조와 홍경모 등을 불러 조사하더니 장석조는 출두하지 아니하고, 조사한 결과 김녀에게 토지문권을 환급하는 것이 합당한 듯 하였으나 천주교 교사(敎師)가 군에 와서 전담을 홍경모에게 환급하라고 소란을 피우므로 인하여 세(勢)가 불리해 마지못해 응하였다.

즉 블라두 선교사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한 홍경모 및 교인들을 타일러 토지를 김녀에게 전해주라 결론 내려졌으나, 블라두 선교사는 이 말을 듣지 않은 것 같다. 위에 언급한 양양교안의 해결 과정에서 뫼텔 주교는 그의 일기에 “자신의 호전적인 기질 덕분에 이 가없는 신부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 결과로 교우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²⁷⁴⁾ 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블라두 선교사가 또 다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개입함으로써 홍경모와 김녀 및 홍경모와 관(官)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273) 뫼텔 주교의 1893년 10월 7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61쪽.

274) 뫼텔 주교의 1893년 7월 5일 일기, 『뫼텔주교일기』1,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43쪽.

즉, 당시 ‘양대인(洋大人)’이라는 인식하에 치외법권적인 존재였던 선교사가 개인간의 송사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에게 선교사 및 서양 세력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블라두 신부는 한국을 떠났지만 안변, 낭천, 양양 등지에서 사목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선교사의 사건 개입 및 신자보호가 이후의 선교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안은 선교사와 외교인들 또는 교인과 외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으나 특정 집단 즉 동학도 또는 의병들과의 사이에서도 교안이 발생하여 교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자료 13]

동학도들에게 약탈을 당한 횡성의 교우들은 도둑맞은 재산을 돌려받게 되기를 원했지만 군수도, 감사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전에 내무대신이 지방 당국자들이 거절하는 재판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기에, 나는 그에게 호소를 했었다. 교우들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교우들에 의해 제출된 청원서는 두 차례나 내아문의 답변도 없이 되돌려 보내져 왔다.²⁷⁵⁾

뫼텔 주교의 일기에는 동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당시 지역의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꾸준히 동학도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동학도들의 활동 상황이거나 그들에 의한 교인들의 피해 상황 등이다.

정규하 신부의 서한에는 “산너미 공소의 어떤 여신도들은 의병들이 활동했을 때, 드러나게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믿음에서 이탈했었는데, 그들이 떠

275) 뫼텔 주교의 1895년 6월 3일 일기, 『뫼텔주교일기』1,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329쪽.

를 지어 몰려와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공과책(기도서) 하나 없는데, 이유는 의병들이 모든 책, 상본, 목주 등을 다 빼앗아서 불 속에 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²⁷⁶⁾ 거나 “고인돌로 사목방문을 나갔을 때, 어떤 외교인 남녀가 저와 신자들을 능욕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서양 사람이 해마다 자기 신도들, 특히 부인들을 방문한다고 찾아오는데, 부인들이 각자 곱게 차려입고 그 서양 사람이 머무는 집을 들락거리니, 필경 모두 더럽혀졌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다는 기록²⁷⁷⁾도 나오고 있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의병이 가지고 있던 여성관 즉, 삼강오륜이 지배하던 사회에 형성되어있던 여성관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성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의병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정규하 신부의 서한²⁷⁸⁾이 그것이다.

[자료 14]

많은 의병이 유력자(有力者) 앞에 중재를 서라고 저를 괴롭히는데, 그들은 제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가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그들은 제게 엄포하면서 제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의 [자료 14]는 의병들이 천주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

276) 정규하 신부의 1897년 2월 7일 서한, 『풍수원에서 온 편지-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40쪽.

277) 정규하 신부의 1897년 2월 7일 서한, 『풍수원에서 온 편지-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40쪽.

278) 정규하 신부의 1907년 12월 11일 서한, 『풍수원에서 온 편지-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108쪽.

교사를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역의 교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병과 관련된 것은 많지 않은데 관련이 있는 것도 의병들이 교우들에게 돈이나 총을 내어놓을 것을 강요하거나 내어놓지 않으면 고문을 하는 경우, 성당이나 사제관을 파괴하고 약탈을 하는 경우의 사료는 있으나 의병이 선교사에게 권력자를 교섭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정규하 신부의 서한에서 나타나는 의병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라 하겠다. 의병이 선교사를 권력자로 인식하였음은 1896년 5월 11일자 『뫼텔주교 일기』에 “의병들이 누구냐고 묻자 그(부이용 신부)는 프랑스 선교사라고 답했더니 무사히 통과시켜 주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²⁷⁹⁾

교안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천주교인들의 작폐로 인한 교안은 조선의 향촌사회에서 특권집단이 된 선교사들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교하거나 스스로를 특권집단으로 생각하여 외교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형태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교안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북주산(福主山) 방화 사건을 들 수 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뫼텔주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료 15]

박주산²⁸⁰⁾ 사건 때문에 드 플랑시 씨를 보러 갔었다. 그러나 수감자들의 부모와 친척들이 고발된 교우들의 17개 죄목²⁸¹⁾에 대해 항변이나 반박서를 제출하지 않는

279) 이원희, 「강원지역 교안(教案:1886-1910)의 발생 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2010, 276~277쪽.
 280) 『뫼텔주교 일기』에는 박주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보고서 등을 보면 ‘북주산’이 맞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는 『뫼텔주교 일기』에 표기한 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281) 1) 鄉曲에 거주하며 경작하면서도 호포전 및 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죄 2)유부녀를 임의를 탈취한 죄 3)삼강오륜을 어긴 죄 4)행인을 공연히 구타한 죄 5)수절과부를 겁탈하고 그 재산을 빼앗은 죄 6)타인의 규중 여자를 奪取한 죄 7)사재를 갖지 아니한 죄 8)낮에 큰길에서 사람을 때리고 곡식을 탈취한 죄 9)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천주학을 배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타한 죄 10)鹿獵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녹용을 빼앗은 죄 11)彼黨 중

한 여기서는 그 사건을 다룰 수 없다.²⁸²⁾

[자료 16]

박주산의 교우 두 명이 또 왔다. 그들에 의하면 김화의 수감자 8명은 다른 곳, 아마 충청도로 이송되었을 것이라고 한다.²⁸³⁾

[자료 17]

박주산의 교우들이 범부대신에게 항의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드 플랑시씨가 범부대신에게 그 항의서를 전달하고 또 그에게 어제의 부탁을 이야기하도록 그것을 플랑시 씨에게 전하러 갔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흥분했다. 그의 의견은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일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외교단의 단장은 누가 될 것인가? 멕시코 전권 대사인 웨베르 공사는 자신이 단장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조선의 전권 공사인 일본 공사 하라는 자신이 단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²⁸⁴⁾

[자료 18]

마침내 범부대신이 박주산의 사건에 대한 회답을 했다. 춘천 군수에게 그 사건을 조사하고, 또 이를 위해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진위를 조사케 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졌다.²⁸⁵⁾

박은봉이 한문 훈학 선생을 구타한 죄 12)獵虎 砲手를 결박하고 그 호피를 탈취한 죄 13)村中에 왕래하면서 동인의 처를 바꾸려 한 죄 14)村閭의 산천 치성일에 殺狗作한 죄 15)아이를 생산한 집에서 殺狗作 害한 죄 16)村閭 庶民 중 개화에 不肖한 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죄 17)무고한 촌민에 하여 私門에서 악형을 가한 죄(蚕谷里民이 錄上한 天主學人 등 罪目記)

282) 뫼텔 주교의 1896년 7월 23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92쪽.

283) 뫼텔 주교의 1896년 7월 26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93쪽.

284) 뫼텔 주교의 1896년 7월 27(미판독)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94쪽.

285) 뫼텔 주교의 1896년 8월 13-14일 일기, 『뫼텔주교일기』2,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95쪽.

북주산 방화 사건은 천주교인들이 사는 두 동네를 외교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습격하여 방화한 피해자인 가톨릭 교인들이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도리어 가톨릭 교인들이 투옥되었던 사건이다. 위의 기록에 나와 있듯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주산의 교우들이 법부대신에게 항의서를 보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부대신이 교체되고서야 해결되었다. 프랑스 외무부문서에 1896년 12월 28일 프랑스 공사 블랑시가 파리의 외무부 장관 등에 보낸 문서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19]

장관님, 지난 10월 25일 본인이 불법적으로 투옥된 불쌍한 기독교인[가톨릭교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법부대신 한규설 장군에게 비공식적인 조치를 위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강원도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두 마을을 공격한 자들이 가옥 37채를 불태우고 13채를 무너뜨리거나 약탈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방 군수는 폭도들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회복되고 이 지방의 선교사 2명이 기독교인[가톨릭교인] 7명과 함께 이웃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관리는 마을을 약탈했던 사람들의 항을 받아서 고소하러 온 9명을 투옥시키고 고소를 철회할 때까지 곤장을 치도록 명했습니다. 투옥된 자들이 관리의 요청을 거절하자 군수는 결국 이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약탈했던 자들은 좀 더 쉽게 죄를 벗기 위해 가장 엄한 처벌이 주어질 범 죄 17건을 지어내어 기독교인[가톨릭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는 조사를 전혀 벌이지 않고 개종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고소장을 읽는 절차만을 거쳐 처벌했습니다. 법부대신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지만 본인은 또다시 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한장군이 교체되고 지난 공문(제43호)을 통해 알려드렸다시피 조병식이 임명되면서 본인은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사흘이 지나자 투옥되었던 가톨릭 교인들을 석방하고 파괴된 가옥을 재

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²⁸⁶⁾

위의 기록들만을 살펴본다면 외교인들의 방화로 인한 교인들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건들을 살펴보면 단순 방화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 춘천부관찰사서리참서관(春川府觀察使署理參書官) 정봉시(鄭鳳時)가 1896년 7월 1일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보고한 문서

강원도 김화군 남면 문수동 및 낭천(현재 화천의 옛 지명) 복주산(福主山)에 거주하는 천주교인 김치서 등이 소장을 제출하여 이르기를 본(本) 군(郡) 천곡(呑谷)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자신들의 가옥 50여 호를 방화하였다고 하므로 해당 동리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천주교인들의 작폐가 심한 까닭에 그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해당 천주학인들의 작폐를 기록하여 제출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살펴본 이후에 처분해 주길 바랍니다.

B. 1896년 철원군수가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

천주교인들의 17가지 작폐행위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인 방화범이 지역 주민인지 의병부대 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천주교인의 작폐죄목에도 불확실한 것이 많으므로 존위(尊位) 이주석(李周石)과 소재(所任) 이명우(李明右)를 감옥에 가두고 천주교인 중 박은봉(朴殷鳳)과 박도영(朴道永)은 17가지 죄목에 가장 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역시 감옥에 가두기로 하다. 그리고 춘천부 징역 죄인 8명 중 김치서(金致西)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특별히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모두 방송(放送)하길 바란다.

C. 1898년 강원도 낭천군수(狼川郡守) 김문수(金汶秀)의 보고서

1896년 동학도들이 낭천군 복주산에 모여 사는 천주교인들의 집을 불태웠으므로 집값을 동리인들에게 나누어 요구하는데 지순이(池順伊)가 엽전 1,000냥을 내지

286) 이원희, 「강원지역 교안(教案:1886-1910)의 발생 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2010, 257~268쪽 인용문을 재인용하였다.

않고 미루자 김치성(金致成), 윤경문(尹京文) 등이 1898년 3월 지순이를 잡아 순교청(巡校廳)에 가두고 처분을 기다렸다. 지순이는 나이가 많고 또한 춘궁기에 많은 돈을 낼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약 150냥을 낸 후 보석 상태로 순교청에 있었는데 그가 3월에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지순이를 순교청에 고발한 윤경문, 김치성들에게 혐의가 두어졌다.

위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북주산의 방화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천주교인들의 17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주교인들이 작폐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뮌헨 주교는 교우들의 항의서에 의해 프랑스 공사, 중앙의 관료에게 방화범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고 프랑스 공사 블랑시는 힘을 써서 방화범을 처벌하고 투옥되었던 천주교인들을 석방하도록 하고 실지로 석방되고 파괴된 가옥을 재건하도록 명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당시 천주교회 및 프랑스 공사가 선교사 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향촌사회 뿐만 아니라 중앙 관료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⁷⁾

이 외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안이 또 있는데 1900년 이천교안(구당사건)이다.

[자료 20]

강원도 이천 구당마을은 김가 집성촌입니다. 5년 전에 이 마을 김만섭은 그의 친척 김주하에게 자신의 집과 밭을 엽전 이천냥에 팔았습니다. 이 집은 김씨 집안의 종갓 집입니다. 구당 마을에 저의 신자 8가구가 살고 있고, 그 이웃 마을에는 17-18 가구의 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넓은 장소를 물색하다가 저는 공소 명의로 가옥 한 채와 주변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98년 겨울 초입에 엽전 1,750냥을 주고 김주하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김만섭은 그

287) 이원희, 「강원지역 교안(教案;1886-1910)의 발생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2010, 270쪽.

집과 땅을 되팔라고 요구하였는데 제가 거절하자 그는 군수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임 군수는 제가 그 집을 신자들을 위해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섭과 그의 친척인 김순하에게 그 집에 있는 신자들을 치우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종략 - 이달 11월 12일 사목 방문차 구당 마을에 가서 매입한 땅에 지은 경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하를 불러 미신을 믿지 말고 천주교 신앙인의 의무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 종략 - 제가 거듭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에 저는 순하에게 이 집에 모셔두었던 신자들을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두차례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신주가 들어있는 방으로 갔는데 그는 신주를 들고 나갈 생각은 하지않고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밀치고 버선 신은 발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순하는 신주들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더니 신주들을 그 곳에 내려놓은 다음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 종략 - 그 다음날 11월 13일 밤에 만섭의 부인이 혼자 저의 집 마당에 들어와 한동안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 욕을 하다가 지쳐 그 여자는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11월 14일, 저 부녀자들이 나에게 왜 그런 심한 욕설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의 하인이자 만섭의 삼촌인 김순식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만섭과 결탁하여 이 집을 되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경당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뒤로 제가 부르지도 않았던 연로한 그의 부친 김양하가 따라 왔습니다. 도착한 순식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저에게 하대하며, 왜 자기를 불렀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반말을 해댔습니다. 저는 반말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 저에게 반말을 하기에 그의 따귀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에게 반말을 해대 그에게 제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급기야 제 여권을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황제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그에게 주시시키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여권을 집어 그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의 여권을 마구간 여물통에다 던져 버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권을 도로 집어들고 이 여권은 나에게 필요없으니 너의 집에 보관하라고 말하기 위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권을 그의 집에 두려고 장소를 살펴보았지만 적당한 곳이 없어서 여권을 들고 다시 경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순식은 그의

둘째 아들인 응섭이와 며느리 한 명과 함께 저의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식은 저에게 며느리를 때렸느냐고 묻고는 저에게 욕을 하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며느리라는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중상모략이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경당 안까지 쫓아와 욕설을 해대며 주먹을 쥐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머리를 수차례 들이댔습니다. 두 번은 피했지만 한차례 왼 편 옆구리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 애비는 달려들어 저를 넘어뜨리려고 제 발을 잡아 당겼습니다. 제가 넘어가지 않자 제 발에 수차례 박치기를 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순식의 며느리는 긴 끈을 자신의 목에 걸더니 경당 안으로 들어가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에 있던 한 여자 예비신자가 달려와 그 끈을 풀었습니다. 순식의 아들인 응섭도 목을 매어 자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신자들이 제지 시켰습니다.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응섭은 화를 내며 달려들어 끈으로 저를 때리고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벽에다 머리를 박아댔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며느리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바탕 난리법석을 벌이고 나서 순식은 밖으로 나가 저희 대문 아래 계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돌을 집어 들더니 담벼락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당 안에 있던 저와 저의 하인, 복사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돌을 던졌습니다. 저희들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들이 던진 돌을 맞았습니다. 신자들은 저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중략 - 마침내 저와 순식은 같이 이천 군수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0리 반 정도를 갔을 때 비신자 마을 사람으로부터 이천 군수가 서울로 올라가 지금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군수가 이곳에 없으니 어찌할 것이냐고 묻기에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마을 촌장에게 가서 이야기 하자는 순식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천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자는 제안과 죄수에게 가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헤어져 저는 주막으로 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먼저 들어 온 순식은 저의 집 문을 부수고, 저녁을 먹으며 그의 친한 친척들에게 경당 부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친척들과 함께 경당과 경당 안 집기도 다 부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외무 대리공사께 알려드립니다.²⁸⁸⁾

이처럼 이천교안은 외국인 선교사 뒤테르트르 신부의 전통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신으로 간주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은 뒤테르트르 신부의 보고서와 뮌텔 주교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료 21]

저는 방문해야 할 공소가 아직도 열 곳이나 있어 서둘러 저의 공소로 돌아가야 하지만 서울에서 이 일이 만족스럽게 끝나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르페브르씨는 제가 보낸 서류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서울의 외무독판에게 보냈습니다. 보낸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 합니다.²⁸⁹⁾

[자료 22]

두세 신부가 평리원까지 뒤테르트르 신부를 동행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르페브르씨의 안내를 받았다.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뒤테르트르 신부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²⁹⁰⁾

위의 기록에서 뒤테르트르 신부는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즉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서울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외무독판에게 보내었고 곧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천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288) 뒤테르트르 신부의 1900년 11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 연구소, 2015, 117~118쪽.

289) 뒤테르트르 신부의 1900년 12월 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 연구소, 2015, 122쪽.

290) 뮌텔 주교의 1901년 4월 16일 일기, 『뮌텔주교일기』 3,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 46쪽.

[자료 23]

드 플랑시씨가 뒤테르트르 신부 사건의 재판문에 대한 그의 항의에 관하여 대신이 회답한 것을 가지고 왔다. 요컨대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첨가되었고, 따라서 결론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²⁹¹⁾

위의 기록에서 언급된 중요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의 서한을 통해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알 수 있다.

[자료 24]

이 달 16일 서울의 고등 법원은 구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이 그들의 권한을 다 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김순식은 경당을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다시 지어야 하며 올해 음력 7월 전까지 끝내야 한다. 그리고 경당 파손, 손실과 관련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둘째, 김순식은 그의 집 안 신주들과 그것들이 놓여있는 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셋째, 김순식은 조선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이 16일 재판관들이 판결한 세 가지 사항들입니다.²⁹²⁾

그러나 김순식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자 경당을 다시 지었는데 그마저도 대충 지었으며 신주가 들어있는 방은 그대로 내버려 두기까지 하였다. 구당 마을의 경당은 신임 군수가 오고 뒤테르트르 신부가 신임 군수에게 여러 편의 서한을 보내고 나서야 새로이 짓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발생한지 약 1년 뒤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블라두 신부는 1893년에 안변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한 뒤 1899년까지

291) 뷔텔 주교의 1901년 5월 12일 일기, 『뷔텔주교일기』3, 1993, 한국교회사연구소, 51쪽.

292) 뒤테르트르 신부의 1901년 4월 2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1, 춘천교구 교회사 연구소, 2015, 123쪽.

사목활동을 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교안 중 7건의 교안에 크고 작게 관련되어 있다. 임기 기간 내내 교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교사의 힘에 의지하고자 개종하는 주민들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선교사의 개인의 자질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³⁾ 그는 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인과 외교인과의 분쟁에서 여러 번 무력 사용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부임 초인 1893년부터 뫼텔 주교로부터 종종 주의를 받았다.

러일전쟁 이후인 1907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1건의 교안이 발생하는데 천주교를 따르고 서양인과 교분을 맺었다는 이유로 교인의 하녀를 납치한 사건에 신부가 개입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교안은 지역의 감찰사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개입한 신부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교안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인들의 양대인 즉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²⁹⁴⁾ 게다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이용하여 외교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모습과 교인들의 말만 믿고 분쟁에 개입하여 오히려 사건을 크게 키우는 일도 왕왕 있어 선교활동에 영

293) 이원희, 『江原地域 天主敎史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91쪽.

294) 뫼텔 주교의 1891년 보고서에도 선교사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우리에 대한 외교인들의 심적 경향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양반 계급과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외국인들이며, 그들이 순전히 조선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수세기 전부터 가져 오는 불신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기쁘고 기분 좋겠지만은 여론을 감히 거역하지 못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을 더 무서워하는 서울에서 특히 심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오래전부터의 편견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천주교라는 이름이 하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에 그렇게도 많은 불행을 가져오게 한 종교를 오늘날 탈없이 신봉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종교적인 정신으로 조선 사람은 가정의 미신에 매우 집착해 있습니다. 미신을 버림으로 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를 가졌을 예비교우에 대해 온 동네가 한통이 되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뫼텔 주교의 1891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 1, 천주교 명동교회, 1987).

향을 주기도 하였다.

1907년 이후 강원도에서는 더 이상의 교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교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분쟁의 강도가 높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개신교의 교세 확장

개항기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고 청교도적 생활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취한 선교전략은 간접선교 전략이었다.²⁹⁵⁾

미국 개신교 선교부가 조선에서의 선교전략으로 택한 전략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천주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둘째는 선교의 방법에서 교육, 의료, 사회사업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명화와 부국강병의 추구를 꾀하던 조선사회와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개신교의 교세 확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교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쟁이나 마찰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개신교의 세력 확장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전략적인 선교로 인해 발생한 교인들의 개종은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에게는 교안만큼이나 큰 문제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당시 주교였던 블랑 주교와 뮌텔 주교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295) 신광철, 『천주교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65쪽.

[자료 25]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또 다른 곤경은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내한입니다. 이미 10명 이상의 목사들과 2-3명의 여전도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말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며 목사라는 신분도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아직 미국 영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정착하려고 온 미국인들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신부들의 위치는 아주 이색적인 면을 보일 뿐입니다. 오류를 설교하는 이 신교 목사들은 활발하고 다니고 있는데, 반면 진리와 참된 자유의 설교자인 우리들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처럼 숨어서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말하자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신세입니다.²⁹⁶⁾

[자료 26]

강원도 지방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보고서에서 한결같이 개신교의 선전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이르기까지 이 산악 지방에는 그들의 행동이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한국인 전도사들이 도처에서 가라지를 심고 흔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대한 중상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²⁹⁷⁾

[자료 27]

영동 지방의 넓은 지역에서 흉년과 비참으로 인해 이주를 함으로써 그의 양떼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뤼카 신부는 말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악착스런 선전 때문에 많은 개종자를 낼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²⁹⁸⁾

위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개신교의 전교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며 그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28]

조제 신부가 주교님께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회들이 원주에 교회

296) 블랑 주교의 1885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1984, 천주교 명동교회, 44쪽.

297) 뤼텔 주교의 1909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I, 1987, 천주교 명동교회, 70쪽.

298) 뤼텔 주교의 1911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I, 1987, 천주교 명동교회, 99쪽.

한 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²⁹⁹⁾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개신교 목사 하나가 큰 가옥을 한 채 구입하여 얼마 후면 그곳에 와 정착할거라고 합니다.³⁰⁰⁾

개신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원하는 사람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1918년도 뮌텔 주교의 보고서에는 “올해 퀴를리에 신부가 순방한 새 공소들 중에서 신평동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곳입니다. 여기서 14명의 고해자와 13명의 영세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교우들은 순박하고 애정이 있으며 개종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동에서 열심히 불교 신자인 한 일본인이 가톨릭 교리를 알게 되고는 미신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열심히 예비자가 되었고 금년 중에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영세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³⁰¹⁾ 라고 적혀 있다.

교안은 단지 종교적 거부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말(韓末)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모순들이 결합되어 발생되어진 것이다. 또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 관료 및 중앙의 관리, 프랑스 공사 및 선교사가 개입하면서 작은 사건이 커다란 사건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건의 전개과정 및 해결과정을 보면 향촌사회가 선교사를 권력자로 인식하고 이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반 지역민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관리도 선교사 및 천주교회를 힘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9) 미국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들 중 1899년에 입국하여 춘천구역장이 된 J.R.Moose 목사는 영서지역을 담당하였다. 그는 1905년 원주에, 1906년 횡성에 감리교회를 세웠다(『강원도사』현대편, 강원도, 1995, 157쪽).

300) 프와요 신부의 1909년 6월 2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205쪽.

301) 뮌텔 주교의 1918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50쪽.

—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Ⅵ 강원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인식과 오해, 그리고 한계

조선의 개항 이후 강원지역을 방문한 이방인들은 각자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기록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국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신앙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강원지역민의 삶을 바라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물론 그들의 기록과 시선이 당시의 시대상을 온전히 재현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의 경우 선교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 신앙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한반도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관습과 종종 충돌을 빚기도 했다.

강원지역의 각지로 파견된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신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거나 주변 동료 신부와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 서울의 뫼텔 주교에게 의견을 구했다. 서울의 뫼텔 주교는 강원지역을 비롯한 한반도의 각지에 퍼

져나간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각종 질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중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자연스럽게 그가 남긴 기록에는 강원지역의 선교사가 질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역에 걸친 관습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을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동시에 그 기준은 강원지역을 넘어선 한반도의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공통된 지침이기도 했다.

먼저 강원지역을 기반으로 선교를 시도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상부터 살펴보자.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이수 신부가 뮌헨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는 자신의 상세한 하루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은 여름과 겨울, 두 계절에 걸친 외국인 사제의 일상이 담겨있어 그들의 삶을 일부나마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부이수 신부는 여름철에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6시까지 묵상을 했다. 바로 성무일도를 바친 후에 미사를 집전하고,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신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8시 30분부터는 성서를 필사하고, 9시에서 11시 30분까지는 조선어 공부를 했다. 오후에는 홀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1시 30분 혹은 2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신학·윤리·교의·영성론이었다. 4시 30분 이후에는 다시 조선어를 공부하고 6시경에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를 한 후 신자들과 한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8시 45분 또는 9시경에 저녁기도와 끝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상당한 시간을 공부에 바치고 있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스스로가 느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³⁰²⁾

302) 부이수 신부의 1897년 5월 3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47쪽.

겨울철에는 조금 늦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약 45분 정도 목상을 하고 소성무일도를 바쳤다. 이어 성경을 필사하고 교리공부를 하는데 구체적인 시각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대신 7시 30분에 미사를 집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저녁을 먹은 후에는 저녁기도와 영적독서를 마치고서야 조선어 공부를 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성무일도를 바친 후 경당으로 가서 성체조배를 했다고 하며, 식사를 일찍 마친 날의 경우 그 시간은 밤 9시였다. 부이수 신부는 보통 9시경에는 잠자리에 들었으며, 10시를 넘겨 잠자리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삶을 산다고 보고했다.³⁰³⁾

흥미로운 점은 겨울철 아침 미사를 드리러 온 신자들이 시간이 이르다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동료인 뒤테르뜨르 신부의 발언을 빌려 “닭처럼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난다”고 말한 지점이다. 부이수 신부는 조선에서는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 근대적 시간 개념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지 않아 조선인의 시간 개념이 부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원지역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주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경우였다. 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비록 가난하지만 우수한 자들로 생각했다. 특히 강원지역의 교인들이 육체적으로 비참한데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위대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³⁰⁴⁾ 선교사들은 그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303) 부이수 신부의 1896년 1월 16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9-30쪽.

304) 뒤테르뜨르 신부의 1893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1, 천주교 명동교회, 1984, 129쪽.

신자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자료 1]

강원도는 소박한 관습을 가진 주민들이 사는 고장으로, 견고하고도 전파가 잘 되는 신앙심을 지닌 신자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드브레 신부는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교육이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종교책 밖에는 읽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위 사람들을 입교시킨다면 그것은 훌륭한 말로서가 아니라 모범적인 생활로서입니다.³⁰⁵⁾

[자료 2]

강원도 동북 지방의 부이옹 신부는 그의 교우들에게서 그리스도교 생활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써보냈습니다. “대단찮은 일이지만 나에게서 중대하게 보이는 사실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특히 여자들 가운데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읽을 줄을 알고 여자들 가운데는 아직 문맹자의 수가 많다고 하겠으나 실제로 발전을 했습니다.”³⁰⁶⁾

[자료 1]과 [자료 2]는 강원지역민의 교육 수준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관찰을 보여준다. 그들의 시선에 비친 강원지역민은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으나 점차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신자일지라도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비신자들을 교인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물론 외국인 선교사에게 마땅찮은 부분도 있었다. 『서울교구연보』에 기록된 1932년 라리보 주교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지역민의 천주교 신

305) 드브레 신부의 1903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Ⅰ, 천주교 명동교회, 1984, 319~320쪽.

306) 부이옹 신부의 1909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74쪽.

자는 아직 순박하고 착하고 열심히지만, 자녀 교육에 소홀하며 전교에는 종교적 열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접 보지 못했다면 믿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지난 겨울철의 고난을 열거하며 신자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³⁰⁷⁾

그들이 강원지역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인상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산골의 이미지였다. 쿠데르 신부의 서한에 의거하면 강원지역의 신자들은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불쌍한 자들이었으며, 집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동정의 대상이었다.³⁰⁸⁾ 동시에 그들의 가난은 굳건한 신앙심에 비해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요소이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 고향을 떠나 미국 하와이 농장의 노동자로 전락했다. 미국의 농장주는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재빠른 한국 사람들을 선호해 높은 임금을 무기로 유혹한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들의 신자들에게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지시했으나 다수의 신자는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들이 받는 높은 임금만큼 기본적인 생필품값도 고가였기 때문에 고생한 것에 비해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만이 가능했다.³⁰⁹⁾ 간도 역시 그들이 가난을 면하기 위한 공간 중 하나였다. 신자들은 간도에 도착하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고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하와이 이주와 마찬가지로 간도로의 이주도 외국인 선교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³¹⁰⁾

가난으로 인한 신자들의 이탈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고민에 빠트렸다. 문

307) 라리보 주교의 1932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69쪽.

308) 드브레 신부의 1887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Ⅰ, 천주교 명동교회, 1984, 56쪽.

309) 뮌텔 주교의 1905년도 보고서, 『서울教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4, 22쪽.

310) 루게트 신부의 1910년 8월 23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Ⅰ,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31쪽.

제의 핵심은 강원지역민의 빈곤한 삶에 있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다시 그들의 신자로서 머무를 것을 알고 있었음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3]

외교인 영세자 수는 애석하게도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적어도 30명 이상 감소했고 내년에도 회복되리라는 예상도 전혀 못하겠습니다. 예비자 수도 미약하고, 이 수치에 더하여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가없는 조선인들은 물질적 이해관계에만 정신을 쏟고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매우 유리한 입장에, 그러니까 열심한 신자들 속에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이 차츰 그들을 권면하고 모범을 보여 설득하도록 해야 합니다.³¹¹⁾

[자료 4]

물질적인 면에서, 저의 신자들은 매우 가난하고 그들의 궁핍함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 보입니다. 하여 그들은 성당의 장식이나 교구에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예로, 애석하게도 실업학교에 소액 기부금조차 낼 수 없어 성사를 받으러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항상 갖은 구실을 들어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이처럼 신자들의 영혼 구원이 위태롭게 되고 그들이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선교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³¹²⁾

위의 자료들은 강원지역민의 열악한 삶으로 인해 가톨릭교회와 멀어지는 신자들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고민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근면한 신자들을 기반으

311) 시갈레 신부의 1917년 6월 26일 서한, 『용소막분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205쪽.

312) 시갈레 신부의 1924년 연발보고, 『용소막분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205쪽.

로 하는 공동체 생활을 추천할 뿐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강원지역 신자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력은 그들의 고민이었다. 유럽에서 성장하고 학습한 선교사들의 조선어 능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초기에는 일반 신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했다. 외국인 선교사들도 초반에는 험난한 선교지에 파견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차츰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료 5]

저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은 저를 매우 신뢰하는 것 같지 않고 저는 그들 가운데 언제나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의할 동료도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의 건강 상태는 썩 좋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혼자 계속 지내다가 만에 하나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염려스럽습니다.³¹³⁾

[자료 6]

예전에 조선어 실력이 신통치 않을 때 저는 되도록 꼭 필요한 공식석상에서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자들과 조선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매 주일마다 지침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신자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³¹⁴⁾

[자료 7]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신자들에게 질문할 엄두도 나지 않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말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신자들이 겁을 먹거나 혐오감을 느껴 아예 말

313) 뤼테르르 신부의 1895년 11월 1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67쪽.

314) 뤼테르르 신부의 1898-99년도 연말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01쪽.

문을 닫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자들이 나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신자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신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이후로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고백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³¹⁵⁾

[자료 5]는 서울의 뫼텔 주교에게 동료 신부의 파견을 요청하는 뫼테르트르 신부의 서한이다. 그는 인용된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료 사제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는 조선인 신부와 외국인 신부가 오는 경우를 모두 가정해서 그들의 사제복과 거주지, 조선어 학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시간이 흘러 뫼테르트르 신부의 조선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료 6]에서는 과거의 발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언어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신자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지만, 언어의 문제없이 소통이 가능해지자 적극적인 사목에 나서 주일마다 지침을 전달했다. 신자들 역시 암울했던 뫼테르트르 신부의 과거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선호하였다.

반면 [자료 7]은 부이수 신부가 뫼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 역시 뫼테르트르 신부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신자와 소통이 어려워 점점 더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기까지 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는 신자들의 말을 몇 차례에 걸쳐 이해하지 못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그는 누구의 고백도 듣고 싶지 않다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신자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여겼다. 부이수 신부에게

315) 부이수 신부의 1896년 9월 18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40쪽.

닥친 시련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에 스스로 사목 방문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올바른 사목보고서도 쓰지 못할 것이라 자조하고 있었다.³¹⁶⁾

외국인 선교사들은 강원지역민의 일상적인 삶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자들이 거주하는 가옥을 방문한 이후에는 빈대 등의 위생문제를 언급했으며,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지정된 선교지에 정착한 신부들은 크게 농번기와 농한기로 지역민의 삶을 구분했다. 이어 다소 여유로운 기간인 농한기에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기도 했다.

[자료 8]

무수한 빈대 때문에 고생한 무서운 밤, 한잠도 못 이룬 밤, 적어도 내게는 그러했다. 아침을 들고 퇴촌으로 떠나 9시경에 도착했다. 근50가구의 웅기촌이다. 약주를 가져왔다. 잘못해서 간수가 든 병을 가져왔다. 다행히 나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모두들 흥분하다. 처음 주교를 모시는데 간수를 바치다니? 죽음밖에 있을 수 없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³¹⁷⁾

[자료 9]

서울에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농한기에 신자들이 술독을 가운데에 놓고 둘러앉아 술을 먹는 행위를 금지시킨 조치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셨는지요. 지난 해 피정 때에는 그런 행위에 대해 모른 척 눈감아주었지만 술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비신자들이 저를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린 조치대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술은 다 마시되 집에서만 먹고,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생일 때에만 술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좀 지나친 조치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³¹⁸⁾

316) 부이수 신부의 1896년 9월 18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40쪽.

317) 뫼텔 주교의 1891년 10월 1일 일기, 『뫼텔주교일기』 I,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17쪽.

318) 뫼테르트르 신부의 1898-99년도 연말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01쪽.

[자료 8]은 뫼텔 주교가 강원도 순행을 나선 이후 퇴촌과 한 옹기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를 향한 강원지역 신자들의 접대는 그들의 정성과는 별개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뫼텔 주교는 우선 밤새 고생한 빈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잠자리를 설친 무서운 밤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음 날이 되어 도착한 신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옹기촌에서도 그에게 바친 약수가 실은 ‘간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는 대단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기에 ‘죽음’만이 가능한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뫼텔 주교의 태도는 강원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신자들에 대한 그의 우월감을 보여준다. 그가 빈대로 인해 잠을 설친 사건은 지역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나 자신에게 바쳐진 약수가 사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표출된 태도는 전형적인 서구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자료 9]는 부이수 신부가 선택한 농한기 시기 음주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조선의 겨울철 농한기의 대략적인 풍경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담을 나누고, 추위를 피하는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³¹⁹⁾ 하지만 강원지역의 혹독한 추위를 피하는 과정과 여유로운 일상에서 자연스레 벌어진 지역민의 음주는 종종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했다.

인용된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이수 신부도 초반에는 음주에 대해 관용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술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그는 신자들에게 음주를 금지시켰다. 다만 신자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생일 때에는 음주를 허락해주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를 비롯한 조선을 방문한 이방인들이 남긴 기록에도 조선인들이 맵고 뜨거운 음식을 즐기며 술이 일상에 늘 함께하는데, 지

319) 부이수 신부의 1897년 5월 19일 일기,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1쪽.

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비판적인 구절은 각종 견문록과 여행기에도 나타난다.³²⁰⁾ 이런 현실에서 부이수 신부가 음주를 금지시켰다는 보고는 뮌텔 주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로 보였을 것이다.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점은 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비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외국인 선교사에게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민에게 외국인 선교사는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그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천주교를 비롯한 외래종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지역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및 이권의 확보 등에서 나타난 모습이 만들어낸 형상이기도 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반도에 뿌리 깊이 내린 관습과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전통 혼례와 장례방식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천주교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 지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판단을 제각각이었다. 어떤 신부는 천주교의 교리에 충실히 따라 미신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선교사는 교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선인의 관습이라면 선교라는 커다란 목적을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자료 10]

조선의 전통 혼례는 거위 한 마리(일반적으로 종이나 나무로 만든)가 예물로 바쳐지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 혼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전통 혼례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0) 윤은순, 「조기 한국기독교의 금주금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둘째, 미신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조선의 전통 혼례를 조건부로 혹은 조건이 없더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의 결혼식은 전통 혼례 대신에 목사가 주재하는 혼인 예배로 대신하고 교황님께서도 혼인은 반드시 천주교 사제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신자들의 혼례식은 일종의 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 그 같은 전통 혼례식을 허락한다면 혼례식 때 미신과 결부된 여러 행위들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³²¹⁾

[자료 11]

반면 기산에서 치러진 장례식은 방법상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신자가 제게 들려준 바에 따르면 학교에서 비신자 선생이 학생들에게 동쪽을 향해 ‘절’을 두 번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 이외에는 아무도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중략 -

저는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의 영정 앞에서 심지어 어떤 종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분명한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황제가 중국 의례는 단지 세속의례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던 사실과 사망한 황제의 시신 앞에서 절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저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진 앞에서나 종이 앞에서 절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³²²⁾

위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절을 하는 의도와 방식이었다. [자료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외국인 선교사는 결혼식을 행하는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는 것에 대해 미신적인 요소는 없다고 여겼다. 다만 그들의 경쟁자인 개신교가 전통 혼례를 금지하고 목사가 주재하는 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으며, 교황이 혼인은 반드시 천주교 사제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들어 전통 혼례식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321) 루게트 신부의 1911년 12월 27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1쪽.

322) 루게트 신부의 1912년 9월 15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57쪽.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의 뫼텔 주교는 조상의 신주 앞에 절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통 혼례식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일반 신자들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만약 천주교로 개종하면 자국의 고유한 풍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통 혼례를 금지하는 일은 불가하다고 지시하였다.³²³⁾ 물론 뫼텔 주교 역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교리에 따라 혼배미사를 먼저 행하고 가능한 빨리 세속 혼례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료 11]은 강원지역과 한반도의 관습을 넘어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결부된 사건이다. 당시 조선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던 일본의 메이지 천왕이 사망하면서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 영결식이 열렸다. 장례일이 되자 각 학교의 모든 학생이 참석해 일본 천왕의 사망에 대한 예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했다. 그 중 이천의 망담과 기산 학교에서 벌어진 대조적인 모습은 외국인 선교사의 강한 불만을 자아내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는 일본 천왕의 죽음에 따라 뫼텔 주교가 보낸 기도문을 읽고 조문하였다. 망담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주도 아래 절을 하지 않고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해 부이수 신부는 대단히 만족했다. 그러나 기산 학교에서는 비신자 선생이 동쪽을 향해 절을 2번 할 것을 지시하였고, 학생과 선생님들 이외에는 아무도 절을 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뫼텔 주교가 내린 기도문을 읽지 않고 행사가 끝나자 부이수 신부는 대단히 흥분하였다.

특히 현장에 천주교 교리교사가 있었지만, 그가 지역 경찰서장과의 친밀

323) 루게트 신부의 1911년 12월 30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1,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4쪽.

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여해 절을 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부이수 신부는 정부가 절을 단지 세속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미신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신자들에게 미신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앞으로 절을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길까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쪽이나 일본 천왕의 영정을 향해, 나아가 어떤 종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분명한 미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뫼텔 주교를 향해 절을 한 교리교사에게 벌을 내리고 싶는데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문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³²⁴⁾

외국인 선교사들이 마주한 전통과의 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여아 매매’ 문제였다. 부모가 딸자식을 파는 것을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고 여긴 신부들은 돈으로 여자아이를 사는 부모도, 그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 달랐다. 당시 한반도에서 여아 매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으며 자식의 나이나 미모에 따라 마치 가축을 흥정하듯이 주위의 평가가 매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엄마와 아이를 함께 사서 돌아오는 길에 되팔았는데, 그 사람은 3년 뒤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되돌려 보내도 좋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파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 선교사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었다.

[자료 12]

부모가 딸자식을 파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여자 아이

324) 루게트 신부의 1912년 9월 15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58쪽.

를 사는 부모도, 그 여자 아이를 아내로 맞는 남자도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부가 되면 그 관계 또한 신뢰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을 테니까요.³²⁵⁾

[자료 13]

가장 놀라운 일은 아이들을 사고파는 일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드문 일이었으나 이제는 너무 많아졌다고 신자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팔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 신계의 한 사내가 남부로 가서 아이 엄마와 아이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3년 뒤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되돌려 보내도 좋다는 조건으로 여식을 팔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흥정하듯이 가령 “누구 여식은 1,050냥에 팔렸는데 자네 여식은 더 괜찮으니 2,500냥은 받을 수 있겠군” 이런 식입니다.³²⁶⁾

[자료 12]는 부이수 신부의 여아 매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부모가 여아를 파는 것은 종교가 지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며, 여성들을 차별하지 말고 교육해야 한다는 평등의 이념과도 어긋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국인 프랑스 혼인법의 사례와 조선의 여아 매매를 비교하면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에서 자식을 사고파는 파렴치한 관습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매매의 대상이 되는 여아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돈 때문에 강제로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여아 매매행위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혼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파혼을 강요받기 때문에 결국 가정도 해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325) 부이수 신부의 1905년 7월 17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136쪽.

326) 부이수 신부의 1920년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54쪽.

[자료 13]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원지역민의 고단한 삶과 함께 여아 매매는 확산되었다. 부이수 신부는 자신의 신자들이 아직 다른 지역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변화의 바람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더구나 관청에서 어린 소녀의 매매와 지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묵인하라고 말하는 것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이들의 자유가 속박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아이들을 사고파는 관행은 부도덕한 것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도둑들처럼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아이를 매매하는 자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니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자신이 뉘테르트르 신부와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이러한 일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한다.

뉘텔 주교 역시 부이수 신부와 마찬가지로 여아 매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부이수 신부의 주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뉘텔 주교는 여아 매매혼에 대해 조선 사회의 관습으로 보아야지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부이수 신부에게 나쁜 관습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신자에게 성사 주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시한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공소일 지라도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성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종교가 아닌 다른 한반도의 신앙도 비난의 대상이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개신교와의 대결은 강원지역만이 아닌 전 국토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숭배 여부는 그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는 요인이었다.

강원지역에 산재한 수많은 사찰만큼 전통적으로 지역민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불교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 한 불교 사찰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의 도움을 받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특히 외국인이 알아듣기 힘든 아침·저녁의 예불에 대해서는 천주교·개신교 선교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괴로워했다.

[자료 14]

제가 이곳에서 잘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단자들의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단자들의 절은 너무도 협소하여 거의 모든 예식들이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신자들이 저를 보러 왔고, 가끔은 무리를 지어 오기도 합니다. 신자들에게 신경 써서 피하라고 하는 이들[이단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제 모습을 보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신자들]은 그들이 피했으면 하는 많은 일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그들의 믿음에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지 않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지나치게 외부 세상만을 보다보면 그들의 판단이 [판독 불가] 하여 흑시라도 주교님의 신임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불평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합창을 합니다. 위에서, 지하 창고에서도, 일층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아녀자들과 청년들도 그들 차례가 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지독히도 못 부르답니다. 저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으로 듣기가 괴롭습니다. 물론 주교님께서 제 입장에 계셨다면, 진작 [미판독] 하시고 보다 음악적인 피신처를 찾아 떠나셨을 겁니다.³²⁷⁾

[자료 14]의 내용은 원주의 용소막 본당에서 사목을 행하던 시잘레 신부의 기록이다. 그는 1915년 2월 9일 멧돼지의 습격을 구원하려던 소년의 오발로 인해 다리뼈가 부러졌다. 다음 날인 10일 원주로 옮겨져 치료에 필요한 수술이 집행되었고 약 2달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원주 주변의 한 사찰로 옮겨져 요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문안하기 위해

327) 시잘레 신부의 1915년 3월 14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87쪽.

방문하는 신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이단자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점을 염려하였다.

이런 모습은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이 강원지역의 사찰을 방문한 뒤에 느낀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96년 3월 북장로교 선교사인 밀러는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방문했는데 안식일에 승려들의 예불 의식을 목격하면서 뜻을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말들을 내뱉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과 유사한 패턴이었다.³²⁸⁾

외국인 선교사들의 시선은 일제의 강압적인 조선 지배와 조선인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 비판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식민지화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으며 자신들의 선교에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 병탄에 대해 뒤통 주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자료 15]

일본의 한국 보호 정책은 드디어 한일합병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일본이 한 걸음씩 전진해 올 때마다 일어난 저항운동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다행히도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놀라운 평온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분명히 엄격하고 면밀한 치안 조치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조심스러운 체념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항거를 해야 했겠으나, 불가항력의 상황 앞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굴복한 것입니다.³²⁹⁾

뒤통 주교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일제의 조선 병탄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

328) 유영렬·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출판사, 2004, 218-222쪽.

329) 뒤통 주교의 1910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81쪽.

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기술했다. 그의 지적처럼 당시의 평화는 일제의 총칼에 의한 정적이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에 수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뫼텔 주교는 조선인의 체념을 강조했으며, 나아가 이런 체념이야말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지혜롭게 굴복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다.

조선의 천주교를 이끄는 뫼텔 주교의 인식은 한반도 각 지역의 외국인 선교사에게 전해졌다. 각 지역의 일선에서 활약하던 외국인 신부들은 일본과 그를 추종하는 일진회 등의 친일세력에 비판적이었지만 주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조선을 지배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일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일본의 통치가 자신들이 조선에 존재하는 이유인 신앙의 전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국한해 비난을 배어냈다. 이는 자신들이 과거 ‘양대인(洋大人)’으로서 지니고 있던 권위와 권능이 점차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다.

[자료 16]

일본식 사고가 주입되어서인지 나라가 우선이고 종교는 뒷전입니다. 영적 권위가 세속적 권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신자들은 지상의 왕에게 먼저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상의 왕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³³⁰⁾

[자료 17]

세속 풍조가 만연하고 교회의 권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신부를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개 헌병만큼의 권위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종교를 중요하지 않은 세속의 허접한 일쯤으로 치부해 버립니다.³³¹⁾

330) 부이수 신부의 1917년 4월 1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7쪽.

331) 부이수 신부의 1918년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48쪽.

일제강점기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권위는 과거와 같지 않았다. 부패한 관료와 양반에 대항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서 외국인 신부의 역할을 기대했던 자들은 이제 그들의 권위와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료 17]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자들마저 일본군 헌병보다 못한 존재로 신부를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봉급을 받는 존재로서 여겼다. 자연히 조선인들의 삶에서 외국인 신부들이 원했던 신앙의 확산은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그러자 외국인 선교사들도 조선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이전 그들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민을 포함한 조선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로 긍휼의 대상이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만이 가능했고, 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장애물로 조선인 부모의 게으름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조선인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였으며, 혹 그것을 파악했더라도 지속해나가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자들로 여겨졌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 조선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훨씬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자료 18]

제게는 온순한 노새 한 마리가 있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회초리로 때리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노새는 앞으로 갈 생각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나 막대기로 때리기보다는 등을 두드리면서... 한 속임수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순한 양처럼 되니까요.

주교님 저희 모두는 어느 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인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런 경우가 더 심합니다. 거칠게 다루어 매우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비로소 지시를 따릅니다. 요즘 신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신앙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순종하

지 않아도 아무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지 않기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³³²⁾

[자료 19]

조선인 신부에게 들은 바로는 조선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몽둥이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라고 합니다. 주교님, 이런 얘기를 한번 이상 들어 보셨겠지요.³³³⁾

[자료 18]과 [자료 19]는 이천의 부이수 신부가 뮌헨 주교에게 보낸 사목 활동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기본적으로 두 자료 모두 자신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신자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조선인을 노새에 비유해 속임수를 쓰거나 거칠게 다루어야 말을 듣는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신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돈과 신분 상승이며, 나머지 일에는 무감각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복의 종교이며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기에 사목활동이 쉽지 않다고 한탄했다. [자료 19]에서 언급된 조선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 몽둥이와 돈의 존재는 앞의 노새 이야기와 마치 대구(對句)를 이루는 것 같다. 비록 조선인 신부의 말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으나 실은 부이수 신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뮌헨 주교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서구의 시선과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 조선 사회를 이해하려 했다. 강원지역민을 비롯한 조선인에 대해 가난하고 게으르며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육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332) 부이수 신부의 1915년 4월 27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21쪽.

333) 부이수 신부의 1924년 5월 29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70쪽.

을 요구했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선배들이 지니고 있던 근본적인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신부들이 강원지역민의 장점으로 평가했던 착함과 소박함, 성실함이라는 표상은 어디까지나 서구 문명의 종교인 천주교를 받아들인 자들에 국한된 평가였다. 조선을 비롯한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각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수없이 떠올린 ‘미개한 동양인’을 ‘우월한 서양인’이 교화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떨쳐내지 못했다.

서울의 뫼텔 주교를 필두로 한반도의 외국인 신부들은 각자의 선교지에서 사목활동을 벌이며 각 지역의 민중과 접촉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구적 가치에 따라 강원지역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종교적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글에서 인용된 수많은 외국인 신부들의 강원지역민에 대한 기록은 근대 강원지역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지만, 동시에 타자의 시선으로 본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 것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VII 결론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강원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시기는 조볼수호조약이 체결되는 1886년부터 1945년까지로 하였으며 대상 지역은 현재의 북강원도를 포함한 강원 지역 전체이다. 그리고 연구의 자료로는 『뫼텔 주교 일기』를 비롯하여 강원 지역의 사목을 담당하였던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서한과 그들이 보고서를 연보 형식으로 간행한 『서울교구연보』,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선교 관련 문서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골롬반문서』 그리고 골롬반의 선교 잡지인 『The Far East』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히 강원지역에서 1938년까지 활동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서한에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타자(他者)인 그들의 기록은 선교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나, 강원지역에서 한국의 근대사를 직접 경험한 1차 사료로 강원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 또한 남과 북, 분단 이전의 역사를 담고 있으므로 현재 강

원도만이 아닌 북강원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해서 강원지역의 자연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들의 기록 속에서 강원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강원지역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태백산맥의 존재로 인해 영동과 영서 지역의 생활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고, 험준한 산악 지형이 강원지역민의 소박한 성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산골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몇 대에 걸쳐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교통의 불편함에 대해서, 마치 귀양살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만약 기차가 개통된다면 북으로는 원산, 남으로는 부산을 통해 영동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신부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그들에게 추위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금강산과 같이 아름다운 경치는 매혹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금강산을 유람하고 그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는데, 위생의 열악함을 묘사함과 더불어 고통을 잊기 위해 ‘키니네’를 복용하거나 포도와 물, 또는 설탕을 섞어 마시며 질병을 이겨내려 한 노력도 기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강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경험한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한일강제합병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였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의 시각과 경험에 바탕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동학이나 의병은 외국인 선교사인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들은 동학교도 및 동학군은 약탈을 하고 떼지어 몰며 다니며 나쁜 일을 하는 집단으로 묘사하였으나, 왜 동학농민운동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국인 선교사의 시각과는 달리 정규하 신부는 당시 관리들이 행했던 부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외국인 선교사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의병은 1895년에 발생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국토와 주권을 유린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국권을 회복시키고 수호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나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 속에서 이들은 그저 폭도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인식은 프랑스의 종교 보호 정책으로 프랑스 정부의 보호를 받는 한국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프랑스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친일 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교구장인 뫼텔 주교는 일본 통감부가 조선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감정이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한 의병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 없이 새로운 상황에 항거한다는 것으로만 규정짓고 있어, 이후 의병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병에 대해서 조직도 잘 되어있지 않고, 규율도 엉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하게 되어있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일어난

의병을 노략질과 강도질로 되었다고 폄하하였다.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체로 의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병을 처단하거나 의병을 잡는데 몰두하는 일본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긍정하는 것에 비해 투르니에 신부는 다른 선교사들이 의병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인 정규하 신부는, 의병들은 한국인들이 의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일본군을 지원한다고 하고, 일본군은 한국인들이 혹 의병을 도우면 의병을 도왔다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며, 나라 잃은 설움에 양자 택일을 강요받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전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호해야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야만적인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받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한에 남기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일본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조선을 일본 제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일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독립운동을 반정부운동으로 단정하였는데, 월남을 침략하고 있는 제국주의 프랑스 국민의 눈에는 일제의 침략 행위가 정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무모한 짓으로 판단했다.

일제강점기 일진회의 활동과 일진회에 대해서, 이천에서 활동하던 루케트 신부와 부이수 신부는 일진회원들이 신자들에게 ‘단발’을 강요하고, ‘천주교는 노쇠한 종교이고, 일진회는 새롭고 참된 종교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음과 일진회원의 힘이 막강하여 잘못 대처하면 신자들을 괴롭힐까 염려스럽다는 표현을 통해 일진회와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며 기록을 남긴 것에 비해, 1933년에 한국에 들어와 일제강점기 동안 가택 연금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어 실질적으로 사목활동을 할 수 없었던 골롬반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의 서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간도 이주에 대한 것인데, 강제 합병 이후 간도 이주의 비율 중 천주교인 중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간도로 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간도 이주에 대해서도 선교사들은 부정적이었는데, 이들은 경제적인 빈곤과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국내에서의 삶이 어려워 국경을 넘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않은채, 간도 이주는 무모하고 허황된 것이며 대부분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인의 간도 이주에 부정적인 것은 파리외방전교회의 창립 정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파리외방전교회는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면에서만 관심을 두었을 뿐 경제적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기록에 보이는 선교사들의 본연의 활동인 선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는 뮌텔 주교 일기에 수록된 그의 순방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뮌텔 주교는 재임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강원지역을 순방하였다. 순방 기록에서 뮌텔 주교는 신자들의 생계 수단인 옹기, 화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교우촌의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의 기록 속에서 1899년 강원지역에 있던 5,000명의 신자는 1922년에 10,111명으로 증가하였고 어느새 8개의 본당에 118개의 공소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기록 속에서 신자들의 증가에 비해 경당이 협소해지

자 성당 건립 계획을 세우고, 성당 건립에는 신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며 성당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이 드러난다.

선교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천주교회는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활동은 선교사들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당시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이었고 이들의 선교방침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학교 설립에 대한 기록도 많이 보인다.

학교 설립은 특히 북강원도인 이천과 망담에서 활동한 루케트 신부와 부이수 신부의 기록에서 많이 보이며, 이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이후에는 교사를 구하는 문제와 학부의 승인을 받기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서한에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1908년 공포(公布)된 사립학교령 때문이었고, 통감부는 그들의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종교학교 운영자 중 통감부에 반감을 가진 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규정도 명시하였다.

교회는 교육사업과 더불어 아동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교세통계표에는 당시 강원지역을 담당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방침 중 하나인 아동에 대한 복지와 관련하여 성영회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또한 선교사들은 각 공소나 본당의 미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담의 소개는 표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고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조불조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교안(敎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안의 발생은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정책의 변화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뫼텔 주교는 교회의 이익과 교회를 보호하며 적극적인 교세

확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종교분쟁에 적극 관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의 기록 속에서 보이는 강원지역의 교안은 1904년 이전에는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나, 1907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교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분쟁의 강도가 높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교안은 단지 종교적 거부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말(韓末)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모순들이 결합되어 발생되어진 것이다. 또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 관료 및 중앙의 관리, 프랑스 공사 및 선교사가 개입하면서 작은 사건이 커다란 사건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건의 전개과정 및 해결과정을 보면 향촌사회가 선교사를 권력자로 인식하고 이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반 지역민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관리도 선교사 및 천주교회를 힘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장에서는 강원지역과 지역민을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오해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신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거나 주변 동료 신부와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 뮌텔 주교에게 의견을 구했고, 뮌텔 주교는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 그 답변에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관습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지역을 넘어선 한반도의 전역에 있는 신부들에게 공통된 것이기도 했다.

외국인 신부들이 강원지역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주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경우였다. 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비록 가난하지만 우수한 자들로 생각했다. 특히 강원지역의 교인들이 육체적으로 비참한데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위대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모범적인 삶

을 살고 있음을 강조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신자들의 모범적인 모습은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그들의 시선에 비친 강원지역민은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으나 점차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과 비록 배우지 못한 신자일지라도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비신자들을 교인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서 강원지역의 신자들은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불쌍한 자들이었으며 집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동정의 대상이었다. 다만 과거 조선 조정의 박해를 피해 강원지역으로 피신한 신자들이 생계를 위해 용기를 빚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순박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조선어 능력에 있어서 신자들과 온전히 소통할 수 없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선인의 전통 혼례와 장례방식에 있어서 관습과 미신이라는 측면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조선인의 관습이라면 선교라는 커다란 목적을 위해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여아 매매’ 문제에 있어서는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고 여겼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권위는 과거와 같지 않았다. 양대인(洋大人)으로 인식되며 우월한 권위를 인정받던 이들은, 일본 헌병보다 못한 존재로 신부를 인식하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 이전 그들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민을 포함한 조선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로 궁핍의

대상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조선인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였으며, 혹 그것을 파악했더라도 지속해나가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자들로 여기며 조선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훨씬 강화되기도 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은, 그들이 한국 근대사를 경험하며 1차 사료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해도 그들의 시선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그들은 서구의 시선과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 조선 사회를 이해하려 했고, 강원지역민을 비롯한 조선인에 대해 가난하고 게으르며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육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원지역민의 열악한 삶으로 인해 가톨릭교회와 멀어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채 근면한 신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을 추천할 뿐이었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선배들이 지니고 있던 근본적인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원지역민의 장점으로 평가했던 착함과 소박함, 성실함이라는 표상은 어디까지나 서구 문명의 종교인 천주교를 받아들인 자들에 국한된 평가였다. 과거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수없이 떠올린 ‘미개한 동양인’을 ‘우월한 서양인’이 교화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떨쳐내지 못했다. 서울의 뫼텔 주교를 필두로 한반도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각자의 선교지에서 사목활동을 벌이며 각 지역의 민중과 접촉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구적 가치에 따라 강원지역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종교적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글에서 인용된 수많은 외국인 신부들의 강원지역민에 대한 기록은 근대 강원지역의 역사를 상

세하게 보여주는 자료지만, 동시에 타자의 시선으로 본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 것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매일신보(每日新報)』

『각사등록(各司謄錄)』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 - 부이수 신부 편-』(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II - 뒤테르트르 · 루게트 신부 편-』(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경향잡지(京鄕雜誌)』

『구한국의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 法案)』

『골롬반문서』(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소장)

『교세통계표(1882~1924, 강원 함경편)』(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위텔 문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위텔주교 일기』 1 ~ 8.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서울교구연보 I (1878~1903)』(천주교 명동교회, 1984)

『서울교구연보 II (1904~1938)』(천주교 명동교회, 1987)

『풍수원에서 온 편지 -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한집』(정규하,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편, 2019)

『프랑스 선교사 서한 : 기요, 부이옹, 드브레, 르메르, 시잘레, 프와요』(미간행 자료, 개인 소장 및 원주교구 문화영성연구소 소장)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I - 원산본당 편(1887~1921)』(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II - 안변(내평)본당 편(1887~1921)』(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함경도 천주교회사』(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volume 1. 1918-1954.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volume 2. 1955-1962.
 『STATISTICS ON THE COLUMBAN TO KOREA 1933-2013』
 『PHOTO ALBUM OF THE COLUMBAN MISSION TO KOREA』

단행본

- 『강원도사』 1, 7, 19,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김세윤 역, 『조선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일조각, 1997.
 김옥희, 『제주도신축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_____, 『박해시대의 교우촌』, 작은 예수, 1986.
 금장태, 『조선후기 유교와 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정신, 『한국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 연구소, 1994.
 김정환, 『위텔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노르베르트 베버 지음, 박일영 · 장정란 옮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 출판사, 2012.
 도날드 베이커 저, 김세윤 역, 『조선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일조각, 1997.
 류승렬 외, 「재중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 -중국 흑룡강성-」, 『강원학 학술총서』 5, 강원도 강원 발전연구원, 2007.
 메디나 신부 지음, 박철 옮김,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1566-1784)』,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세실 허지스 지음, 안교성 옮김, 『한국인의 신앙과 풍속(영국성공회 선교사의 눈에 비친)』, 살림, 2011.
 신광철, 『천주교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아르튀르 피아센티니 신부 지음, 강옥경 옮김, 『리델 주교 - 필리포폴리스 주교. 조선교구장』, 살림, 2018.
 안드레 에카르트 지음, 이기숙 옮김,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 독일인 옥낙안이 본 근대 조

선인의 삶』, 살림, 2010.

유영렬·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출판사, 2004.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윤민구,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국학자료원, 2002.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2.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_____,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1986.

장동하, 『개항기 한국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장 드 팡주, 콘스탄스 테일러 지음, 심재중 옮김, 『프랑스 역사학자의 한반도 여행기 코리아에서/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장정룡 외, 『재중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학 학술총서』 4,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2006.

주명준, 『천주교의 전라도 전래』, 탐구당, 1998.

조선희 지음, 허종열 옮김, 『기나긴 겨울』, 가톨릭 출판사, 2003.

조 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차기진, 『조선후기의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최석우 편저, 『병인박해자료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68.

파리 외방전교회 지음, 김승욱 옮김, 『조선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 살림, 2015.

THOMAS K. SULLIVAN, 『ONE HAPPY OLD PRIEST』, Xlibris Corporation, 2010.

Philip Crosbie, 『March Till They Die』, Xlibris Corporation, 1955.

교구사 및 본당사

원주교구: 『원주교구 30년사』; 『성내동 오십년사』; 『원동성당 백년사』; 『의림동성당 25년사』, 『정선본당 50년사』; 『학성동성당 오십년사』; 『태장 10년사』; 『용소막성당 100년사』

춘천교구: 『춘천교구 50년사』; 『사진으로 돌아본 간성본당』; 『교동 삼십년사』; 『김화성당 50년사』; 『노암동본당 13년사』; 『동명동본당 50년사』; 『묵호본당 50년사』; 『성산본당 25년사』; 『양구성당 40년사』; 『양양성당 80년사』; 『임당동성당 97년사 자료집』; 『죽림동성당 70년사』; 『홍천성당 88년사』

논문

- 금경숙, 「강원도 영서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박물관지』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2.
- 김용구, 「서양 선교사들이 본 한국 인상」, 『국제문제연구』제9호, 1985.
- 김승호, 「뫼텔 대주교 재임 시기 교회와 사회」,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정숙, 「갈래 신부 활동을 통해서 본 1860년대 조선 가톨릭 문화」, 『방곡 황증동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1994.
- _____, 「쌍호공소를 통해 본 천주교 교우촌의 성립과 변천」, 『인문연구』5, 2009.
- 김정호, 「영동지역 천주교 수용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5,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94.
- 김정환, 「귀스타브 뫼텔의 사목활동」,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한말 일제강점기 한국 천주교회의 재편 -뫼텔주교의 재임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호서사학회, 2010.
- _____, 「뫼텔주교 재임기의 교세 변화」, 『교회사연구』제3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 김주섭, 「천주교 신앙 지역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안성지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태웅, 「조선말 대한제국기 뫼텔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연구』제3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 박광성, 「1901년 제주도민난의 원인에 대하여 -신축 천주교 박해사건-」, 『인천교대 논문집』2, 1967.
- 박동욱, 「박해기 한국천주교회의 경제관」, 『한국교회사논문집』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박찬식, 「제주교안에 관한 일검토 - 소위 '삼의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8, 1991.
- _____,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한국근현대사연구』4, 1996.
- _____, 「한말 천주교회의 제주교안 인식 -뫼텔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1998.
- _____,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 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29, 2001.
- _____, 「한말 교안과 교민조약」, 『교회사연구』2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 방상근, 「한말 천주교와 제주교안」, 『교회사연구』1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 _____, 「19세기 경기 북부지역의 천주교」, 『교회사연구』3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배세영, 「한국 파리외방전교회와 전교방침」, 『한국교회사논문집』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손숙경, 「조선후기 경남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형태」, 『부산사학』34, 1998.
- 송민, 「프랑스선교사의 한국어 연구과정」, 『교회사연구』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 신광철, 「개항기 한국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 -해서교안을 중심으로-」, 『종교연구』11, 1995.

심인옥, 「개화기 한옥 성당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뮌헨주교의 일기에 나타나는 건축적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안기영, 「조선 후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양인성, 「개화기·일제시대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본당 및 공소와 신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제3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여진천, 「천주교의 원주지역 정착과 발전 연구(1888년~1909년을 중심으로)」, 『원주학연구』 2,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2001.

_____, 「19세기 화서학파와 흥재구의 서양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정속신편을 통하여」, 『교회사 연구』 제21집, 2003.

유병기·주명준, 「충청도 천주교 전래-이존창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주대학논문집』 11, 1982.

유홍렬, 「제주도에 있어서의 천주교박해-1901년의 교난-」, 『이병도박사 화갑기념논총』, 1956.

윤경로, 「초기 한국 신구교 관계사 연구 -해서교안과 문서논쟁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 문화』 3, 1985.

윤은순, 「초기 한국기독교의 금주 금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이병호,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성과 한국 교회」, 『교회사 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이원순, 「조선후기사회의 '교안' 연구」, 『한국천주교회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이원희, 「원주·횡성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정착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 「한말 횡성지역의 교안」, 『강원문화사 연구』 8, 2003.

_____, 「1898년 고성지역의 천주교도 홍경모의 토지늑탈사건과 블라두 신부」, 『부산교회사보』 43, 2004.

_____, 「강원지역 교안의 발생배경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2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_____, 「강원지역 천주교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1920년대 춘천성당 관할 교우촌의 통혼 분석」, 『교회사학』 8,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

_____, 「천주교 집회장소의 변화양상 - 강원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9,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_____, 「강원지역 교우촌 현황 연구」, 『교회사 연구』 제48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6.

_____, 「병인박해와 강원지역 사람들에 관한 고찰」, 『교회사학』 13, 수원교회사연구소, 2016.

_____, 「개항기~일제강점기 풍수원본당 관할 공소와 구역의 변천 -교세통계표 공소현황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19,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_____, 「기록을 통해 본 풍수원성당 안나희」, 『강원사학』 33, 강원사학회, 2019.

- 이원희·김대기,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의 의료활동-강원도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17,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 이창복·이문호,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 식물 연구」, 『교회사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 조 광, 「신유박해의 분석적 고찰」, 『교회사연구』 제1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 조현범,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문명관」, 『교회사연구』 제1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차기진, 「근대 한국 사회와 프랑스 선교사의 역할-조선 8대 교구장 Mutel 주교를 중심으로」, 『교회와 역사』 160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 _____, 「초기 교회시대 경기 북부지역의 천주교-경기도 마재의 나주 정씨 집안을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제3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최기영, 「韓末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교육 규모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報』 70, 1992.
- _____, 「뫼텔 주교의 한국 인식과 한국 천주교회: '뫼텔 주교 일기'를 읽다」, 『교회사연구』 제3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 최석우, 「재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근대종교사연구』 원광대 출판국, 1984.
- 최영준, 「19세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확산」, 『대한지리학회지』 34권 제4호, 1999.
- 황은순, 「제주 밀감과 왕벚나무의 아버지 에밀 타케 신부 다시 오다」, 『주간조선』 2442호, 2017.
- 홍이섭, 「다브뤼 신부의 조선연구에 대하여」, 『향토서울』 제2집,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8.

용어 설명

(용어 설명은 한국 가톨릭 대사전, 가톨릭 용어 사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가]

- 강복식(降福式) 준성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에 하느님의 은혜를 비는 행위.
- 견진성사
(堅振聖事)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케 하는 성사.
- 경향신문 1906년 10월 19일 한국 천주교회에서 창간한 순 한글로 쓰여진 주간지. 테 블로이드판 4면과 국판 8면의 부록 <보감(寶鑑)>을 포함한 12면의 신문체 제로서 초대 발행인 겸 편집인은 드망즈(Demange, 安世華)신부였다. 참 개 화와 거짓 개화를 분별시켜 근대화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게 하며 이를 위한 인격계발을 한다는 것이 창간 당시의 편집방침으로,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어 1907년에는 정기구독자가 4,200여 명에 달하였다. 주요한 기사는 서울에서 작성하였고, 그 밖의 지방 소식은 전국 각처에서 활동하던 신부들에 의해 제보되었고, 신부들은 신문보급에도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 한국말에 서투른 당시의 신부들은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기록을 하였으므로 한국인 김원영(金元永,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중요한 편집업무를 담당하였다. 1907년에는 이완용 내각의 신문지법(新聞紙法) 제정 공포에 의한 언론 탄압 아래서도 드망즈 신부의 치외법권에 힘입어 비교적 장기발행을 할 수 있었으나, 한일합방 이후 신문은 폐간당하고, 부록인 <보감>은 <경향잡지>로 제호를 변경하여 계속 발행하였다.

고상(苦像)	십자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의 표시.
고해(告解)	세례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기 위해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행위. 고백성사.
공소(公所)	본당(本堂)보다 작은 교회 단위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공소 교우들의 모임 장소인 강당(講堂)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미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교구(敎區)	가톨릭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본단위 즉 교회의 행정상의 한 구역을 말한다. 이 말은 외국어의 대교구, 교구, 대목구, 지목구 등을 통칭하는 경우와 또는 그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서울 대교구' 대신에 그냥 '서울교구'로 부르는 경우이다. 예수의 제자들, 즉 12사도의 후계자인 주교(主教)들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동동체는 그 지방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이룩케 된다. 이 기본 단위인 교구는 다시 좀더 작은 신자 공동체인 본당(本堂)으로 나누어, 주교들의 대리자인 사제(司祭)들이 직접 신자들을 보살피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전체교회와 지역교회로 구분되며, 세계 각처에 산재하는 지역교회는 주교들에 의해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신자공동체인 교구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몇 교구가 모여 관구(管區)를 이루어, 지역교회의 완전한 교계제도(敎階制度)를 설정하게 된다.
교구장(敎區長)	교구를 사목할 책임을 맡은 이로 주교품을 받은 고위 성직자. 교황이 임명한다. 교구장은 교구의 대표자로서 교구 내의 모든 이를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며, 세계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우촌(敎友村)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고 따르며 가톨릭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주거하는 장소.

교의(敎義) 성서와 성전에 기초를 둔 믿을 교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진리들이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선교(宣敎)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비롯된 종교를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그의 인격과 교훈을 근본 규범으로 하는 여러 가지 즉 그의 가르침, 윤리, 믿음, 전례, 행위 등 신앙형태의 총체를 말한다.

[ㄷ]

당가(當家) 재정 담당.

대목구(代牧區)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구로서 교황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구. 정식 명칭은 교황대리감목구(敎皇代理監牧區)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목구라고 하며, 이 교구의 장(長)을 대목(代牧) 또는 대목구장(代牧區長, 정식명칭은 敎皇代理代牧區長)이라고 한다. 대목은 교황청에서 임명하며 교황을 대리하여 정식 교구의 주교와 같은 권한을 대목구에 행사한다. 이 교구제도는 17세기 이후에 정식 교구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 및 현 지인들에 의해 자치교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 시행되었다.

대부(代父)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代母)라 한다.

대신학생 1928년 서울 예수성심신학교와 대구 성 유스티노신학교의 중등교육과정을 동성상업학교의 을조(乙組)로 개편하면서 이들을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대학교육이 행해지는 학교를 대신학교(大神學校)라 불렀고, 대신학생은 대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세(代洗)	《한불자전》에서는 사적세례(私的洗禮) 혹은 약식세례(略式洗禮)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대세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제를 대신하여 예식을 생략하고 영세를 베푸는 것으로 비상세례라고도 한다.
도문(禱文)	기도문을 말함.
동정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동정을 지키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 동정녀들의 모임은 과부들의 모임과 함께 이미 신약(新約)시대에 시작된 후 곧 그리스도 교인들 사이에서 동정생활에 대한 특별한 의미와 그 모임을 인정받았다.

[미]

매괴첨례(玫瑰瞻禮)	로사리오 성모축일의 옛 이름. 성모는 우리로 하여금 로사리오를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를 살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므로, 이를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는 축일.
묵상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몰두하여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관해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묵주	라틴어로 로사리오라고 하며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이다. 묵주란 구슬이나 나무알을 열 개씩 구분하여 여섯 마디로 엮은 염주형식의 것으로 십자가가 달려 있는 물건이며, 이를 사용하여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묵주의 기도라고 한다.
《미과수원(美果收園)》	1886년 당시 조선 천주교회 내에 있던 모든 회(會)의 설립목적과 규칙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적어 놓은 책.

미사도구 미사(초기 원시 교회에서는 ‘빵나눔’, 2-3세기에는 ‘감사기도, 감사’, 4세기에는 ‘제사, 봉헌, 성무, 집회’ 등으로 불려왔다. 용어는 라틴어의 Missa’에서 유래했으며, 중국어나 한국어로 그 발음을 딴 것이다. 이 용어는 5세기부터 서방 라틴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며 최후 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친히 당신 교회안에 물려 준 가톨릭교회의 유인한 만찬제사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에 쓰이는 도구.

미사주 미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포도주로서 성사적인 축성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

[B]

성체 배령
(聖體拜領) 영성체(領聖體)의 이전 말.

베네딕도회 베네딕도회(Ordo Santi Benedicti)란 가톨릭 교회 내의 수도승 수도회들(Ordines monastici) 가운데 하나로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이태리 누르시아(Nursia) 출신 성 베네딕도(St. Benedictus, 480-547경)가 저술한 수도규칙(Regula Benedicti)을 따르는 남녀 수도회들의 연합(聯合, Confederatio)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분도회(芬道會)라고도 하였다.

복사(服事) 미사, 성체강복식, 혼인성사, 성체성사 등을 거행할 때 집전하는 사제를 도와 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미사’라고도 불렸다. 원래 이 일은 하급 제3급에 속하는 시종직을 받은 자가 담당하였으나 이 성품이 폐지된 이후는 평신도인 복사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본당(本堂)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 혹은 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교회.

부활절 예수부활 대축일 혹은 부활시기를 뜻한다. 부활시기는 교회력에 있어 부활축일부터 성신강림 대축일까지의 5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시]

사목지(司牧地) 사목이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나오는 ‘인간 구원의 봉사’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곳을 사목지라고 한다.

사제서품(司祭敍品) 안수(按手. 원뜻은 ‘손을 올려놓다’이다. 손을 얹고 축복하거나, 죄의 전가 또는 은사나 권위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특별한 일을 위탁할 때도 안수가 시행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해 주교, 사제, 부제를 임명하는 것. 주교는 서품식을 통해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성할 수 있는 은총과 영성적인 힘을 부여하며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만이 ‘성직자’로 간주된다.

사제관(司祭館) 신부들이 성당 건물 내에 거주하는 집.

삼애학교 1907년 강원도 이천본당에서 설립한 초등교육기관. 1908년 명의회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였다.

상본(像本)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혹은 이 밖에 다른 성인들의 화상(holy picture)이나 성스러운 문구를 담은 카드. 보통 기도서나 성서의 책갈피 사이에 끼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기원은 5세기 경부터 동방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져 신자들의 특별한 공경의 대상이 되었던 성화상(icon)에 있다.

성 골롬바노 (St. Columbanus) 성인. 프랑스의 퉁세이우 및 이탈리아의 보비오 대수도원장. 축일은 11월 23일. 아일랜드의 렌스타 지방에서 태어나 보비오에서 죽었다. 뵤고르에서 수도자가 되었다가 590년 경에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 최초는 영국, 브르타뉴, 591년 경부터는 동 프랑크 및 부르고뉴 지방으로 포교를 하며 다녔다. 그리하여 민중과 귀족 및 성직자의 교회적 종교생활의 부흥을 위해 놀라운 활동을 하였다. 강하게 이상을 추구하는 그의 뚜렷한 인품은 제자들을 사로잡았으며 또한 유럽의 수도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도원을 세웠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 1922년 2월 1일 아일랜드에서 당시 성 골롬반 선교회 총장인 존 블로익 (John Blowick) 신부에 의해 창설되었다. 포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포교지의 전통적인 관습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에 전교수녀들의 적극적이며 정성어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골롬반 내에 전교수녀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성모승천대축일 (聖母昇天大祝日)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축일로 마리아에게 바쳐진 초대 교회시대의 교회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헌당식(獻堂式)을 행한(5세기) 날에 지켜졌다.

성무일도 (聖務日禱)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공적(公的)이고 공통적인 기도.

성신강림 (聖神降臨) 예수 부활 후 제50일에 성신이 제자들 위에 강림한 사실. 사도행전 2:1~41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종말론적 기대를 성취시킨 사건이요 구원적 메시아적 사건이자 교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성심(聖心) 예수성심 또는 성모성심의 준말.

성영회(聖嬰會) 혹은 영해회. 버림받은 아동들을 위한 구제사업기관. 우리나라에는 1852년 8월말에 조선에 입국한 메스트르 신부가 우리나라 각지를 돌며 전교할

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죽음에 직면한 고아가 많음을 보고, 파리에 있는 성영회본부에 재정적인 원조를 청하여 1854년 경에 고아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펴기 시작하였다.

성체조배
(聖體朝拜)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을 바치는 신심행위.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이 가끔 성당에 와서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성체조배를 함으로써 성체에 현존하는 그리스도께 흠숭(欽崇)과 사랑을 표현하고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권장하고 있다.

성화(聖畫)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천사, 성인들 혹은 교회 역사상 성스러운 사건을 재현해 놓은 그림.

수계(守誡)

옛 교우들이 사용하던 말.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의하면, 수계는 ① 종교를 믿고 행하다. ② 계명을 지키다. ③ 교우로서의 본분을 다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

신학(神學)

우리말로 신학이라고 번역하는 성서에는 없는 단어이다. 고대 히랍인들이 그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만물의 존재를 최고의 존재로서 설명하는 철학적 우주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ㅇ]

애금시사
(哀矜施舍)

사랑과 정의감의 발로로 경제적인 수단을 가진 자가 불우 이웃을 물질적으로 돕는 종교행위.

영성(靈性)

그리스도교에서는 섞인 것이 조금도 없는 순전한 비물질성을 영성이라고 부른다.

영성체(領聖體) 미사 중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을 말한다.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하여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신자 상호 간에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예수성심신학교 1887년 서울 용산 원효로에서 개교하여 1942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교된 신학교. 원래 1885년 강원도 원주 부흥골(현 경기도 여주시)에서 개교한 후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자 서울 원효로로 이전하였고, 1945년 2월 23일 경성천주공교신학교로 개칭, 다시 개교하여 현재의 가톨릭대학 신학부가 되었다. 초대 교장에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 리우빌(Liouville, 柳) 신부가 취임했으며, 중등과 3년, 철학과 2년, 신학과 3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지]

저성첨례날(諸聖瞻禮) 모든 성인의 날의 옛말.

제대(祭臺) 제단이라고도 불림. 이 말은 ‘제사의 장소’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 가톨릭교회에서 미사성체가 봉헌되는 단(壇)을 말한다. 순교자의 유해가 그 안에 안치되기도 하는데, 이는 초기 교회나 카타콤바 즉 지하묘지에서 순교자의 무덤 위에 돌로 세운 벽감(壁龕)에서 의식을 행하던 것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주보(主保)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은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성인을 주보성인, 혹은 수호성인, 보호성인이라 한다.

지목구장 포교지 교구 또는 준교구의 하나로서 대목구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지목구의

(知牧區長) 교세가 발전하면 대목구가 되며, 그 교세가 더 늘어나면 정식교구로 승격된다.

[ㄸ]

찰고(察考)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 용어로 사목자가 교우들의 교리지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 찰고의 대상자는 성세성사를 받으려는 예비교우와 판공성사를 받고자 하는 영세교우이다. 그러므로 찰고의 시행 시기는 성세와 판공이 시행되는 때이다.

참례(瞻禮) 축일. 하느님과 구세주, 천사와 성인들, 거룩한 신비와 구세사적 사건들 등을 기념하거나 특별히 공경하도록 교회가 별도로 정한 날.

축성(祝聖) 준성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이라고 한다.

침묵의 교회 공산주의정권 아래에 있는 국가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을 침묵의 교회라고 한다. 침묵의 교회 그리스도 교인들의 상태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신앙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다른 국가의 그리스도 교인과 교류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15 광복 후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한 전역의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고, 이어 1948년 정식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북한 지역의 교회는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던 만주와 간도지역의 교회도 1946년부터 성직자의 체포, 교회재산의 몰수 등 탄압을 받다가 1949년 중국에 정식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북한 지역의 교회는 침묵의 교회가 된 후 1949년부터 6.25 전쟁 직전까지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체포, 투옥되고 교회재산이 몰수됨으로써 각 교회들은 폐쇄되어 지하교회로 숨어들었다.

[ㄷ]

태극계명학교 전주교구 화산본당(현 나바위본당)의 초대 주임 베르모렐 신부가 1907년 설립한 초등 교육기관으로 한때 폐지되었다가 1930년 다시 문을 열었다. 1937년 다시 폐교되었다.

통회보속 (痛悔補贖) 자신의 범한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벌을 받음을 의미한다.

[ㅍ]

파공(罷工) 의무적인 축일에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육체적 노동이 의무적인 축일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파공을 명한다. 신자들은 의무적인 축일 즉, 연중 모든 주일과 각국에서 정한 몇몇 축일에 파공을 지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한다든지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

파리외방전교회 17세기 중반 주로 아시아 지역의 가톨릭 포교를 위하여 프랑스에 설립된 해외 전도단체다. 1653년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창설했으며 1664년에는 신학교를 설립해 선교사들을 가르쳤다. 아시아 각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선교사들은 파견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평생토록 선교에 종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립 이후 2011년 현재까지 350년 동안 4,20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견했다. 아시아 외에도 북미 지역에도 많이 파견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전교회도 개척자적 역할을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천주교 조선교구가 설립된 1831년에 브뤼기에르(Brugui re) 주교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브뤼기에르 주교가 1835년 만주에서 병으로 사망하면서 모방(Maubant) 신부, 앙베르(Imbert) 주교, 샤스탕(Chastan) 신부가 1836년과 1837년에 입국했

다. 이들 중 모방 신부는 김대건(金大建), 최양업(崔良業), 최방제(崔方濟)를 마카오의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공부를 하게 해 첫 한국인 사제 배출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세기 프랑스의 제국주의 침략기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공 이전에 이 전교회가 먼저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베트남 등에서 프랑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1866년 프랑스 해군의 침공 사건인 병인양요 사건과 관련이 있다.

- 판공(判工) 한국교회의 특수용어로 교우들이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성사를 말하며, 이때의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표를 받은 교우들만이 받을 수 있다.
- 피정(避靜)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영신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어느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남을 말한다.

[ㅎ]

- 혼배미사
(婚配彌撒)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설정한 성사.
- 혼배조당
(婚配阻當)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혼인할 수 있다. 법이 혼인을 금지한다고 함은 혼인의 본질이나 실정적 신법 또는 교회의 법규를 거슬리는 중대한 사유의 특수한 경우에 혼인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 회장직분
(會長職分) 서울교구의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신부가 저술했고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감수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wanted to look at Gangwon Province through records of missionaries who were active in Gangwon Province. The period of research was from 1886 to 1945, when the Treaty on the Protection of Premiership was signed, and the target areas were all over Gangwon Province, including the current northern Gangwon Province. And the materials of the study were a letter from Paris Missionaries who were in charge of business in Gangwon Province, including the Diary of Bishop Gütel, the Seoul Diocese of the Archdiocese of Seoul, the Golomban Foreign Missionary Society, and the Golomban Missionary magazine The Far East. In particular, they focused their analysis on the letters of missionaries from the Paris Outdoor Missionary Church, which was active until 1938 in Gangwon Province.

Their records, which are typewriters, are records of missionary work, but they include various records related to the Gangwon region as the primary source of Korea's modern history in Gangwon Province. It also contains the history befor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so it is not just about Gangwon Province but also about the northern Gangwon Province.

In the records of the missionaries, it was seen in common that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Gangwon region were the "slight mountain" terrain. They also knew that the life and culture of Yeongdong and Yeongseo regions were different due to the presence of the Taebaek Mountains across

Gangwon Province from east to west, and thought that the rugged mountainous terrain created a simple character of Gangwon Province residents.

France turned to a pro-Japanese route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Under these circumstances, Bishop Mutell, then head of the diocese, knew that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s office could not feel good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but did not show any rejection of Japan's colonization of Joseon, which in turn was positively recognized by Japan as a protected nation. This perception also affected missionaries, who, too, remained negative about the cause of the outbreak, without knowing what caused it. Compared to many foreign missionaries who generally take a negative view of the medical profession and affirm that they are doing well against the Japanese soldiers who are preoccupied with eradicating or catching medical soldiers, Father Turnier is drawing attention because other missionaries are neutral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Japan. Japanese occupation gangs operating in Icheon, about the gangs and activities of the ruketeu gangs members a 'bobbed hair' to the congregation is the bride's and buisuBelievers through the strange story called 'gangs, has mobilized decrepit and Catholic religion is new and true religion,' , and Deceptive and that gangs of.If mishandled by force is strong, believers would haunt it remarkable, with worrisome.

Missionaries report on church construction, school establishment and church in their original records of missionary work, 5,000 believers in Gangwon Province increased to 10,111 in 1922 and are now seen expanding to 118 public offices in eight main parties.

The outbreak of the school bill comes as the church actively engaged in religious disputes, protecting their interests and protecting the church, pursuing an active extension of the church's rent, and actively engaging in religious disputes, as seen in the records of the missionaries, although the texts of the Gangwon region appear to be diverse before 1904, but do not appear to occur after 1907. This is not clear whether the text actually occurred

or whether it was not recorded because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was not high. However, if you look at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issue, you can see that Hyangchon society, which is a religious figure, recognizes missionaries as powerful people and relies on them, and that not only ordinary local residents but also local officials recognized the missionary and Catholic Church as powerful forces.

In the records of the missionaries, believers in Gangwon Province considered it great to be physically poor and to be faithful to the faith, but they clashed in terms of customs and superstitions in traditional Korean weddings and funerals and tried to understand the great purpose of missionary work. However, it wa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natural law" issue and defined it as an immoral act that should never happen.

The authority of the Japanese occupation with foreign missionaries, past and not the same. Recognized as the two biggest men and superior authority, they also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ir perception by seeing believers who recognized the bride as inferior to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In this situation before Japanese occupation in their eyes in the Koreans, including local people, Gangwon-do, Korea is poor and poor as the object of your great mercy, but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s, they want doesn't know what you see any presence, and it get to as idle hands and those who can not continue, Koreans about the critical gaze is to be much stronger.

Even if the record of foreign missionaries is that they experience modern Korean history and have a primary feed personality, there is a clear threshold in their view. They are exempted taxpayers tried to understand that Joseon society through the Western eye, and of their religious beliefs. For Koreans, including local residents in Gangwon Province, he recognized them as poor, lazy and poor, and called for absolute faith in religion rather than offering alternatives such as education as a way to overcome them. As the poor lives of

the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 alienated them from the Catholic Church, he could not come up with any clear measures to solve them, only recommending a community life based on hardworking believers.

They have not deviated from the fundamental attitude of their seniors in the past. The expression "goodness, simplicity and sincerity," which foreign missionaries rated as the merits of the people in Gangwon Province, was limited to those who accepted Catholicism, a religion of Western civilization. In the past, it failed to shake off the sense of duty that "the superior Westerner" should edify the "beautiful Asian" that foreign missionaries have conjured up countless times during their visits to Joseon. With Seoul's moutel bishop at the forefront, foreign missionaries on the Korean Peninsula engaged in private business activities at their respective missionary sites, contacting the people in each region to deeply understand their lives and culture. At the crucial moment, however, he was shown to evaluat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ose in Gangwon Province, according to Western values, and act according to religious interests.

Records of numerous foreign brides cited in the main article on Gangwon Province residents are data detailing the history of the modern Gangwon reg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y have a limit in that they saw the record from the perspective of a batter.

—
강원학학술총서 13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지은이 :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펴낸곳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주 소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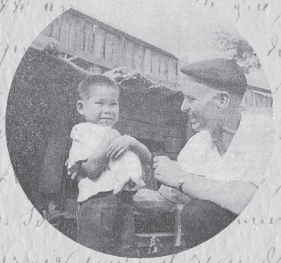
전 화 : 033.250.2980

ISBN 978-89-5705-775-9 93910

※ 이 책은 2019년 강원연구원에서 추진한 '강원학 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로,
강원연구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le prix des outils rendus, ils reviendraient à
 peu près à 2000 Ligatures. Sous le prix de la
 réparation indispensable de la charrue et de
 la maison, il est difficile de l'évaluer, mais
 il sera élevé. Les chrétiens de N'gers, sans en
 consentent bien à supporter un peu les
 frais, mais étant peureux ils ne peuvent
 donner grand'chose. Ils ont occasionner
 pour moi cette année.



Je n'ai pu que faire
 quelques acquisitions de dimension
 sans pour cela le per-
 mètre de la... en truch.
 de la... parents!

Si vous... ment de la
 genre... de dernier... de la...
 de plus que **외국인 선교사의**...
 au bon... **눈에 비친 강원지역**...
 part... à l'aise... les
 corien... ne vient... mais...
 ne pas me décourager.

Très affectueux, honorables, l'expression
 de sentiments d'affection...
 et de profonde révérence

De vos dévots enfants en H. F.

J. Rouquette

비매품/무료
 93910

9 788957 057759
 ISBN 978-89-5705-775-9